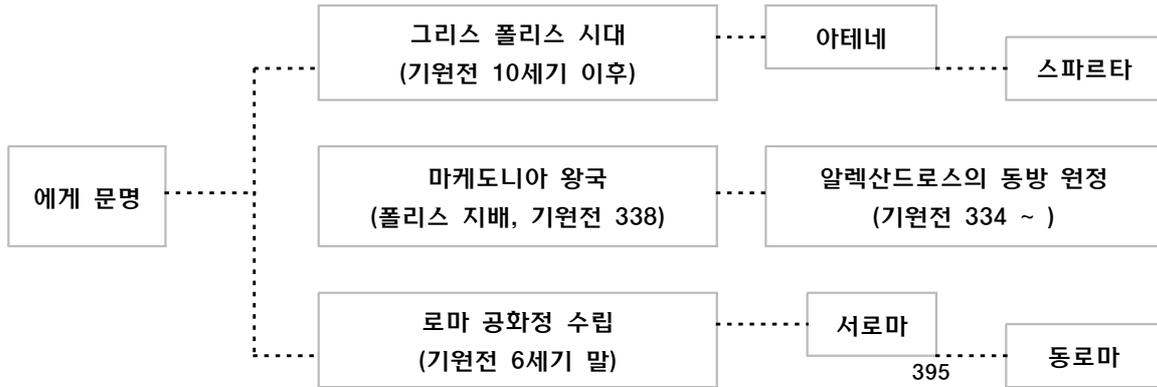


고대 지중해의 세계

고대 지중해 세계의 발전



[에게 문명(Aegean civilization)]

01. 성격

- 해양 청동기 문명
- 오리엔트 문명의 그리스 전달
- 그리스 문명의 모태

02. 전기 크레타 문명(= 미노아 문명)

- 기원전 2000년경 크레타 섬의 크노소스 중심
- 평화적
- : 밝고 생동감 넘침
- 강력한 왕권
- 지중해 해상 무역으로 번성
- 크소노스 궁전(Knossos Palace)

03. 후기 미케네 문명

- 기원전 14세기경 미케네인 남하 → 크레타 문명 파괴
- 미케네, 트로이, 티린스를 중심으로 도시 왕국 형성
- 상무적(尙武的) 문화 → 영웅 서사시 구전
- 기원전 12세기경 **도리스인의 침입**으로 멸망 → 암흑시대 지속



〈에게 문명〉

고대 지중해 세계 - 그리스 세계의 성립과 발전

[폴리스(Polis)의 탄생과 발전]

01. 성립

- **산지 지형, 토지 척박**, 교통이 불편하여 중앙집권적 통일 국가 형성 곤란
↳ 촌락 공동체 내의 교역 증대, 방위 필요성의 증가 → **기원전 10세기경** 도시 국가 형성

02. 구조

- 아크로폴리스(종교·군사적 거점, 신전 건축, 유사시 피난처)
- 아고라(광장, 집회·상거래 장소)

03.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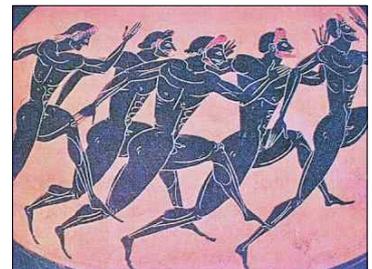
- 정치적으로 독립된 **폐쇄적 공동체**
- 그리스 인의 동족의식
: **헬레네스(헬렌의 후손)** ⇔ 바르바로이(야만인)
- 동일한 언어, 도시 국가 간 동맹 결성
- 올림피아 제전 개최



〈고대 그리스의 세계〉

04. 식민 활동

- 기원전 8세기 후반 ~ 기원전 6세기경 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경작지 부족으로 활발한 대외 진출
: 흑해, 지중해 연안에 식민 도시를 건설하고 지중해 해상권 장악



〈올림피아 제전〉

[★아테네(Athens, 아티카 반도) 민주 정치의 성장]

01. 귀족 정치

- 귀족의 전쟁 비용 담당 → 정치적 실권 행사

02. 평민의 성장

- 상공업 발달 → 평민의 경제적 지위 신장
- **평민 중장 보병**이 군대의 주력 형성 →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며 귀족과 대립

03. **솔론(Solon, 기원전 630 ~ 기원전 560)의 금권 정치**

- **조정자·아르콘(집정관) 선임(BC. 594)**, **재산 소유 정도를 반영**하여 시민의 참정권 차등 분배(4등급)
- 귀족과 평민의 불만과 대립 고조

04. **페이시스트라토스(Peistratos, 기원전 600 ~ 기원전 527)의 참주(僭主, Tyrannos) 정치**

- 솔론의 국법 준수, 빈농 보호 조치
- 올림포스 신전과 아테네 신전 건축

고대 지중해 세계 - 그리스 세계의 성립과 발전

[★아테네(Athens) 민주 정치의 성장]

05. 클레이스테네스(Cleisthenes, 기원전 570 ~ 기원전 508)의 개혁

- 아테네 민주 정치의 기틀 마련
- 부족제의 개편
- : **혈연 중심** ⇨ **거주지 중심**
- : 데모스(Demos)에 따라 30개 구역[시내(10), 해안(10), 내륙(10)]으로 구분
 ↳ 각각 한 구역씩을 조합하여 총 세 구역을 각 부족에게 추첨으로 할당
- **500인 평의회 설치**
- 참주(僭主) 출현을 막기 위해 **도편 추방제[오스트라키스모스(Ostrakismos)]** 실시



〈도편 추방제〉

06. ★그리스 - 페르시아 전쟁(기원전 492 ~ 기원전 479)

1) 배경

- 기원전 6세기 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다리우스 1세의 팽창
- : 아나톨리아(소아시아)의 그리스 식민 도시 압박 → 아테네의 그리스 식민 도시 지원

2) 경과

- 페르시아의 침입과 그리스 세계의 단결
- : 마라톤 전투(기원전 490년)
- : **테르모필레 전투**(기원전 480년)
- : **살라미스 해전**(기원전 480년)
- 아테네, 스파르타 중심의 **그리스 연합 승(勝)**

3) 영향

- 아테네의 번영
- : **델로스 동맹(기원전 477 ~)의 맹주**
- : 강력한 해상 제국으로 발전
- 참전 시민들의 발언권 강화
- : **민주 정치의 발전**



〈그리스 - 페르시아 전쟁〉

07. 페리클레스 시대(Perikles, 기원전 457 ~ 기원전 429)

- **아테네 민주 정치의 전성기**
- : **모든 성년 남자 시민이 민회 참석** → **제한적 직접 민주 정치**(여자, 거류 외국인, 노예 제외)
- 민회에 참가하는 시민에게 **공무 수당 지급(수당제)**
- 장군 등 특수직을 제외한 모든 관직과 배심원(시민 재판소)을 추첨으로 임명(**추첨제**)
- 델로스 동맹의 기금을 이용하여 **파르테논 신전 건설(기원전 438)** → 스파르타와의 대립 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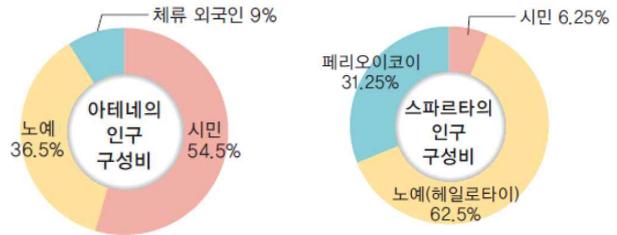
[★스파르타(Sparta)]

01. 성립

- 소수의 도리스인(Dorians)이 원주민을 정복하고 폴리스 형성
- 농업 중심의 자급자족 사회

02. 강력한 군사 통치 체제

- 군국주의적 귀족 정치
- 다수의 피지배층 제압
 - : 헤일로타이(예속 농민) → 농업 종사
 - : 페리오이코이(반자유민) → 상공업 종사
- 교육
 - : 모든 남자 시민(7 ~ 30세)에게 공동체 생활과 엄격한 군사 훈련 실시
 - : 아고게(agoge, 공교육 제도)
 - : 파이도노모스(paidnomos, 교사)
 - ↳ 용감한 시민 전사 양성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인구 구성〉

[폴리스의 쇠퇴]

01. ★펠로폰네소스 전쟁(Peloponnesian War, 기원전 431 ~ 기원전 404)

1) 배경

- 폴리스 간 반목
- : 델로스 동맹(아테네 중심) ⇔ 펠로폰네소스 동맹(스파르타 중심)

2) 전개

- 전쟁 초기에 페리클레스 사망
 - ↳ 아테네 민주 정치의 중우(衆愚) 정치 전략
-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승리로 델로스 동맹 해체
- 스파르타의 패권 장악

우리 정치는 소수의 독점을 배제하고 권력을 다수에게 평등하게 분배하기 때문에 민주 정치라 불린다.
 그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비인간적 군사 훈련을 통해 용기를 함양하지만,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그들과의 전쟁에서 결코 밀리지 않고 있다.
 - 페리클레스의 전몰자 추도사

02. 스파르타 시대(기원전 404 ~ 기원전 371)

- 공동체 의식 붕괴로 폴리스 간 반목과 갈등 지속
- 아테네, 코린트(Corinth), 아르고스(Argos) 등이 반(反) 스파르타 전선(코린트 동맹) 형성

03. 테베(Thebes) 시대(기원전 371 ~ 기원전 338)

- 테베의 스파르타 격파
- 마케도니아 필리포스 2세(재위 기원전 359 ~ 기원전 336)의 테베 정복 → 폴리스 지배(기원전 3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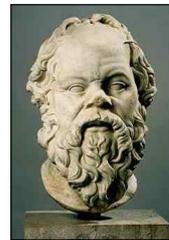
[그리스의 문화]

01.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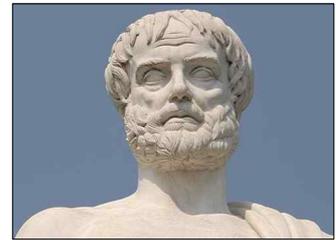
- 고전 문화, 인간 정신이 구현된 자유로운 시민 중심의 문화
- **인간 중심적**[anthropomorphism, 신인동형론(神人同形論)], 현세 긍정적, 합리적, 독창적

02. 철학

- 자연 철학(기원전 6세기경 이오니아 지방)
: 우주와 만물의 근원에 대한 탐구, ex) 탈레스(Thales) · 피타고라스(Pythagoras)
- **소피스트**(Sophist, 기원전 5세기경)
: **직업 교사**, 철학의 관심을 자연에서 인간으로 돌림, 진리의 상대성과 주관성 주장, **회의적 사고**
- **소크라테스**(Socrates, 기원전 470 ~ 기원전 399)
: 소피스트에 맞서 보편적이고 절대적 진리를 주장
- 플라톤(Plato, 기원전 427 ~ 기원전 347)
: 이상 국가 구상
-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기원전 384 ~ 기원전 322)
: 여러 분야의 학문을 체계적으로 정리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03. 문학

- 호메로스, 『일리아스』 · 『오디세이아』 → 트로이 전쟁 주제, 영웅과 신들의 세계를 노래
- 헤시오도스, 『노동과 나날』(노동의 신성함 강조) · 『신통기』(올림포스 신들의 계보 작성)

04. 연극

- 소포클레스(비극 작가), 아리스토파네스(희극 작가, 『개구리들』)

05. 역사

- 헤로도토스, 『역사』(그리스 · 페르시아 전쟁 서술) → ‘역사(학)의 아버지’
- 투키디데스, 『역사』(펠로폰네소스 전쟁 서술) → 비판적 역사 서술의 모범

06. 종교

- 다신교, 제우스를 비롯한 12신 숭배
- 인간적 모습의 신(神) → 문학과 예술의 원천

07. 미술

- **조화와 균형의 미 추구**
- 신전 건축, 장식 조각 발달
: **파르테논 신전**(도리아 양식)
: 아테나 여신상, 원반 던지는 사람(미론)



〈파르테논 신전(기원전 438)〉



〈아테나 여신상〉

개념 Check

- ① 그리스 세계의 폴리스에서 ()는 종교적 거점이자 군사적 거점이었다.
- ② ()은 재산 정도에 따라 시민을 구분하고 참정권을 차등 분배하였다.
- ③ 클레이스테네스는 혈연 중심의 부족제를 () 중심의 부족제로 개편하고, 500인 평의회를 설치하였다.
- ④ 그리스-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한 뒤 ()는 델로스 동맹의 맹주로 성장하였다.
- ⑤ 페리클레스 시대에 ()는 권한이 강화되어 실질적인 입법권을 행사하였다.
- ⑥ 아테네의 민주정은 여성, 거류 외국인, ()에게는 참정권이 부여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 ⑦ () 전쟁에서 승리한 스파르타는 그리스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였다.
- ⑧ 진리의 상대성을 추구한 소피스트에 맞서 ()는 진리의 절대성을 주장하였다.

유형 CHECK!!

01

(가), (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1-6월 모의평가]

- [가]은(는) 혈연 중심의 네 개 부족을 거주지 중심의 열 개 부족으로 재편하였다. 이후 각 부족에서 50명씩 선발하여 500인 평의회를 구성하였다.
- [나]은(는) 공무 수당을 지급하고 주요 관직과 배심원을 추천으로 선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델로스 동맹의 기금을 이용하여 파르테논 신전을 건설하였다.

- ① (가) - 호민관직을 설치하였다.
- ② (가) - 도편 추방제를 마련하였다.
- ③ (나) - 호르텐시우스법을 제정하였다.
- ④ (나) - 스파르타쿠스의 난을 진압하였다.
- ⑤ (나) -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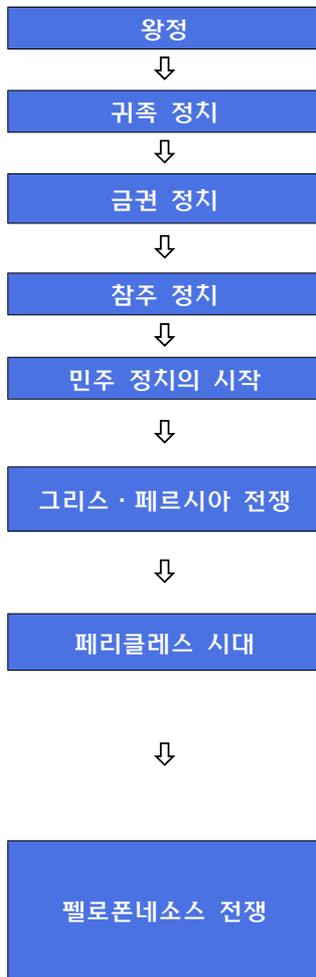
밑줄 친 ‘전쟁’의 결과로 옳은 것은?
[2020-수능]

아테네는 예게 해 연안의 도시 국가들에게 동맹의 의무를 엄격하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동맹국들은 시민들이 출병하길 싫어하여 금전으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였다. 이 자금을 바탕으로 아테네는 강력한 해군을 보유하게 되었고 동맹국들을 더욱 압박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테네가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코르키라와 동맹을 맺자, 이에 위협을 느낀 일부 도시 국가들이 아테네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다.

- ① 라티퐁디움이 확산되었다.
- ② 아테네가 해상 제국으로 발전하였다.
- ③ 스파르타가 그리스의 패권을 장악하였다.
- ④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참주정을 수립하였다.
- ⑤ 클레이스테네스가 도편 추방제를 도입하였다.



아테네의 정치 변화



- 중장보병의 발언권 강화(= 유산 시민)
- 솔론(기원전 630 ~ 기원전 560)의 개혁 : 재산 소유 정도에 따라 참정권의 차등 분배 주장
- 페이시스트라토스(기원전 600 ~ 기원전 527)의 참주 정치
- 클레이스테네스(기원전 570 ~ 기원전 508) : 도편 추방제, 부족제의 개편, 500인 평의회 설치
- 기원전 492 ~ 기원전 479
- 그리스 연합 ⇔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 지중해 해상권 쟁탈
- 마라톤 전투, 테르모필레 전투, 살라미스 해전
- 민주주의 정파의 지도자(기원전 461 ~)
- 제한적 직접 민주 정치의 완성 → 민주정의 전성기
 - ↳ 참정권의 제한(여자, 노예, 외국인 등 제외)
- 공직 관리와 재판관 선출의 추천제와 윤번제
- 파르테논 신전 완성(기원전 438)
- 페리클레스, 아테네 중심의 델로스 동맹 운영
 - ↳ 델로스 동맹 기금 금고의 아테네 이전, 동맹 기금 이용 신전 건축
- 델로스 동맹 ⇔ 펠로폰네소스 동맹 → 스파르타의 패권 차지

아테네와 스파르타

	아테네	스파르타
위치	해안	내륙
산업	해상 교역 → 해군력 증강	농업 중심
정치	민주정치	군국주의
노예	소수 개인 노예	다수 국유 노예
동맹	델로스 동맹	펠로폰네소스 동맹

펠로폰네소스 전쟁(기원전 431 ~ 기원전 404)의 원인

아테네인과 펠로폰네소스인은 에우보이아(euboia) 점령 이후에 체결된 30년 평화 조약을 깨고 전쟁을 벌였다. 그들이 평화 조약을 깬 이유와 관련하여 나는 이미 그들이 내세우는 불만의 원인과 논쟁을 기록하였으므로, 누구도 그렇게 큰 전쟁이 왜 그리스인들 사이에서 발발했는지 물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비록 별로 언급된 바 없으나, 나는 전쟁이 발발한 가장 진실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한다. 아테네가 강력해지자 스파르타가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그 결과 스파르타인들이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다고.

- 투키디데스, 『역사』

알렉산드로스 제국과 헬레니즘 문화

[★알렉산드로스 제국★(기원전 334 ~ 기원전 31)]

01. 성립

- 마케도니아의 성장
- 필리포스 2세 때 페르시아 원정 계획
- 알렉산드로스의 동방 원정(기원전 334 ~)
: 이소스 전투(⇔ 다리우스 3세)로 페르시아
정복, 이집트 점령, 인더스 강 유역 진출
: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 걸친 제국 건설



〈알렉산드로스 제국〉

02. 발전

- 동방(페르시아)의 전제 군주제 도입
- 동·서 융합 정책 추진
: 알렉산드리아 건설(기원전 331) → 그리스 인의 이주, 페르시아 인과 결혼 장려
: 무세이온(학문의 전당 겸 도서관) 건설

03. 분열

- 알렉산드로스 사후(BC. 323) 마케도니아, 시리아(셀레우코스 왕조), 이집트로 분열
- 악티움 해전(BC. 31) → 로마의 이집트 정복

[헬레니즘 문화]

01. 세계화한 그리스 문화

- 그리스 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오리엔트 문화와 활발히 교류(동·서 융합)
-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시리아의 안티오크 등이 문화의 중심지로 성장
- 폴리스의 애국주의 탈피 → 개인주의, 세계 시민주의
- 헬레니즘 미술 → 인도의 간다라 미술에 영향

02. 현실 도피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철학 발달

- 스토아학과(금욕주의, 이성적인 삶 추구)
- 에피쿠로스학과(정신적 쾌락주의, 마음의 안정과 만족 추구) → 미술에 영향



〈라오콘 군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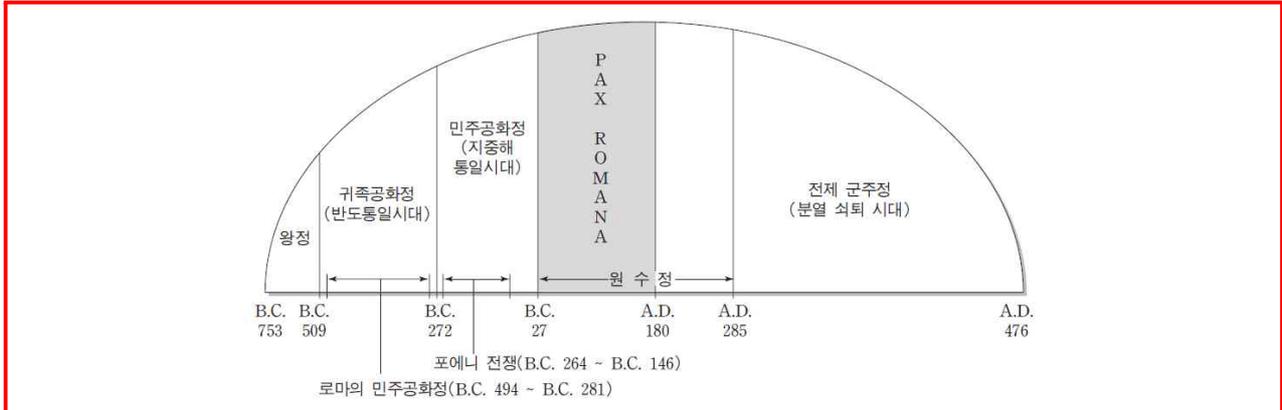
03. 천문학, 수학, 의학(해부학) 등 자연 과학 발전

- 에우클레이데스(= 유클리드, 기하학), 아르키메데스(부력의 원리), 아리스타르코스(태양 중심설)

04. 예술

- 사실적·관능적 → ‘밀로스 섬의 비너스 상’, ‘라오콘 군상’, ‘니케 상’

로마의 발전과 지중해 세계



[★로마(Rome)의 건국과 발전]

01. 건국

- 기원전 8세기경 이탈리아 중부의 라티움 지방 테베레 강가
- 초대 왕 로물루스가 건국



〈로물루스와 레무스〉

02. 발전

1) 왕정

- 후기 → 에트루리아(現 토스카나) 출신 왕의 지배

2) 공화정

- **기원전 6세기 말** 귀족들이 왕을 몰아내고 수립
- 귀족 중심의 정치 운영 → 원로원(Senatus)과 집정관(Consul)의 정치권력 독점
 - : 원로원(최고 의결 기관, 실질적 지배 기구)
 - : 집정관(최고 행정관, 원로원에서 2명 선출, 임기 1년)
- **평민권의 성장(기원전 5세기 ~ 기원전 3세기)**
 - : 상공업 발달 ⇨ **중장 보병**으로 군대의 주력 담당 ⇨ 귀족 중심의 정치 운영에 대한 불만 표출
 - 대내적으로 정치 투쟁(공화정의 민주화), 대외적으로 정복 사업 진행

법률	내용
제1차 성산 사건(BC. 494)	• 평민 군대가 성산(聖山, 몬스사케르)에 모여 농성 → 귀족들의 평민 요구 수용
호민관 설치(BC. 494)	• 평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평민 중에서 선출한 관직(정원 10명, 임기 1년) • 호민관 → 집정관 등의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
평민회 설치(BC. 472)	• 평민들의 권익 단체
12표법(BC. 450)	• 로마 최초의 성문법, 귀족의 자의적인 법 집행 방지
리키니우스 법(BC. 367)	• 2명의 집정관 중 1명은 평민에서 선출
호르텐시우스 법(BC. 287)	• 평민회의 결의가 원로원의 동의 없이 국법으로 인정
	• 평민회의 정식 회의 인정 • 평민이 법률상 귀족과 동등한 권리 획득

로마의 발전과 지중해 세계

[★로마의 발전과 사회적 변화]

01. 로마의 팽창

- 1) 이탈리아 반도 통일(기원전 272)
 - 중장보병 주도

- 2) 포에니(페니키아인) 전쟁

- 지중해 해상권 경쟁(⇔ 카르타고)
- 제1차(기원전 264 ~ 기원전 241) ⇨ 제2차 ⇨ 제3차(기원전 149 ~ 기원전 146)
- 한니발 ⇔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 로마의 승리, 서부 지중해 차지



(제2차 포에니 전쟁(기원전 218 ~ 기원전 201))

- 3) 동방으로 세력 확대

-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정벌, 소아시아로 세력을 확대하여 지중해 대부분 지배
- 속주(프로빈키아)에 총독(프로콘술)을 파견하여 통치



<한니발(BC. 247 ~ 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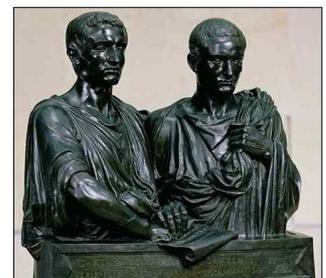
02. 포에니 전쟁 이후 공화정의 변화(공화정의 위기)

- 1) 사회 · 경제적 변화

- 유력자들이 노예 노동을 이용한 대농장(라티퐁디움) 경영 확대 → 신(新) 귀족층 대두
- 자영농의 몰락
: 대외 팽창 과정에서 장기간의 전쟁으로 토지 황폐화
: 속주에서의 값싼 곡물과 노예 유입
: 몰락 농민의 로마 집중과 군사력의 약화
- 헬레니즘 문화 유입 → 향락적 사치 풍조 유행

- 2)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기원전 134 ~ 기원전 132 ~ 기원전 121)

- 티베리우스 그라쿠스, 농지법 제정(유력자들의 대토지 점유 제한)
- 가이우스 그라쿠스, 곡물법 제정(빈민들에게 값싼 곡물 제공)
- 원로원과 대토지 소유자들의 반대로 실패
: 별족파(귀족, Optimates) ⇔ 평민파(민중, Populares) ⇨ 정치적 혼란



<그라쿠스 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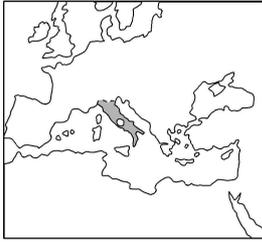
- 3) 동맹시 전쟁과 노예 반란

- 이탈리아 동맹국들이 로마 시민권 요구 → 동맹시 전쟁(기원전 91 ~ 기원전 88) → 로마의 승리
- 검투 노예 스파르타쿠스의 난(기원전 73) → 크라수스(기원전 115 ~ 기원전 53)의 진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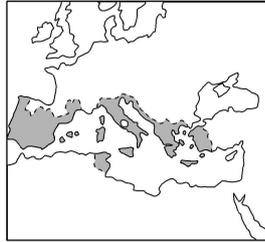
- 4) 마리우스와 술라 등 군인 정치가의 대립과 삼두 정치의 전개

- 제1차 삼두 정치(카이사르 · 폼페이우스 · 크라수스, 기원전 60 ~ 기원전 45)
- 제2차 삼두 정치(옥타비아누스** · 안토니우스 · 레피두스, 기원전 43 ~ 기원전 31)
- 악티움 해전(옥타비아누스 ⇔ 안토니우스 · 클레오파트라, 아그리파의 활약, 기원전 31)

로마의 발전과 지중해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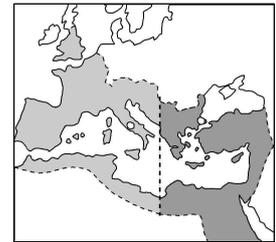
기원전 264년



기원전 146년 이후



117년 이후(최대 영역)



395년(동·서 분열)

[★제정의 성립과 쇠퇴]

01. 제정의 시작과 평화 시대

- **옥타비아누스**(재위 기원전 27 ~ 기원후 14)
 - : 악티움 해전 승리 → **프린킵스(제1 시민)** 자처, 원수정(元帥政. **프린킵아투스**) 수립
 - : 원로원에서 **아우구스투스(존엄한 자)의 칭호 획득**(기원전 27)
 - ↳ 군대 통수권과 재정 관리권 장악
 - : **종신 집정관의 권한(기원전 19)** → **대제사장(기원전 12)**
- **로마의 평화 시대**(Pax Romana, 기원전 27 ~ 기원후 180)
 - : 5현제 시대(96 ~ 180)
 - ↳ 네르바 ~ 트라야누스 ~ 하드리아누스 ~ 안토니누스 피우스 ~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 ↳ 정치적 안정, 최대 영토(트라야누스 황제, 재위 98 ~ 117) 확보
 - : 도로·화폐·도량형 정비, 상공업 발달, 도시 중심의 경제적 번영, 동서 교역 발달

02. 제국의 쇠퇴

- 1) 군인 황제 시대(235 ~ 284)
 - 이민족(**게르만, 사산왕조 페르시아**)의 침입과 속주의 반란
 - 속주 군단 사령관의 황제 추대로 군대의 정치 개입
 - 전쟁과 약탈 → 농촌 피해, 도시와 상공업 쇠퇴, 중산층 자유 시민 몰락
 - 콜로누스(colonus, 부자유 소작인)를 통해 토지를 경작하는 **콜로나투스(colonatus) 제도** 성행
- 2) 중흥 노력
 -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재위 284 ~ 305)
 - : **군인 황제 시대의 혼란 수습**, 전제 군주제 도입, **4제 통치 체제**(테트라르키아), 군대 장악
 - **콘스탄티누스 황제****(재위 306 ~ 337)
 - : **크리스티교 공인(밀라노 칙령, 313)**, **콘스탄티노폴리스 천도(330)**, 군주제 강화
 - 테오도시우스 황제(재위 379 ~ 395)
 - : **크리스티교의 국교 인정(392)**, 사후 동로마와 서로마 제국으로 분열(395)
- 3) 멸망
 - 서로마 제국 → 수도 로마, 게르만 용병 대장 오도아케르의 침입으로 멸망(**476**)
 - 동로마 제국 →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 오스만 튀르크 메(흐)메트 2세의 침입으로 멸망(**1453**)

로마의 문화

01. 특징

- 그리스 문화 + 헬레니즘 문화 + 로마 문화 → 서양 고전 문화의 완성
- 법률, 도시 설계, 토목, 건축 등 실용적인 문화 발달
- 학문, 예술은 그리스·헬레니즘 문화 모방

- 모든 고대의 역사는 호수로 흘러 들어가는 강물처럼 로마의 역사 속으로 들어갔으며, 모든 근대의 역사는 로마로부터 다시 흘러 나왔다. - 랑케
-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 로마는 세 번 세계를 통일하였다. 최초는 무력으로, 다음은 종교로, 그리고 마지막은 법률로 - 예링
- 토인비는 로마 문화를 그리스 문화와 합쳐 '헬레닉(Hellenic) 문명' 이라 하였다.

02. 법률(개인 간의 문제나 공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 발전

- 12표법(관습법의 성문화) ⇨ 시민법(로마 시민) ⇨ 만민법(3세기 초 제국 전역의 자유인에게 시민권 부여) ⇨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로마법 대전(Corpus Juris Civilis)』, 529 ~ 565]

03. 제국의 통일성 유지



〈콜로세움〉

- 도로망 건설
: 물자 교류와 신속한 군사적 행동 → 아피아 가도(로마 ~ 카푸아)
- 로마에 대한 충성심 확보
: 상하수도, 공중목욕탕, 콜로세움(원형 경기장) 등 제국 전역에 확산
- 바실리카(집회소), 수도교(수도 시설)
- 개선문



〈아피아 가도〉

04. 철학과 역사

- 철학
: 스토아(Stoa) 철학이 상류층에서 유행
- 역사
: 『로마사』(리비우스), 『게르마니아』(타키투스), 『갈리아 전기』(카이사르), 『영웅전』(플루타르코스)

05. 문학

- 그리스의 영향
- 산문
: 키케로(기원전 106 ~ 기원전 43)의 『국가론(De republica)』, 『법률론』, 『의무론』
- 서사시
: 베르길리우스(기원전 70 ~ 기원전 19)의 『아이네이스(Aeneis)』

06. 자연 과학

-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天動說, = 지구중심설)

크리스트교의 등장과 확산

01. 성립

- 아우구스투스 시대 로마의 속주가 된 유대인의 **메시아**(구세주) 출현 고대
- 예수의 등장 → 유대교의 배타적 선민사상과 율법주의 배격, 보편적 사랑과 평등 설교 → 예수 처형

02. 확산

- 베드로, 바울로 등의 선교 활동 → 로마 제국 내 전파



〈카타콤〉

03. 탄압

- 네로 ~ 디오클레티아누스
- **황제 숭배 거부**, 군대 복무 거부, 로마의 다신교적 전통 → 박해
: 카타콤(catacomb)에서 예배를 통해 교세 확장

04. 공인과 교리 확립

- 밀비우스 다리 전투 승리(⇔ 막센티우스, 312) ⇨ **밀라노 칙령(313)**
: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리키니우스 황제의 협의, 종교에 관한 관용 표방 → **크리스트교 공인**
- **니케아 공의회(325)**
: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소집, 최초 종교 회의
: 아타나시우스파의 삼위일체설을 정통 교리로 채택하고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규정
: 교회 명칭 → 가톨릭교회

아타나시우스는 ‘예수는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신으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 일체’를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아리우스는 ‘아버지인 신과 아들인 예수는 동일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규정하였다. 이때 추방된 아리우스파는 게르만족에게 전파되었다. 또한 **431년 에페소스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선고된 네스토리우스파는 사산 왕조 페르시아에 전파되었다.

- 테오도시우스 황제(재위 379 ~ 395)의 **국교 선포[380(테살로니카 칙령) → 392]**
- 교리 체계화
: 아우구스티누스(354 ~ 430)의 『신국론』 → 크리스트교적 세계관 확립

05.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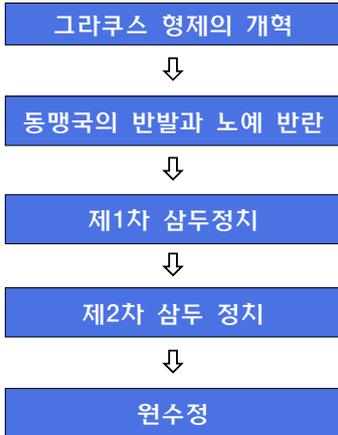
- 그리스·로마 문화와 함께 유럽 문화의 중요한 토대 형성

▣ 유대교와 크리스트교

유대교와 크리스트교는 모두 여호와를 숭배하는 **일신교**이다. 유대교에서 신의 구제는 이스라엘인에게만 내려진다고 믿는다. 그러나 **크리스트교**는 **신을 최후의 심판자로서보다는 절대적 사랑을 베푸는 자로 인식**하고 배타적인 선민사상을 극복하여 모든 인간이 신 앞에서 평등하다고 가르쳤다. 이것이 크리스트교가 세계 종교로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공화정 말기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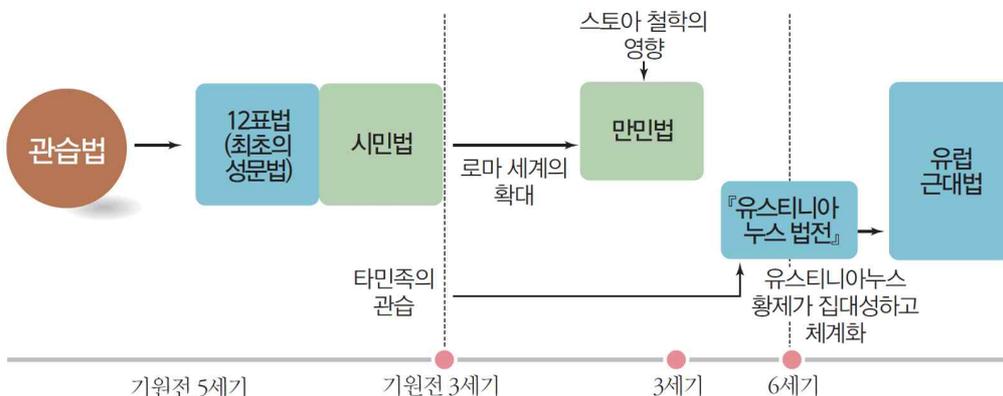
- 기원전 133 ~ 기원전 121
- 농지법(티베리우스 그라쿠스)과 곡물법(가이우스 그라쿠스) 제정
- 동맹시 전쟁(기원전 91 ~ 기원전 88)
- 스파르타쿠스의 난(기원전 73 ~ 기원전 71)
- 카이사르(기원전 100 ~ 기원전 44) 주도
: 갈리아 전쟁을 통해 영토 확장, 원로원을 무시한 독재 정치 → 암살
- 기원전 43 ~ 기원전 31
- 악티움 해전(기원전 31) → 옥타비아누스(기원전 63 ~ 기원후 14)의 승리
- 원로원에서 아우구스투스의 칭호 → 제정의 시작(기원전 27)

제정의 발전과 쇠퇴



- 기원전 27 ~ 기원후 180
- 로마의 평화 시대
- 96 ~ 180
- 트라야누스 황제(재위 98 ~ 117) → 최대 영토 확보
- 세베루스 왕조(193 ~ 235) 이후 군대가 황제를 옹립
- 50년 간(235 ~ 284) 26명의 황제 난립 → 정치 혼란과 물가 상승
- 콜로나투스 제도[부자유 소작인(콜로누스)을 이용한 농장 경영]
- 재위 284 ~ 305, 군인 황제 시대의 혼란 수습
- 4분 체제[Tetrarchy, 아우구스투스(2명) · 카이사르(2명)] 창안
- 재위 306 ~ 337
- 밀라노 칙령[313, cf] 5호 16국 시대(304 ~ 439), 니케아 공회의(325)
- 콘스탄티노폴리스 천도(330)
- 서로마 → 게르만 용병대장에 멸망(476)
- 동로마(비잔티움) → **오스만 제국**에 멸망(1453)

로마법의 발전



개념 Che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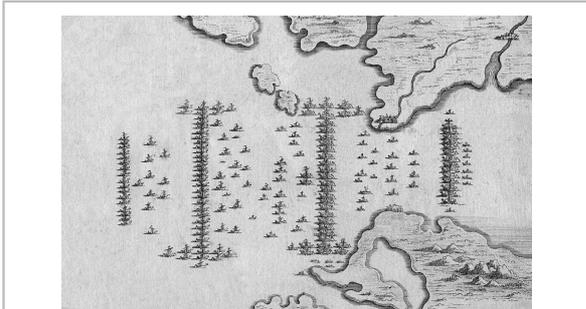
- ① 로마의 공화정은 집정관, (), 민회 등으로 이루어진 정치 체제였다.
- ② 로마는 카르타고와의 세 차례에 걸친 () 전쟁에서 승리하여 서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하였다.
- ③ 자영농이 몰락하고 () 경영이 확대되자, 그라쿠스 형제는 자영농 육성을 위한 개혁을 실시하였다.
- ④ 공화정 말기 로마에서는 원로원과 민회를 배제한 채 3명의 실력자가 동맹하여 권력을 독점하는 () 정치가 행해졌다.
- ⑤ ()는 원로원으로부터 ‘존엄한 자’라는 의미의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부여받았다.
- ⑥ () 황제는 크리스티교를 공인하고, 수도를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기는 등 제국의 부흥을 꾀하였다.
- ⑦ 로마 문화는 (), 토목, 건축 등 실용적인 분야가 발달하였다.
- ⑧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이르러 ()는 로마의 국교가 되었다.

유형 CHECK!!

01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2-수능]



그림은 18세기 프랑스에서 제작된 것으로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벌어진 해전을 묘사하고 있다. 우측에는 안토니우스의 함대가 있었다. 그의 함대는 클레오파트라 등이 합류한 연합군이었다. 좌측에는 [가]의 함대가 있었다. 그의 함대는 잘 훈련된 군사들로 구성되었으며, 아그리파라는 뛰어난 전략가의 지휘 아래 봉쇄 작전을 펼쳐 안토니우스의 함대를 격파하였다. [가]은(는) 이 해전에서 승리한 이후에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부여받았다.

- ① 호민관 제도를 만들었다.
- ② 스스로 프린켑스라 불렀다.
- ③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하였다.
- ④ 제국을 4분할하여 통치하였다.
- ⑤ 카르타고와의 전쟁에서 활약하였다.

02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2-6월 모의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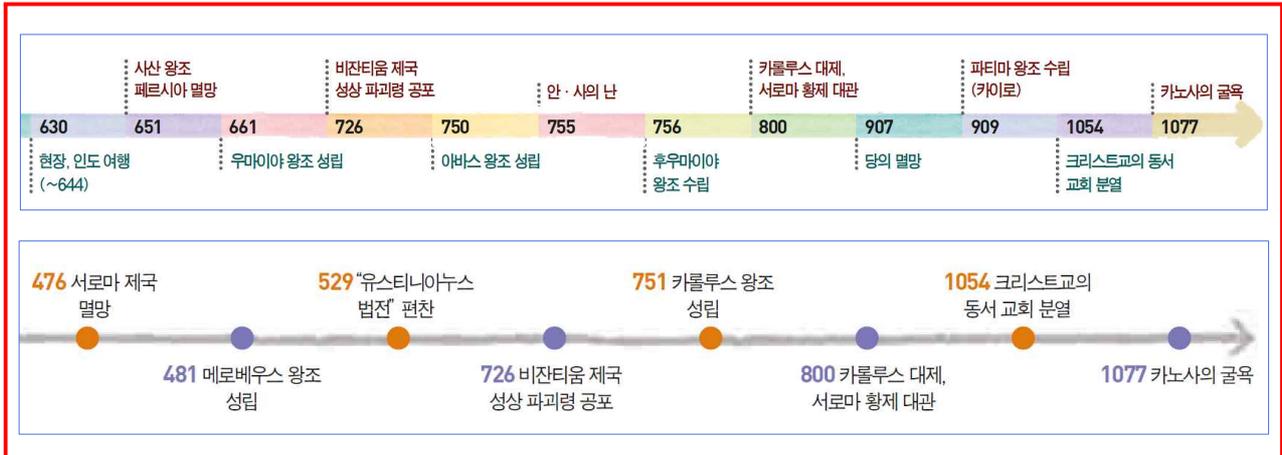
그는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서 막센티우스에게 대승을 거둔 이후 제국의 안정을 위해 리키니우스와 다음 내용에 합의하였다. “이제 크리스티교도와 다른 종교 신봉자 모두는 자신의 종교를 믿을 권한을 가질 것이다. …… 이 순간 이후로 크리스티교도는 제국 내에서 어떠한 박해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공개적인 신앙 활동을 할 수 있다.”

- ①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하였다.
- ② 성 소피아 성당을 건립하였다.
- ③ 수도를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겼다.
- ④ 정복지에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하였다.
- ⑤ 롬바르드족에게서 빼앗은 영토를 교황에게 기증하였다.



시대	시대 특징	
	정치·경제	사회·문화
그리스	① 폴리스 (Polis, 폐쇄적 공동체, BC. 10세기) : 아크로폴리스(종교·군사), 아고라(집회·상거래) ② 부유해진 평민이 중장보병으로 군대의 주력 형성 : 정치적 권리 요구 → 솔론의 개혁 : 아테네 민주 정치의 기틀 마련 → 클레이스테네스 ③ 스파르타(도리스인)의 군사 통치 체제 ④ 그리스·페르시아 전쟁 (BC. 492 ~ BC. 479) : 아케메네스 조 페르시아의 침입 격퇴 : 아테네 민주정의 전성기(페리클레스) ⑤ 펠로폰네소스 전쟁 (BC. 431 ~ BC. 404) : 델로스 동맹 ⇄ 펠로폰네소스 동맹(勝) ⑥ 테베 시대	① 동족 의식 : 헬레네스 , 동일한 언어 사용 : 올림피아 제전, 도시 간 동맹 ② 합리적이고 인간 중심적 문화 ③ 호메로스 , 『일리아스』·『오디세이아』 각종 비극과 희극 ④ 파르테논 신전 (아테나 여신, BC. 438) ⑤ 자연철학(BC. 6세기, 만물의 근원 탐구) ⑥ 소피스트(BC. 5세기, 진리의 상대주의) ⑦ 소크라테스(보편적·절대적 진리) 플라톤(이상 국가), 아리스토텔레스(논리학) ⑧ 『역사』(헤로도토스 , 투키디데스)
헬레니즘	① 알렉산드로스 제국(BC. 334 ~ BC. 31) ② 동방원정 →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정복, 이집트 점령, 인더스 강 유역까지 진출 ③ 페르시아의 통치 체제 수용 , 원주민의 문화 존중 ④ 알렉산드리아를 건설 하여 그리스인 이주 ⑤ 동·서 융합 정책(페르시아인과 혼인 장려)	① 그리스 문화를 기반으로 오리엔트 문화 융합 ② 세계 시민주의 ③ 스토아학과(금욕), 에피쿠로스학과(마음 안정) ④ 사실적·관능적(라오콘 군상, 비너스 상) ⑤ 물리학, 수학, 천문학 등 자연 과학 발전 ⑥ 쿠산 왕조의 간다라 미술 성립에 영향
로마	① 도시 국가 건설(BC. 8세기) ⇨ 왕정 ⇨ 귀족 공화정(BC. 6세기, 원로원·집정관) ② 중장 보병으로 활약한 평민의 발언권 신장으로 공화정의 민주화 : 호민관 (BC. 494) ⇨ 평민회 (BC. 472) ⇨ 12표 법 (BC. 450) ⇨ 리키니우스 법 ⇨ 호르텐시우스 법 : 이탈리아 반도 통일(BC. 272) : 포에니 전쟁(BC. 264 ~ BC. 146) 이후 공화정의 위기 → 라티퐁디움 성행 과 자영농의 몰락 ③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 (BC. 133 ~ BC. 121) → 별족파와 평민파의 대립 격화 → 정치적 혼란 ④ 동맹시 전쟁(BC. 91 ~ BC. 88), 스파르타쿠스의 난(BC. 73 ~ BC. 71) ⑤ 삼두 정치(BC. 60 ~ BC. 31) : 제1차 ⇨ 카이사르 독재 ⇨ 제2차 ⇨ 악티움 해전(옥타비아누스 ⇄ 안토니우스, BC. 31) ⑥ 제정 수립 (아우구스투스, BC. 27 ~) ⇨ Pax Romana(로마의 평화 시대)와 5현제 시대 ⑦ 군인 황제 시대 (235 ~ 284) → 게르만·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침입, 속주 반란, 콜로나투스 제도 ⑧ 중흥 노력 i) 디오클레티아누스 : 군인 황제 시대 수습 , 군대 통수권 장악, 전제 군주제 확립, 4제 통치 체제 ii) 콘스탄티누스 : 밀라노 칙령 (313), 니케아 공의회(325), 콘스탄티노폴리스 천도 (330) iii) 테오도시우스 : 크리스티교 국교 선포 (392) ⑨ 동·서로마의 분열(395) → 서로마는 게르만에 멸망(476), 동로마는 오스만에 멸망(1453) ⑩ 문화 i) 그리스·헬레니즘 양식 모방, 보편적 세계 문화 ii) 법률, 토목, 도로, 건축 등 실용적 문화 발달 : 12표법 (BC. 450) ⇨ 시민법 ⇨ 만민법 (212) ⇨ 로마법 대전(529 ~ 565) : 아피아 가도,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판테온(신전), 수도교, 개선문, 공중목욕탕 등 iii) 플루타르코스(『영웅전』), 카이사르(『갈리아전기』), 리비우스(『로마사』), 키케로(산문), 베르길리우스 iv) 상류층에 스토아 철학 유행 v)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	

서유럽 봉건 사회의 형성



[원시 게르만 사회와 게르만 족의 대이동]

01. 원시 게르만 사회

- 인도·유럽 어족, **발트 해 연안(원주지)**, 수렵·목축 및 농경에 종사
- 『갈리아전기』(카이사르), 『게르마니아』(타키투스)에 생활 모습 묘사
- 척박한 기후 조건으로 농경 발달이 미약했기 때문에 토지를 공유해 공동 경작하는 공동체 유지
- **종사 제도**(Gefolgschaft, 從士 制度) 발달
- 3세기 이후 로마 제국에서 콜로누스(colonus)나 용병으로 활동

02. 게르만 족의 이동(4 ~ 6세기)

1) 배경

- 로마 제국의 국경 수비 약화
- 인구 증가로 인한 경작지 부족

2) 경과

- **4세기 후반 훈족의 흑해 연안 진출**
: 프랑크족의 이동
: 반달족의 이동
: 서고트족의 이동



(게르만 족의 대이동)

3) 결과

- 서로마 제국 멸망(476) → **중세의 시작**
- 게르만 왕국 성립 → 로마·게르만 문화권 형성
- 북아프리카에 **반달 왕국 성립**(카르타고 점령, 435 ~ 534)

[★프랑크 왕국(Regnum Francorum)의 성립과 발전]

01. 성립

- 본거지를 유지한 채 단거리 팽창 이동으로 게르만 족의 전통 유지
 - : 갈리아 지방 정착
- 아타나시우스파로 개종하여 로마인과 융화
- 비잔티움, 이슬람의 직접적인 공격을 받지 않는 지역에 건국

02. 발전

1) 메로베우스(Meroveus) 왕조(481 ~ 751)

- 클로비스(재위 481 ~ 511)
 - : 왕조 개창, 갈리아 중부까지 영토 확장(486)
 - : 로마 가톨릭교(아타나시우스파)로 개종(496)
 - ↳ 중세의 중심 세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카롤루스 마르텔루스(680 ~ 741)
 - : 궁재 피핀 2세의 아들, 권력 투쟁 승리 → 궁재로 실권 장악(717 ~ 741), 프린스의 호칭 획득
 - : 투르 · 푸아티에 전투(732)에서 이슬람 군대(우마이야 왕조) 격퇴 → 로마 교황청의 제휴 시도

2) 카롤루스(Karulus) 왕조(751 ~ 843)

- 피핀 3세(재위 751 ~ 768)
 - : 카롤루스 마르텔루스의 아들, 궁재 계승(741 ~ 751)
 - : 킬데리쿠스(Childeric, 힐데리히) 3세(재위 743 ~ 751)를 폐위하고 왕조 개창(751)
 - ↳ 교황 자카리아스(Zacharias, 재위 741 ~ 752) ~ 프랑크 왕국의 유대 강화
 - ↳ 톰바르트(랑고바르트) 왕국을 정벌하여 라벤나 지방을 교황청에 기증(교황령의 기원, 756)
- 카롤루스 마그누스[Carolus Magnus(대제), 재위 768 ~ 814]
 - : 수도 아헨(Aachen)
 - : 서로마 제국의 영토 회복, 톰바르트 왕국 정복, 이베리아 반도 진출[론세스바예스 전투(779), 778 ~ 802], 동유럽의 작센 족 정복(정복지에 교회 건설 → 가톨릭교로 개종)
 - : 교황으로부터 서로마 황제 대관(800), 임페라토르 · 아우구스투스(Augustus)의 칭호
 - : 통치 제도, 군사 제도 정비
 - : 중앙 집권화 시도(백 · 공), 순찰사의 지방 파견
 - : 비잔티움 황제를 대신해 로마 교회의 새로운 보호자 역할

3) 카롤루스 르네상스(Carolus Renaissance)

- 카롤루스 마그누스의 문예 부흥 노력
- 공정 학교 설립, 학자 우대 정책[앨킨(Alcuin)], 라틴어 문법과 논리학 교육
- 수도원 중심의 학문과 고전 연구 후원
- 중세 유럽 문화의 기틀 마련(로마 문화 + 크리스티교 + 게르만 문화)

서유럽 봉건 사회의 형성 - 노르만 족의 이동

[프랑크 왕국의 분열]

01. 배경

- 카롤루스 마그누스 사망(814)
↳ 고유의 분할 상속에 따른 내분 발생
- 왕권 약화, 지방분권화 경향 출현

02. 결과

- **베르됭 조약(843)**
: 중프랑크 왕국, 서프랑크 왕국, 동프랑크 왕국 성립
- **메르센(메이르선) 조약(870)**
: 이탈리아(중프랑크 왕국), 독일(동프랑크 왕국), 프랑스(서프랑크 왕국)의 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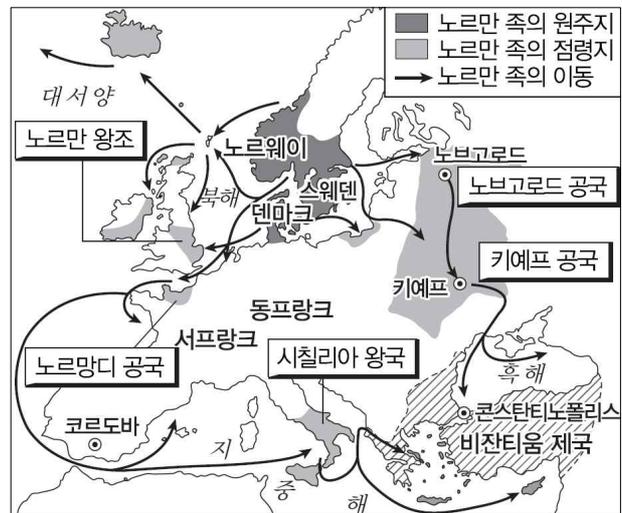
[노르만 족의 이동]

01. 원주지(原住地)

- 스칸디나비아 지방 등에 거주
- 9세기 말부터 유럽의 해안과 내륙으로 이동

02. 왕국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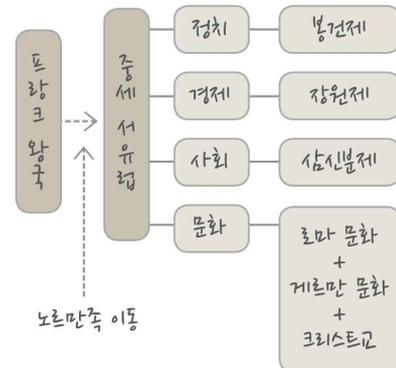
- 프랑스 침입
: **노르망디 공국**(Duché de Normandie, 911)
↳ 윌리엄 공(재위 1066 ~ 1087), 잉글랜드 정복 → **노르만 왕조 개창(1066 ~ 1154)**
- 지중해 진출
: 나폴리 왕국
: 시칠리아 왕국
- 러시아 진출
: **노브고로드 공국(862 ~ 1136 ~ 1478)**
: 키예프 공국(880 ~ 1283)
- 원주지
: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건국



〈노르만 족의 이동〉

03. 결과

- **서유럽 봉건 사회의 형성 촉진**



〈중세 서유럽 사회의 특징〉

서유럽 봉건 사회의 형성 - 봉건적 정치 제도

[봉건 사회의 형성]

01. 배경

- 프랑크 왕국의 분열로 중앙 집권적 정부의 부재
- **노르만족, 마자르족, 이슬람 세력 등의 유럽 침입** → 전사 계급(기사)의 성장과 예속 농민의 발생
- 새로운 사회 질서, 제도의 필요성 대두

02. 성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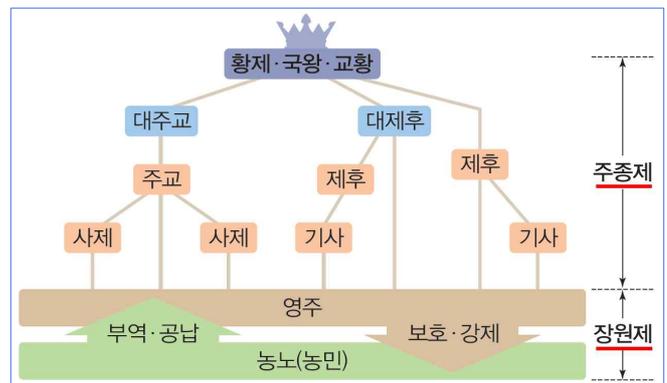
<기사 서임식>

- 9 ~ 11세기 형성
- **지방 분권적** 사회 질서
- 종사제(게르만) + 은대지제(로마)
- 유력자를 찾아 충성 맹세
: 외적의 침입, 기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받는 과정에서 형성
- 영주들은 대규모 **봉신(封臣, vassal)**들로 구성된 전투 집단 조직
: 기사도 집단으로 변화

03. 구조

1) 주종제(主從制, 정치)

- **주군 ~ 봉신(가신)의 쌍무 계약적 주종 관계**
: **주군**의 봉토(封土) 수여
: **봉신(가신)**의 충성 서약과 군사적 봉사
: 의무 불이행 시 파기 가능, 계약 관계 세습
- 영주(봉신·가신)의 **불입권(Immunity)**
: 영지(장원) 내의 재판권과 징세권 행사
: 지방 분권화 촉진



<봉건 사회의 구조>

2) 장원제(莊園制, 경제)

- 영주[성(城), **싸우는 자**] + 농노[오두막, **일하는 자**] + 성직자[교회당, **기도하는 자**]
- 영주 직영지·농민 보유지(삼포제로 경작), 공동 방목지(목초지), 삼림 등의 토지로 구성
- **개방 경지제도(Open Field System)**

3) 농노에 대한 경제 외적 강제(Non-economic compulsion)

- 농노(영주의 지배를 받는 예속 농민, serf)
: 영주의 직영지 경작(부역), 공납으로 현물 납부
: **군사 복무 無**
: 거주 이전의 자유 無, 결혼과 재산 소유 가능(결혼세·상속세)
: 영주의 시설물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비용 부담

▣ 삼포제(三圃制)

중세 서유럽은 토지가 비옥하지 못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춘경지, 추경지, 휴경지로 나누어 해마다 돌려 가며 토지를 경작하였는데, 이를 삼포제라 한다.



프랑크 왕국의 분열과 노르만 왕조의 개창(『금성·미래엔 교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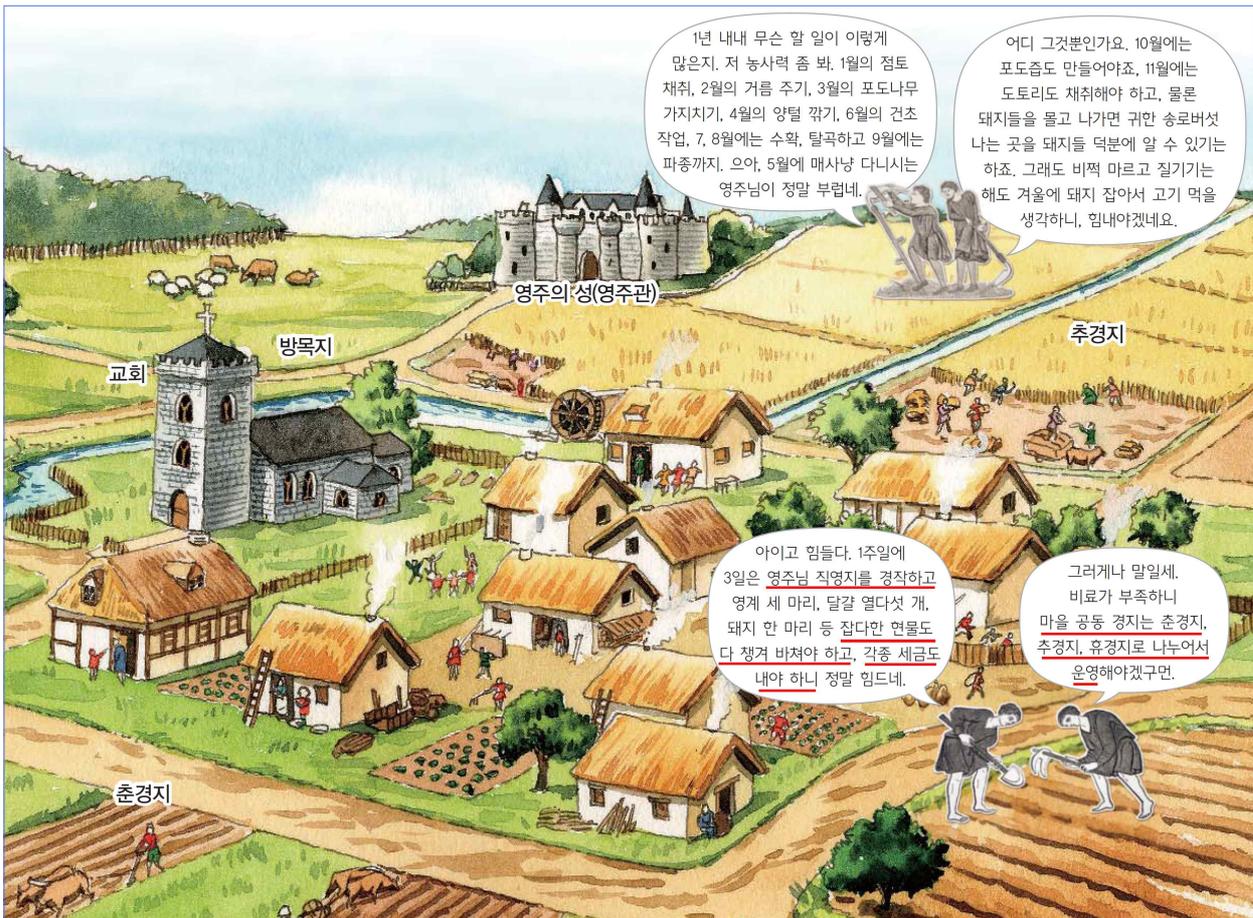
서프랑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리의 백작 위그 카페를 왕으로 선출하여 카페 왕조 시작(987 ~ 1328) 왕권이 미약하여 지방 분권화 경향 → 제후들의 세력 강대
동프랑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토 1세(재위 936 ~ 973) : 마자르 족(레히펠트 전투, 955)과 슬라브 족의 침입 저지, 이탈리아 내란 진압(교황 지원) : 로마 제국의 황제로 대관(962) → 신성 로마 제국의 기원(962 ~ 1806)
노르만 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헤이스팅스 전투에서 노르망디 공국의 윌리엄 공(기욤 2세)이 잉글랜드 정복 ↳ 왕조 개창(1066 ~ 1154) 강력한 왕권에 입각한 봉건제 수립, 솔즈베리 서약(모든 봉신의 주군 자임, 1086) 둠즈데이 북(Domesday Book, 토지 대장, 1086)

주종 제도 - 기사 복무에 대한 규정

왕의 귀족과 모든 봉신은 왕이 소집하는 경우 왕 앞에 출두해야 하며, 자신의 비용으로 40일 낮과 밤 동안 각자가 의무를 지고 있는 숫자의 기사들을 데리고 군역을 수행해야 한다. 왕은 원할 경우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이 군역들을 징발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왕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비용으로 40일을 더 복무하게 하고자 붙잡아 두기를 원하더라도 그들이 원하지 않으면 남아 있을 의미가 없다. 그러나 만약 왕이 왕의 비용을 들여 왕국을 방어하기 위해 그들을 머물게 하기를 원하면, 그들은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한다.

- 『서양 문명의 뿌리』

장원과 중세 농노들의 일상생활



개념 Check

- ① 중앙아시아 일대에 살던 유목민인 ()이 동부 유럽으로 이동해 오자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시작되었다.
- ② 카롤루스 마르텔루스는 피레네 산맥을 넘어온 이슬람 군대를 () 전투에서 격퇴하였다.
- ③ 교황의 지지 속에 ()은 카롤루스 왕조를 개창하였다.
- ④ 교황 레오 3세는 800년에 ()를 서로마 황제로 대관하였다.
- ⑤ 카롤루스는 궁정 학교를 세우고 고전을 간행하는 등 학문을 진흥시켰는데, 이를 ()라고 한다.
- ⑥ 서유럽의 주종제(主從制)는 주군과 봉신 중 어느 한쪽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깨질 수 있는 () 계약 관계였다.
- ⑦ 장원 내의 ()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는 신분으로서 영주의 허락 없이는 장원을 떠날 수 없었다.
- ⑧ 중세 서유럽은 토지가 척박하여 춘경지, 추경지, 휴경지로 나누어 해마다 돌려가며 토지를 경작하였는데, 이를 ()라 한다.

유형 CHECK!!

01

(가)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1-수능]

다마스쿠스의 궁정에서 축출된 일족이 코르도바를 수도로 삼아 이베리아반도 북동부로 세력을 확장하였다. 이에 위협을 느낀 도시들은 피레네산맥 너머 파더보른의 왕궁으로 사신들을 급파하였다. 이들은 왕국의 통치자 (가)에게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당신의 부친께서는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고 이탈리아에서 적들을 격파하였습니다. 부친의 공덕을 이은 왕국의 유일무이한 왕이시여,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 저 위협적인 군대를 격파한다면 신의 평화를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① 베르딩 조약을 체결하였다.
- ② 로마 가톨릭교로 개종하였다.
- ③ 메로베우스 왕조를 무너뜨렸다.
- ④ 투르·푸아티에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 ⑤ 궁정 학교를 세워 고전 연구를 후원하였다.

02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1-6월 모의평가]

세계사 신문 ○○○년

《특집 기획》

클로비스,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하다

(가)의 클로비스가 마침내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하였다. 클로비스는 개종을 통해 로마 주민과 긴밀히 협조할 수 있는 길을 닦은 셈이다. 앞으로 로마 문화와 게르만 문화의 융합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세례를 받는 클로비스

- ① 12표법을 제정하였다.
- ② 상수시 궁전을 건립하였다.
- ③ 사산 왕조 페르시아를 멸망시켰다.
- ④ 군사적 봉건제인 티마르제를 실시하였다.
- ⑤ 투르·푸아티에 전투에서 이슬람군을 물리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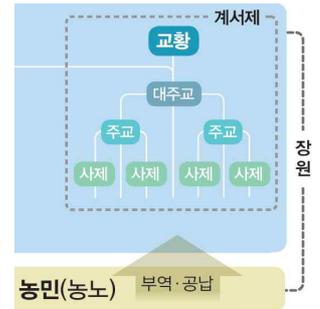
크리스트교 세계의 성립과 발전

[★중세 교회의 발전]

01. 로마 가톨릭교회의 성장

1) 배경

- 수도승들의 헌신적 봉사로 대중 확산
- 교회는 대토지 소유를 통한 세속적 권력 형성
- **성직 계서제도(봉건적 주종 관계 형성)**
: 교황 ⇨ 대주교 ⇨ 주교 ⇨ 교구 성직자(사제)



2) 과정

- 교구(敎區, Diocese) 형성
: 로마 말기 5대 교구(로마, 비잔티움, 안티오크,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 7세기 이슬람 세력의 확대로 인해 로마와 콘스탄티노폴리스 등 2대 교구로 축소
- 동·서 교회의 대립 격화
: **726년 성상 파괴령**
: **1054년 동·서 교회의 분열**
↳ 로마 가톨릭교회(로마 교황 중심)
↳ 그리스 정교회(비잔티움 제국 황제의 지배 → 정교일치)

▣ 성상 숭배 금지령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레오 3세(재위 717 ~ 741)가 내렸는데, 정통의 수호를 명분으로 하였지만, 서로마 교회에 대한 비잔티움 제국 황제의 지배권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3) 왕권과 제후

- 프랑크 왕국, 신성 로마 제국과 제휴하여 비잔티움 황제의 간섭에서 탈피
: **496(클로비스의 개종), 756(피핀의 교황령 기증), 800(카롤루스 대제 대관), 962(오토 대제 대관)**

02. 로마 가톨릭교회의 개혁 운동

1) 교회의 세속화

- 봉토와 기증받은 토지 등을 기반으로 세력 확대
- 세속 권력이 성직자 임명권 차지, 성직자 기강 붕괴, 성직자의 혼인, 성직 매매 등 부패와 타락

2) 수도원 운동(10세기)

- **클뤼니 수도원(L'Abbaye de Cluny, 910) 중심**
: 교황 직속, 세속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교회 정화 운동 전개**
: 청빈과 순명, 정결 등 베네딕트의 계율 준수 → 교황 배출(그레고리우스 7세, 우르바누스 2세)



<수도원 수사들의 필사 작업>

▣ 수도원(monasterium)의 생활

- 엄격한 계율 중시
- 학문 연구 권장, 학문과 교육의 중심지
- 고전 필사 작업으로 고전의 보존과 연구
- 기도와 노동의 공동생활로 농업·수공업 기술 향상
- 의료 시설과 사회 시설 운영

크리스트교 세계의 성립과 발전

[동·서 교회의 비교]

구분	서로마 교회	동로마 교회
종교	로마 가톨릭	그리스 정교회
공용어	라틴어	그리스어
문화권	게르만 족(서유럽) 전파 → 게르만 문화권	슬라브 족(동유럽) 전파 → 비잔티움 문화권
경제	장원제 발달, 자연 경제	상공업 발달, 동서 중계 무역으로 융성
정치	지방 분권적 봉건제, 정교분리	전제군주정, 정교일치(황제 교황주의)

[★교황과 황제의 대립]

01. 배경

- 11세기 교황 주도로 세속 권력으로부터의 탈피 시도
- **성직자 서임권(= 주교 서임권) 분쟁**(그레고리우스 7세 ↔ 하인리히 4세)



〈카노사의 굴욕〉

02. 카노사의 굴욕(Humiliation at Canossa)

-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의 교황령(세속 군주의 성직자 서임 금지, 성직자 금혼 등, 1075)

우리는 황제와 왕을 포함한 모든 평신도가 성직자에게 감독의 직책, 대수도원 또는 교회에 대한 서임을 줄 수 없음을 법령으로 선포하였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평신도로부터 서임을 받더라도 그 서임은 효력이 없는 것이며, 스스로 서임을 취소하기 전까지는 파문 상태에 처할 것이다. - 그레고리우스 7세, 『교황 훈령』

- **하인리히 4세(신성 로마 제국, 재위 1053 ~ 1105)**의 반발과 그레고리우스 7세의 황제 파문(1076)
- 황제가 이탈리아의 카노사 성(城)으로 교황을 찾아가서 사죄하여 파문 해제(1077)

03. 보름스 협약(Concordat of Worms, 1122)

- **교황 칼리스투스 2세(재위 1119 ~ 1124) ~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인리히 5세(재위 1105 ~ 1125)**
: **교속 서임권 투쟁의 일단락** → 신성 로마 제국 내의 주교는 교회법에 따라서 선출된다.

독일 왕국에서 주교와 수도원장의 서임은 그대(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입회하에 이루어질 것이다. ……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나, 하인리히는 모든 서임권을 성스러운 로마 가톨릭교회에 바친다.** 그리고 **짐의 왕국과 제국 내 모든 교회에서 교회법에 따른 주교와 수도원장의 선출과 성직 수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 동의한다.**
- 보름스 협약

04. 교황권의 전성기

- 교황 **인노첸티우스 3세**(재위 1198 ~ 1216, = 인노첸시오 3세)
: 교황권의 절정
: 프랑스 왕 굴복, **제4차 십자군 전쟁(1202 ~ 1204)** 단행
: **영국의 존 왕 파문(1209)과 폐위(1212)**
: ‘**교황은 해, 황제는 달**’ 에 비유(1198 ~ 1216)



〈인노첸티우스 3세〉

중세 서유럽의 문화

01. 특징

- 크리스트교 중심의 문화 발전으로 자연과학과 기술 퇴보
- 보편적 통일 문화로 인한 민족적 색채 약화
- 관습을 존중하여 권위와 전통이 지배하는 문화

02. 신학(神學)의 발달

- 모든 학문의 중심
- 철학은 신학의 보조 역할(철학은 신학의 시녀)
- 교부(敎父) 철학(patristic philosophy)
: 아우구스티누스(354 ~ 430), 『신국론(神國論, De Civitate Dei)』
- 스콜라 철학(Scholasticism)
: 십자군 전쟁 이후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영향
: 토마스 아퀴나스(1225 ~ 1274), 『신학대전』(신앙과 이성의 조화, 1267) ⇔ 윌리엄 오컴

크리스트교의 가르침은 인간의 이성을 허용한다. …… 이 가르침 안에 전해지는 진리를 명백히 밝히려고 이성이 이용된다. 신의 은총은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완성되기 때문에 자연히 이성은 신앙에 협력해야 한다. 이성은 신앙에 도움이 되고, 자연에 대한 사랑은 크리스트교의 사랑과 서로 통한다.

-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03. 교육

- 초기 교회·수도원 중심의 학문 발달
- 12세기 이후 대학 발전
: 라틴어 강의
: 교회나 세속적 권력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치적으로 운영
: 볼로냐 대학(학생 조합, 1158), 파리 대학(교수 조합, 1215)



〈피사 대성당〉

04. 교회와 수도원 건축

- 4 ~ 8세기경 바실리카 양식(비잔티움 양식 모방)
- 11세기 경 로마네스크 양식
: 두꺼운 벽·돔 + 원형의 아치
: 피사 대성당(1063 ~)
- 12세기 경 고딕 양식
: 높은 첨탑 + 스테인드글라스(stained glass)
: 천국을 향한 중세 유럽인들의 염원 표현
: 샤르트르 대성당(1145 ~), 노트르담 대성당(1163 ~), 윌튼 성당(1248)



〈샤르트르 대성당〉

05. 기사도 문학

- 봉건 기사들의 생활상, 기사도 반영, 무훈과 충성을 읊은 이야기와 낭만적 사랑을 노래한 서정시
: 『롤랑의 노래(룬세스바예스 전투)』, 『아서 왕 이야기』, 『니벨룽겐의 노래(게르만족의 전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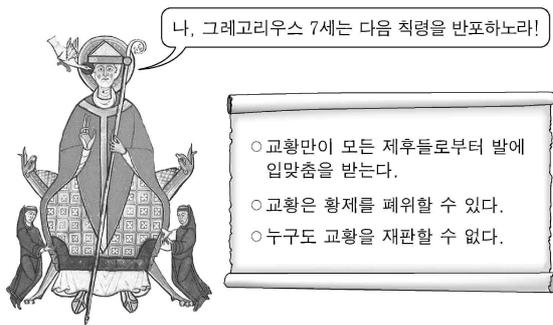
개념 Check

- ① ()년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레오 3세가 () 파괴령을 내리면서 동서 교회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 ②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인리히 4세는 이탈리아의 () 성(城)을 찾아가 교황에게 사죄하였다.
- ③ 교황과 황제의 서임권 투쟁은 1122년 () 협약을 통해 ()이 서임권을 차지하였다.
- ④ 1267년 ()는 스콜라 철학을 집대성한 『신학대전』을 집필하였다.
- ⑤ 12세기 이후 첨탑과 스테인드글라스를 특징으로 하는 () 양식이 등장하였다.

유형 CHECK!!

01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021-9월 모의평가]



- ① 계몽사상의 영향을 살펴본다.
- ② 30년 전쟁의 결과를 분석한다.
- ③ 성상 파괴령 반포의 배경을 이해한다.
- ④ 서임권 투쟁의 전개 과정을 조사한다.
- ⑤ 카롤루스 르네상스의 내용을 파악한다.

02

다음 칙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0-수능]

황제 레오 3세는 아래와 같이 칙령을 발표한다.

- 불멸의 신을 형상화하는 것은 신을 인간의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행위이다.
- 성화(聖畵)를 그리는 행위를 신성 모독으로 규정한다.
- 희생 제의(祭儀)를 포함한 모든 이교적 행위를 금지한다.

- ① 동서 교회의 대립을 격화시켰다.
- ② 교황의 아비뇽 유수를 초래하였다.
- ③ 보름스 협약을 체결하는 계기가 되었다.
- ④ 트리엔트 공의회가 개최되는 배경이 되었다.
- ⑤ 클뤼니 수도원의 교회 개혁 운동을 촉발하였다.

비잔티움 세계의 성립과 발전

[비잔티움 제국(동로마 제국)의 흥망]

01. 4세기

-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콘스탄티노폴리스 건설(324) → 천도(330)
- 동·서 로마의 분열(395)

02.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재위 527 ~ 565)

- 니카(Nika)의 반란(532) 진압 이후 행정 개혁과 경제 조치
-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편찬(529)
- 아야 소피아(Hagia Sophia, = 성 소피아) 성당 건축(537)
- 옛 로마 제국의 영토 회복[벨리사리우스의 반달 왕국(북아프리카, 435 ~ 534) 정복]

03. 7 ~ 13세기

- 로마 영토 지역으로 게르만족의 침입
- 7세기 사산 왕조 페르시아(226 ~ 651)의 압박으로 시리아, 이집트 상실
- 9세기 지방 유력자들의 대토지 소유 경향으로 둔전병제(屯田兵制) 붕괴
- 11세기 말 셀주크 튀르크(1037 ~ 1242)의 공격
: 알렉시우스 1세(재위 1081 ~ 1118) → 서유럽에 십자군 파병 요청
- 제4차 십자군 전쟁(1202 ~ 1204) 당시 콘스탄티노폴리스 함락 → 라틴 제국 건설(1204 ~ 1261)

04. 14 ~ 15세기

- 거듭된 외침으로 영토 감소, 지방 유력자들의 봉건 세력화로 황제권 약화
- 오스만 튀르크의 공격으로 콘스탄티노폴리스 함락(1453)



▣ 비잔티움 제국의 영역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에 북아프리카, 에스파냐 남부, 이탈리아 등 과거 지중해 연안의 옛 로마 제국을 재건할 정도로 기세를 떨쳤으나, 그 후 동(東)과 서(西)에서 여러 세력들이 진출하여 점점 쇠퇴하였다.

05. 비잔티움 제국의 역사적 의의

- 그리스도교 세계를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하면서도 서유럽 세계와 경쟁
- 르네상스에 영향
- 동유럽 슬라브 문화권 형성에 기여

비잔티움 세계의 성립과 발전

[★비잔티움 제국의 정치안 시화]

01. 황제 교황주의

- 오리엔트의 전제 군주정 도입
- 강력한 황제권을 바탕으로 황제가 교회를 지배(정교일치)

02. 군관구 제도와 둔전병 제도

- 헤라클리우스(재위 610 ~ 641), 이민족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군관구(軍管區) 설치
- 31개의 군관구, 황제가 임명한 사령관[스트라테고스(strategos)]의 군사·행정·사법권 행사
- 둔전병제(屯田兵制, colonial militia) 실시

▣ 둔전병제

군관구제에서 군역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그 대가로 토지를 주고, 아들이 계속 군역에 종사한다는 조건에서 토지를 상속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자영농을 육성하고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비잔티움 제국의 경제]

01.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

- 동서 교통의 중심지이자 상공업과 무역의 중심지로 번영

02. 상공업의 발달

- 산업 통제와 해군력으로 교역 보호
- 페르시아의 견직물 공업 전래, 금속·유리 제품 생산 발달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

01. 특징

- 그리스 정교를 바탕으로 그리스·로마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 융합
- 그리스어가 공용어, 그리스 고전의 연구·보전 → 르네상스 자극

02. 법률

-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로마법 대전) 편찬(529)



〈아야 소피아(Hagia Sophia)〉

03. 비잔티움 양식

- 외부의 웅장한 돌과 내부의 화려한 모자이크 벽화(아야 소피아 성당, 537)



04. 영향

- 슬라브족에게 전파되어 슬라브 문화권 형성
- 키릴 문자(Cyrillic alphabet, 키릴로스 형제)
- 그리스 정교 수용
- 동유럽의 문화 발전에 기여(키예프의 성 소피아 성당 등)



교황의 황제 폐위와 파문

내 권위와 온전함을 확신하니 이제 나는 전능한 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황제 하인리히(하인리히 3세)의 아들, 하인리히(하인리히 4세)가 독일과 이탈리아에 있는 그의 왕국을 상실하였음을 선언하노라. 나는 이것을 당신의 권위에 따라서 그리고 당신의 교회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하였노라. 그가 반역하였기 때문에 …… 그는 교회로부터 스스로를 잘라 내었으며 교회를 조각내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당신의 권위에 따라서 그를 저주 하에 놓노라.

- 올리버 조지프 대처 외, 『중세사 원전』

인노켄티우스 3세의 선언



〈교황에게 고개를 숙인 황제〉

창조주는 위대한 두 광체를 설치하였다. 더 위대한 광체(해)는 낮을 지배하고 약한 광체(달)는 밤을 지배한다. 마찬가지로 보편적 교회의 영역에도 창조주는 위대한 두 권위를 임명하였다. 더 위대한 것이 영혼을 지배하고 약한 것이 육체를 지배한다. 이 두 권위란 교황권과 황제권이다.

비잔티움 제국의 특징

- ① 황제는 군사적·정치적으로 최고 지배자였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황제는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의 수석 대주교를 임명하는 권한과 종교 교리상의 논쟁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 황제를 위해 공직에 봉사한다는 것은 성직에 임명되는 것이었으며, 공직에서 떠난다는 것은 성직을 포기하는 것이었다.
- ② 콘스탄티노폴리스에는 전 세계 상인들이 모여들었다. 아라비아 상인은 중국의 비단, 인도의 향신료, 페르시아의 양탄자를 가지고 들어왔으며, 러시아 상인은 흑해를 통해 가죽, 모피제품, 노예를 가지고 들어왔다. ……

슬라브 문화권

서슬라브 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폴란드 왕국 성립, 보헤미아 왕국 성립 • 가톨릭교회로 개종
남슬라브 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르비아 인(그리스 정교 수용) • 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 인(가톨릭교회로 개종)
동슬라브 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예프 공국 발전 <li style="padding-left: 20px;">: 그리스 정교 수용 <li style="padding-left: 20px;">: 키예프(우크라이나)의 성 소피아 성당 건축 <li style="padding-left: 20px;">: 주치 올루스(킵차크한국)의 지배 • 모스크바 대공국(1380 ~ 1584)의 성장 <li style="padding-left: 20px;">: 몽골로부터 독립, 비잔티움 제국의 계승 자처 <li style="padding-left: 20px;">: 이반 3세(재위 1462 ~ 1505) <li style="padding-left: 40px;">↳ 몽고·타타르 지배 종식, 차르(tsar, 어원 kaiser) 칭호 사용



개념 Check

- ① 비잔티움 제국에서는 황제가 교회의 수장을 겸하는 ()가 발달하였다.
- ② 비잔티움 제국은 6세기인 () 황제 때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 ③ 비잔티움 제국에서는 외침에 대비하기 위해 군관구제와 ()제를 실시하였다.
- ④ 비잔티움 양식의 건축으로는 콘스탄티노폴리스의 () 성당이 대표적이다.
- ⑤ 비잔티움 제국은 1453년 ()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였다.

유형 CHECK!!

01

(가)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1-9월 모의평가]



♥ 20개

여기는 키예프!
아름다운 성 소피아 성당 앞에서!

댓글 3개

○○: 이스탄불에서 같은 이름의 건축물을 본 적이 있어.

↳ □□: 그 건축물은 (가)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대성당으로 만들어졌는데, 웅장한 돔과 화려한 모자이크 벽화로 유명하지!

○○: 키예프랑 이스탄불의 역사가 궁금해지네.

- ① 티마르 제도를 시행하였다.
- ② 우즈베크인에 의해 멸망되었다.
- ③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하였다.
- ④ 우르두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였다.
- ⑤ 군관구제와 둔전병제를 실시하였다.

02

밑줄 친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황제는 재위 초기부터 법전 편찬 작업을 실시하였다. 로마법은 이미 한 세기 전인 테오도시우스 2세 시절 발표된 『테오도시우스 법전』이 있었지만 그는 한발 더 나아가 완전히 새로운 법전을 만들고 체계화시켰다. 이를 통해 529년에 법전을 편찬하였다. 이어 법률 저작들을 집대성해 기존 학설들을 종합한 『법학개요』를 편찬하고, 법학 교재 『법학통론』을 편찬하였다. 제국 안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최고 권위의 법률, 법과 관련된 학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헌, 그리고 법학 교육 교재를 확립시킨 것이다.

- ① 대헌장을 승인하였다.
- ② 셀주크 튀르크의 침입을 겪었다.
- ③ 군관구제와 둔전병제를 실시하였다.
- ④ 십자군 전쟁의 실패로 권위가 약화되었다.
- ⑤ 옛 로마 제국 영토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였다.

중세 유럽 세계의 성장과 변화

[11세기 서유럽 세계]

01. 종교적 상황

- 이베리아 반도에서의 크리스토포 재정복 운동(Reconquista, 718 ~ 1492) 전개

02. 사회·경제적 상황

- **삼포제의 확산**으로 농업 생산력 증대 ⇨ 인구 증가 ⇨ 개간·개척 사업, 엘베 강 동쪽으로 진출

[★십자군 전쟁(Crusades, 1096 ~ 1270)]

01. 표면적 원인

- 11세기 후반 **셀주크 튀르크의 압박**
: 비잔티움 제국 위협 → 황제 알렉시우스 1세(재위 1081 ~ 1118)의 구원 요청
: 시리아, **예루살렘 점령(1071)** → **성지 순례 박해**
- 교황 우르바누스 2세(재위 1088 ~ 1099)
: **클레르몽 공의회(1095)**에서 성지 회복 호소

☐ 교황 우르바누스 2세의 십자군 전쟁 촉구
 동쪽에 있는 형제들에게 급히 도움을 주어야만 합니다. …… 튀르크는 이미 여러분들 중 일부가 알듯이 그들을 공격하였습니다. …… 따라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경건한 기도로서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빈번하게 권유함으로써, 모든 계급의 사람들, 기사와 병사, 부자와 가난한 자로 하여금 여러분의 형제의 땅에서 비열한 종족을 급히 멸절하고, 적절하게 크리스토포인들을 도울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 『프랑스사 문헌 집성』

02. 세속적 원인

- 교황 → 가톨릭교회의 지배 영역 확대
- 왕·봉건 영주 → 새로운 영지 획득
- 상인 → 지중해 무역권의 장악

03. 전개 과정



- **제1차 십자군**(고드프루아, 1096 ~ 1099)
: 성지 탈환, **예루살렘 왕국 건설(1099)**
- **제2차 십자군**(중도 회군, 1147 ~ 1149)
- **제3차 십자군**(1189 ~ 1192)
: 아이유브 왕조의 예루살렘 장악
: 살라딘 ⇨ 리처드 1세
- **제4차 십자군**(필리프 2세, 1202 ~ 1204)
: 베네치아 상인의 개입
: 콘스탄티노폴리스 점령
: **라틴 제국 건설(1204)**

04. 십자군 전쟁 이후 중세 유럽 사회의 변화

- 교황권의 약화 ⇨ 왕권 강화, 제후·기사 계급의 몰락 ⇨ 장원 경제 체제의 동요
- 동방 교역 활성화 ⇨ 북부 이탈리아 도시의 번영(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배경)
- 이슬람 문화, 비잔티움 문화 ⇨ 북서부 유럽 유입

중세 유럽 세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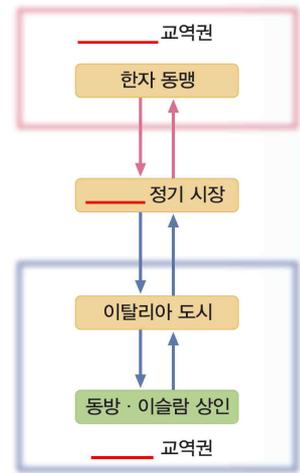
[상업과 도시 발달]

01. 상업 발달

- 봉건제 정착, 사회 안정으로 농업 생산력 증대 → 잉여 농산물 증가
- 자급자족적 장원 경제 탈피
 - ↳ 영주의 성과, 교통의 요지 등에 시장 출현

02. 도시의 성장

- 십자군 전쟁(1196 ~ 1270) 과정에서 원거리 교역과 동방 무역 발달
 - : 베네치아·제노바(동방 무역으로 번영), 피렌체·밀라노(금융업과 직물업으로 번창)
- 북부 유럽의 함부르크(Hamburg), 뤼베크(Lubeck) 등 도시 성장
 - : **한자(Hansa, 조합·동료) 동맹(1241)** → 도시 동맹, 해군력 보유, 발트 해·북해 연안의 무역 독점
- 플랑드르(Flandre) 지방의 교역 발달, **상파뉴 정기 시장**(북유럽 교역권과 지중해 교역권 연결)



03. 중세 도시의 성격

1) 초기 도시

- 봉건 영주의 간섭
 - : 도시민에 대한 행정과 사법권
 - : 특정 물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 행사

2) 자치 도시의 성장

- **도시 시민**들이 국왕과 제휴하여 영주에 대항
- 재력 또는 무력으로 **특허장을 획득하여 자치권 행사**
 - : 도시법 제정, 시의회 구성, 재판·징세·예산권 행사
- **자유 시민(Bourgeois)의 성장**(도시의 공기는 자유를 준다.)

▣ 아브빌 시 특허장(1370)

짐은 아브빌 시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일정한 특권을 승인했노라. 짐의 도시 아브빌이나 폰티 외 지방의 다른 도시들에서 그 도시들에게 이익이 되거나 그 도시들이 요청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과금이나 부조금 등 어떤 종류의 특별세도 시행하거나 강요하거나 물리거나 부과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시행되거나 강요되거나 물리거나 부과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중세 유럽 세계의 변화

[길드(guild)의 조직과 특징]

01. 성립

- 상인, 수공업자들의 경제 활동 공동체(동업 조합)
 - : 공동의 이익과 안전 도모
 - : 노동 시간, 생산 기술, 상품 가격 등을 규정
- 상인 길드
 - : 독점적인 상업 활동, 도시 행정 운영 장악
- 수공업자 길드
 - : 상인 길드에 대항해 결성, 도시 행정 참여
 - : 장인(master), 직인(journeyman), 도제(apprentice)로 구성

▣ 직인과 도제(견습공)

도제는 임금 없이 일정 기간 장인을 보조하며 기술을 배우는 수습생이었다. 도제를 마친 직인은 정식으로 임금을 받고 생산에 종사하였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 길드가 정한 규격에 맞는 작품(Masterpiece)을 제출하여 심사를 통과하면 길드의 일원이 되어 자신의 작업장을 차릴 수 있었다.

02. 특징

- 생산과 교역의 통제(폐쇄성) → 자유로운 상공업 발달 억제

[서유럽 장원제(莊園制, Manorialism)와 농노제의 해체]

01. 농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 화폐 경제의 발달
 - : 영주가 농노에게 부역 대신 현물이나 화폐 지대 요구
- 곡물 가격 상승, 화폐 가치 하락
 - : 농노의 경제적 지위 상승

▣ 화폐 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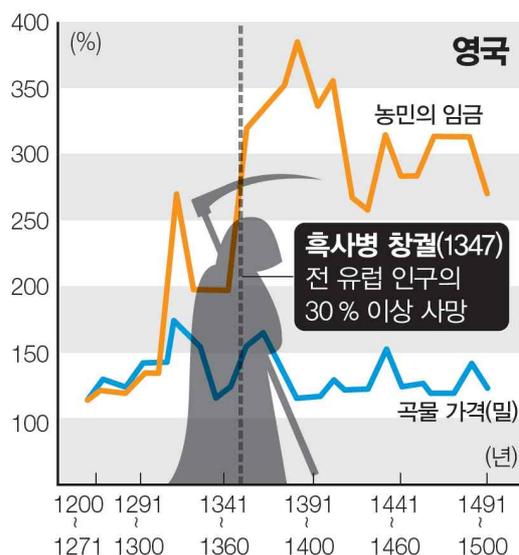
중세에는 농노가 영주의 직영지에 가서 농사를 짓는 노동 지대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영주들이 지대를 화폐로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이를 지대의 금납화라고도 한다.

02. 농민의 처우 개선

- 흑사병(검은 죽음의 병, Black Death)의 유행
 - : 유럽 인구의 1/3 감소
- 흑사병의 경제학(그레고리 맨큐)
 - : 노동력 감소로 농민의 임금 상승, 지대 하락

03. 농민 반란

- 봉건 영주들의 농민에 대한 속박 강화
 - : 직영지 확대
 - : 화폐 지대를 부역 지대로 전환
- 자크리[자크(Jacque)의 집합명사]의 난(프랑스, 1358)
 - : 자크 = 농민들이 입는 누비 중백의
- 와트 타일러의 난(영국, 1381)
 - : 인두세 부과에 항의, 농노제 폐지 주장, 성직자 존 볼(John Ball)의 후원



〈곡물 가격과 임금 변화〉



■ 길드(guild)

- ① 중세 유럽에서 장인이 되려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견습비를 내고 스승의 집에 기거하면서 기술을 습득하였다. 3년에서 12년이 걸리는 **견습 기간**이 끝나면 **직인**으로서 장인의 곁을 떠날 수 있으며 임금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직인이 **장인**으로 독립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가게와 원료를 구할 수 있는 자본이 필요하였고 견습공을 돌봐 줄 아내를 얻어야 했으며, 무엇보다도 작품(Masterpiece)을 제출하여 시험에 통과해야만 했다. 이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자격을 습득한 장인은 길드에 가입하여 영업을 독점할 수 있었다.
- ② “본 회원은 아침 해 뜰 녘부터 저녁에 교회의 만종이 울릴 때까지 일하며, 그 이상을 일해서는 안 된다. …… **즉, 회원은 밤에 일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회원에게는 벌금을 물릴 것이다.** 1차 위반 시에는 40펜스, 2차 위반 시에는 …… **시민이 아닌 자는 박차 작업장을 열어서는 안 된다.** 회원은 누구든지 도제(견습공)를 7년 이상 고용해야한다. …… 어느 누구도 계약 기간 중에 있는 다른 사람의 직인을 도제로 삼아서는 안 된다.”

- 런던 박차(승마용 구두에 부착하는 쇠)공 길드의 규약

■ 흑사병으로 인한 유럽 세계의 변화



(14세기 중엽) 그 무렵 (잉글랜드) 왕은 포고문을 내려, 전국 어디에서나 곡식 거두기를 비롯한 모든 샅을 일꾼들이 보통 때 받던 샅보다 더 많이 받아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기면 법령에 따라 벌을 내릴 것이라고 선포하였다. 그러나 일꾼들의 콧대가 높아지고 고집이 세어져서 일꾼들이 국왕의 명령도 아랑곳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쓰려는 사람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품삯을 주어야 했다.

- 존 캐리, 『역사의 원전』

<흑사병은 남녀노소, 신분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묘사>

■ 왓트 타일러의 난(1381)

- 모든 사람은 부역과 속박에서 해방되어야 하며, **앞으로 한사람의 농노도 있어서는 안 된다.**
- 잉글랜드 왕국 내 모든 주·시·정기시장 등에서 매매의 자유를 부여해야한다.
- 농노 보유지, 영주 직영지는 1에이커 당 4펜스의 지대를 내고 경작할 수 있다. 또 전부터 **그 이하의 지대로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는 앞으로 그 액수를 올려서는 안 된다.**

- ① 14세기에 영국의 영주들이 화폐 지대를 취소하고 부역(賦役)을 부활시키려고 하자, 농민들은 **왓트 타일러(? ~ 1381)**를 지도자로 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당시 농민군의 정신적 지도자였던 **성직자 존 볼(? ~ 1381)**은 영주, 농노라는 신분 차별은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여 **농노제의 폐지를 요구**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라 반란에 가담한 농민들이 더욱 많아져 그 수가 거의 10만 명에 이를 정도였다.
- ② 반란의 직접 원인은 **백년 전쟁(↔ 프랑스, 1337 ~ 1453)의 전쟁 비용 조달을 위하여** 정부가 15세 이상의 전 주민에게 **부과한 인두세에 대한 불만**이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중세 봉건 지배 그 자체에 대한 농민의 불만이 원인이었다. 14세기 흑사병으로 농촌에서는 심각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영주들은 지난 몇 세기 동안 크게 진전되어 온 농노 해방 과정을 중지시키고, 차지인들에게 옛날의 무거운 노동 부역을 다시 부과하려 하였다. 자유 임금 노동자는 노동력 부족을 틈타 임금 상승을 요구하였고, 정부는 이에 탄압적으로 대응하여 임금을 예전 수준으로 동결시키려 하였다. 그러한 조치는 격렬한 반발을 일으켰다.

개념 Check

- ① 교황 우르바누스 2세는 1095년 () 공의회에서 성지 회복을 위한 전쟁을 호소하였다.
- ② 제1차 십자군은 성지를 회복하고 1099년 () 왕국을 건설하였다.
- ③ ()이 유행하면서 인구가 줄어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영주들은 농민의 처우를 개선하였다.
- ④ 봉건 영주들의 농민에 대한 속박 강화에 대응하여 ()년 자크리의 난, ()년 와트 타일러의 난이 일어났다.
- ⑤ 중세 도시의 상공업자들은 재력 또는 무력으로 특허장을 획득하여 ()을 행사하였다.

유형 CHECK!!

01

다음 사건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2-9월 모의평가]

콘스탄티노폴리스, 안티오크를 거쳐 예루살렘에 도착한 크리스티교도들은 그곳을 40여 일간 포위하였다. 그들은 성 주변에 두 개의 공성탑을 세웠다. 우리 무슬림들이 그중 하나를 불태우고 그 위에 있던 크리스티교도들을 죽이며 맞섰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다른 방향으로부터 함락되었음을 알리는 전령이 도착하였다. 크리스티교도들은 금요일 아침에 예루살렘의 북쪽 방향에서 도시를 점령하였던 것이다.

- 이븐 알 아시르, 『역사원본』

- ① 십자군이 라틴 제국을 건설하였다.
- ② 펠리페 2세가 레판토 해전에서 승리하였다.
- ③ 훌라구의 몽골군이 이슬람 세계를 침공하였다.
- ④ 신성 로마 제국의 하인리히 4세가 파문당했다.
- ⑤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클레르몽 공의회를 개최하였다.

02

밑줄 친 ‘동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0-수능]

뤼베크는 절친한 벗 함부르크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동맹을 체결한다.

- 강이나 바다에서 해적의 습격을 당했을 때 그들을 격퇴하기 위해 공조한다.
- 범죄자에 대한 체포권과 처벌권을 공유한다.
- 가맹 도시의 시민에게 상업 활동을 공정하게 하지 않은 자는 해당 가맹 도시로 압송하여 처벌한다.

- ①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였다.
- ② 발트해와 북해 무역을 주도하였다.
- ③ 정크션을 이용하여 아라비아와 통상하였다.
- ④ 고아, 플라카 등에 무역 거점을 마련하였다.
- ⑤ 바타비아(자카르타)를 중심으로 아시아와 교역하였다.

중세 유럽 세계의 변화 - 크리스티교의 변화

[★교황권의 쇠퇴]

01. 배경

- 십자군 전쟁의 실패로 종교적 열기 약화
- 교회 내부의 부패, 봉건 질서의 동요로 왕권 신장

02. 아비뇽 유수(론 강가, 1309 ~ 1377)

- 교회와 성직자에 대한 과세 문제
 - :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 ⇔ 프랑스 왕 필리프 4세
- 필리프 4세(카페 왕조, ㉠ 재위 1285 ~ 1314)
 - : 삼부회(삼신분회) 소집(1302) → 성직자에 대한 과세 승인
 - : 아나니 사건(1303. 9월)
- 교황 클레멘스 5세(㉡ 재위 1305 ~ 1314)
 - : 교황청이 아비뇽으로 옮겨짐 → 프랑스 왕이 교황청 통제



〈끌려가는 교황 클레멘스 5세〉

03. 교회의 대분열(Schisma, 1378 ~ 1417)

- 교황청이 로마로 귀환
 - : 로마(우르바노 6세), 아비뇽(클레멘스 7세)에서 각각 교황이 선출되어 정통성을 두고 대립
- 피사 공의회 개최(1409)
 - : 새로운 교황(알렉산드르 5세) 선출 → 3명의 교황이 동시 재위

04. 교회에 대한 비판과 개혁의 움직임

- 영국의 위클리프(1320 ~ 1384)
 - : 교회의 세속화, 성직자의 타락 비판
 - : 『성서』에 기반을 둔 신앙 강조
 - ↳ ‘『성서』에 교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없다!’
 - : 인간과 신(神)의 직접적 관계 강조
- 보헤미아의 후스(1372 ~ 1415)
 - : 성직 매매 등 교회의 세속화 공격
 - : 성서 지상주의와 예정설(→ 칼뱅 계승)
 - ↳ 종교 개혁의 선구적 역할
 - : 보헤미아의 독립 운동, 농민 운동에 영향



〈화형 당하는 후스〉

05. 콘스탄츠 공의회(1414 ~ 1418)

-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지기스문트(재위 1411 ~ 1437) 제안으로 교황 요한 23세가 소집
- 교회의 대분열 수습
 - :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후스 화형 → 교회의 개혁 움직임 저지
 - : 새로운 단일 교황(마르티노 5세) 선출 → 로마 교황의 정통성 인정



▣ 크리스티교 세계의 변화

시기	구분	내용
4세기	포교	①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크리스티교 공인 ②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아타나시우스파 승인 ③ 392년,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크리스티교 국교 지정
5 ~ 10세기	왕권과 제휴	① 496년, 클로비스의 개종(아리우스파 → 아타나시우스파) ② 726년, 비잔티움의 황제 레오 3세의 성상 숭배 금지령 ③ 756년, 피핀의 라벤나 지방 기증 → 교황령의 시초 ④ 800년, 카롤루스 대제의 서로마 황제 대관(戴冠) ⑤ 962년, 오토 대제의 신성 로마 제국 황제 대관
11세기	분열 · 왕권과의 대립	① 1054년, 동서 교회의 분열 ② 1075년, 그레고리우스 7세의 교황령 ③ 1077년, 카노사의 굴욕 : 주교 서임권 문제, 그레고리우스 7세 ⇄ 하인리히 4세
11 ~ 13세기	교황권의 확대	① 1095년, 교황 우르바누스 2세의 클레르몽 공의회 소집 ② 1096년, 십자군 전쟁 시작(~ 1270년) ③ 1122년, 보름스 화약으로 교속 서임권 투쟁 일단락 ④ 1198년,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 재위 1198 ~ 1216) : 교황권의 전성기(교황은 태양, 황제는 달) : 제4차 십자군 전쟁(1202 ~ 1204) : 존 왕 파면(1209)
14 ~ 16세기	교황권의 쇠퇴	① <u>아비뇽 유수(1309 ~ 1377)</u> : 프랑스 왕이 교황청 통제 ② <u>교회의 대분열(Schisma, 1378 ~ 1417)</u> : 교황청이 아비뇽에서 로마로 귀환 : 로마, 아비뇽에서 각각 선출된 교황의 대립 ③ 후스(1370 ~ 1415), 종교 개혁의 선구 ④ <u>콘스탄츠공의회(1414 ~ 1418)</u> : 교회 대분열 수습 → 로마 교황의 정통성 인정 : 위클리프 이단 규정, 후스 처형 ⑤ <u>루터의 종교 개혁(95개조 반박문, 1517)</u>

▣ 콘스탄츠 공의회의 선언

첫째, 이 모임은 성령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공의회를 구성하며 가톨릭교회를 대표한다.** 따라서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그 권위를 받으며, 교황 자신을 포함하여 어떤 계급과 조건에 속한 어떤 사람이라도 신앙, **대분열의 종식**, 신의 교회를 머리에서 팔다리나 몸까지 개혁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에서 공의회에 복종해야만 한다.

▣ 위클리프, 『교황에 대한 저항』

현재 교황은 예수의 바른길을 밟지 않고 사탄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예수께서 교황청이나 추기경 회의를 설립하셨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다. 예수께서는 반드시 교황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이를테면 백 명의 교황이 있고 모든 수도사가 추기경이 된다고 해도 **신앙에서 성서와 일치할 때만 찬성해야 한다.**

중세 유럽 세계의 변화 - 중앙 집권 국가의 등장

[왕권의 강화]

01. 배경

- 교황권의 쇠퇴
- 봉건 영주의 세력 약화
- 도시 상공업자들의 성장과 협조
- : 국가 재정 지원, 국왕의 관리로 봉사, 신분제 의회 참여

02. 내용

- 사법권과 과세권 확대
- 상비군과 관료 양성 → 필요 재원은 도시 상공업자들의 세금으로 충당

[유럽 각국의 변화]

01. 영국(왕권 강화와 의회 정치 발전)

■ 노르만 왕조(1066 ~ 1153)

■ 플랜태저넷 왕조(1154 ~ 1399)

- 앙주 백작 헨리 2세 개창 → 리처드 1세(재위 1189 ~ 1199)의 왕위 계승
- 존 왕(재위 1199 ~ 1216)
- : 프랑스와 전쟁 ⇨ 재정 악화 ⇨ 과중한 세금 부과 ⇨ 귀족의 반발
- : 대헌장(Magna Carta, 1215) 승인

■ 대헌장

국왕의 권리는 제한하고, 귀족의 권리는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피지배자의 생명과 재산을 옹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입헌 정치의 기초가 되었다고 평가받는다.

제1조 잉글랜드 교회는 자유로우며, 그 권리를 완전히 보유하고, 그 자유를 침범당하는 일이 없음을 ……

집과 집의 후계자들을 위해 영구적으로 확인하는 바이다.

제12조 군역 면제금과 보조금은 집의 왕국 전체의 자문에 의하지 않고는 …… 집의 왕국에서 부과되지 않는다.

제39조 모든 자유인은 자신과 같은 신분의 사람에 의한 합법적 재판이나 국법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다. 부동산을 빼앗기지 않고 법의 보호를 박탈·추방되는 등 어떤 식으로도 해를 입지 않는다.

- 헨리 3세(재위 1216 ~ 1272)
- : 존 왕의 아들, 대헌장의 원리 무시
- : 시몽 드 몽포르의 반발 → 귀족과 성직자 및 시민의 대표 소집, 시몽 드 몽포르 의회(1265)
- 에드워드 1세(재위 1272 ~ 1307)
- : 모범 의회 소집(1295) → 신분제 의회의 기틀 마련
- 에드워드 3세(재위 1327 ~ 1377)
- : 카페(Capetian) 왕조 혈통[에드워드 2세(父) ~ 프랑스의 이자벨라(母)]
- : 프랑스 왕위 계승에 대한 부당성 주장 → 백년 전쟁(1337 ~ 1453) 유발
- : 양원제 의회 제도의 기틀 마련(1341)
- ↳ 귀족원(성직자·귀족)과 서민원(기사·시민 대표)

중세 유럽 세계의 변화 - 중앙 집권 국가의 등장

[유럽 각국의 변화]

02. 프랑스

- 카페 왕조(전형적인 봉건 정치 체제, 987 ~ 1328)
 - 루이 6세(재위 1108 ~ 1137)
 - : 파리 귀족과의 교전을 통해 왕권 신장
 - **필리프 2세**(존엄 왕, 재위 1180 ~ 1223)
 - : 영국의 존 왕과 싸워 승리 → 프랑스 안 영국령의 대부분 획득
 - : **제4차 십자군 전쟁 주도**
 - **필리프 4세**(단려 왕, 재위 1285 ~ 1314)
 - : 교황과 맞서 **삼부회 소집(1302)**, **아비뇽 유수**와 교황 통제

03. ★백년 전쟁(영국 ⇄ 프랑스 발투아 왕가, 1337 ~ 1453)

- 플랑드르 지방의 확보, 프랑스 내 영국령의 지배권을 둘러싼 대립, 1328년 샤를 4세의 죽음 이후 영국 왕 에드워드 3세(재위 1327 ~ 1377)의 프랑스 왕위 계승 주장
- 크레시 전투(영국 勝, 1346) ⇨ **잔 다르크의 활약(오를레앙 전투, 1429)**으로 프랑스 승리
- : 프랑스 → 통일된 영토 확보,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발판 마련



〈튜더 왕조의 탄생〉

04. 장미 전쟁(1455 ~ 1485)

- 영국 내의 왕위 계승 문제[랭커스터 왕가(흑장미) ⇄ 요크 왕가(백장미)]
- : 랭커스터 왕가의 헨리 튜더가 요크 왕가의 리처드 3세 격파하며 승리
- **튜더 왕조 개창(1485 ~ 1603)**
- : 헨리 튜더(랭커스터 왕가)와 엘리자베스(요크 왕가)의 혼인
- : 헨리 7세(재위 1485 ~ 1509) → 귀족 세력의 몰락 이용, 절대주의의 기초 마련

05. 독일 지역(분열 상태 지속)

- 신성 로마 제국(962 ~ 1806) 황제의 명목상 통치
- **봉건 제후의 강력한 세력 유지**
- : 대공위 시대(1256 ~ 1273) → 명목상의 국왕만 있을 뿐 실질적인 지배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
- : 황금문서(1356) → 7선제후(7명의 유력한 제후, Domini Terrae)의 황제 선출 권한 인정



■ 황금문서(Goldene Bulle)

-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는 7명의 선제후가 선거로 뽑는다.
- 선거에 참여하는 선제후들은 재판권, 광산 채굴, 화폐 주조, 관세 징수 등의 특권을 가진다.
- 제후의 영지는 맏아들에게 일괄상속하고, 영지에 대한 제후의 지배권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4세(재위 1347 ~ 1378)가 발표한 제국법이다. 황금으로 만든 도장을 사용하여 **금인칙서(金印勅書)**라고도 한다. 7선제후가 황제 선거권을 독점하여 제국의 실권이 지방 세력의 수중에 넘어가 독일 지역의 분열을 촉진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중앙집권과 왕권 강화에 역행**)

중세 유럽 세계의 변화 - 중앙 집권 국가의 등장

[유럽 각국의 변화]

06. 이탈리아 반도

- 신성 로마 제국의 간섭 아래 **교황령**, 베네치아·피렌체 등 **도시 국가**, **나폴리 왕국** 등으로 분열
- 신성 로마 제국 황제와 로마 교황의 대립으로 통일 국가 형성 지연

07. 이베리아 반도

■ 12세기 아라곤, 카스티야 등 강력한 크리스티교 국가 건설

■ **에스파냐 왕국**

- 페르난도(아라곤)와 이사벨(카스티야)의 결혼(세기의 결혼식, 1469)
- **이슬람 최후의 거점인 그라나다 정복**(레콘키스타 완결, **1492**)으로 통일 국가 완성

■ 포르투갈

- **카스티야로부터 독립**(1143)
- 16세기 대항해 시대의 주역
- : **해외 진출 확대와 인도 항로 개척(1498)**



〈프랑스와 에스파냐의 영토 변화〉

▶ 러시아

■ 9 ~ 13세기 키예프 공국(日 公國)

- 동슬라브족 지배
- 키릴 문자 사용
- 그리스 정교 수용(**키예프의 성 소피아 성당** 건설)

■ 13세기 주치 울루스(킵차크한국)의 지배

■ 모스크바 대공국(Moskovskoye Velikoye Knazhestvo)



〈성 바실리 성당〉

- 이반 3세(재위 1462 ~ 1505)
 - : 몽골 축출(1480)
 - : 비잔티움 황제의 계승자 자처(→ 쌍두 독수리 문양)
 - : 모스크바(그리스 정교의 중심지, 제3의 로마)
- 이반 4세(= 번개 왕, 재위 1533 ~ 1547 · 1547 ~ 1584)
 - : 차르(tsar) 칭호 사용(1547)
 - : 귀족 숙청으로 전제 정치의 기틀 마련
 - : 성 바실리 성당 축조(1561)
 - ↳ 비잔티움 양식, 몽골족 격퇴 기념

▶ 폴란드

- 왕국 재건(1320)
- 리투아니아 대공국과 혼인 → 야기에우워 왕조 수립(1385 ~ 1569)

개념 Check

- ① 프랑스 왕 필리프 4세와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가 성직자 과세 문제로 대립하였으며, 이후 () 유수가 일어났다.
- ② () 공의회는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를 화형에 처하였으며, 새로운 단일 교황을 선출하였다.
- ③ 발루아 왕가의 왕위 계승 문제, 플랑드르 지방과 프랑스 안의 영국령에 대한 지배권 문제 등으로 () 전쟁이 일어났다.

유형 CHECK!!

01

(가), (나)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2-수능]

샤를 4세의 사망 이후 왕위 계승이 불분명해진 상황 속에서 (가)의 에드워드 3세는 (나)의 왕위 계승권을 주장하였다. 자신의 모친이 샤를 4세의 누이라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여성은 왕위 계승권이 없으며, 따라서 그녀의 아들 역시 왕위 계승권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결정에 따라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양국 사이의 관계는 악화되었고 결국 전쟁이 발발하였다. 초기에는 (가)이(가) 우세하였으나 잔 다르크 등의 활약으로 (나)이(가)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다.

- ① 메르센 조약을 통해 영토를 분할하였다.
- ② 미국의 중재로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하였다.
- ③ 플랑드르에 대한 지배권을 둘러싸고 대립하였다.
- ④ 방공 협정을 체결하여 추축국 동맹을 결성하였다.
- ⑤ 지중해 해상권을 두고 레판토 해전에서 격돌하였다.

02

밑줄 친 ㉠ 시기에 발생한 사실로 옳은 것은? [2021-수능]

그레고리우스 교황 성하
 지난밤 꿈에서 신께 받은 계시를 아뢰옵나이다. 바라건대 세속의 욕망을 내려놓으시고 신의 뜻을 실현하는 데 헌신하십시오. 이를 위해 먼저 론 강가의 기괴한 성채를 떠나 하루바삐 로마로 돌아가 시어 어린 양들을 보살피 주십시오. 또한 크리스티 교도 사이의 분쟁에 동원된 용병들을 이슬람 세력에 맞서는 데 이용하시어 교황의 위엄을 만방에 보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보니파키우스 8세가 능멸당한 이래로 지난 70여 년 동안 ㉠오욕으로 점철된 세월을 정결하게 씻어 내어 주십시오.
 - 시에나의 카타리나

- ①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위클리프와 후스가 이단으로 규정되었다.
- ② 신성 로마 제국의 하인리히 4세가 서임권 문제로 과문당하였다.
- ③ 황제와 교황 사이에 타협이 이루어져 보름스 협약이 체결되었다.
- ④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하고 라틴 제국을 수립하였다.
- ⑤ 플랑드르, 프랑스내 영국령 등의 지배를 둘러싼 전쟁이 벌어졌다.



시대	시대 특징	
	정치·경제	사회·문화
프랑크 왕국	01. 훈족의 압박 → 4C말 게르만족의 대이동 02. 서로마 멸망(476) 03. 프랑크 왕국의 성립과 발전 ① 클로비스 : 왕조 개창(481), <u>가톨릭 개종(496)</u> ② <u>카롤루스 마르텔</u> : <u>투르·푸아티에 전투(732)</u> ③ <u>피핀</u> : <u>카롤루스 왕조 개창(751), 라벤나 기증</u> ④ <u>카롤루스 대제</u> : 서로마 황제 대관(800) 03. 프랑크 왕국의 분열 ① <u>베르딩 조약(843), 메이르선 조약(870)</u> ② 동프랑크(오토 1세), <u>신성로마제국 대관(962)</u>	01. 원시 게르만 사회 : 카이사르 『갈리아전기』 : 토지 공유 → 공동 경작 : 종사(從士) 제도 02. <u>카롤루스 르네상스</u> ① 라틴 문화 진흥 ② <u>궁정 학교 설립</u> ③ 학자 우대 정책(엘킨) 03. 서유럽 중세 문화의 기틀 마련 : 로마 문화 + 게르만 문화 + 크리스티교
봉건 사회	01. 형성 : 프랑크 왕국 분열, 9C말 노르만 족의 이동 02. 구조 : <u>주종 관계(쌍무적 계약), 계서제, 장원제</u> 03. 크리스티교 세계의 발전 ① 프랑크 왕국 때 왕권과 밀착 → 세속화 ② <u>수도원 운동</u> (10세기 클뤼니 수도원 중심) ③ <u>성상 파괴령(726)</u> → 동서 교회 분(1054) ④ <u>카노사의 굴욕(1077)</u> : 주교 서임권 분쟁 ⑤ <u>보름스 협약(1122)</u> : 서임권 분쟁 일단락	01. <u>크리스티교 중심의 문화</u> ① 봉건적·귀족적 성격, 보편적 통일 문화 ② 교부 철학(아우구스티누스, 『신국론』) ③ <u>스콜라 철학</u> (신앙과 이성의 조화) :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1267) 02. 대학의 발달(학생·교수 조합, 자치 운영) 03. 건축 ① <u>11C 로마네스크 양식</u> (원형의 아치) ② <u>12C 고딕 양식</u> (첨탑, 스테인드글라스) 04. 기사도 문학(『롤랑의 노래』)
비잔틴 제국	① 6C <u>유스티니아누스 대제</u> 때 전성기 ② <u>군관주제·둔전병제(7C)</u> ③ 동서 무역 번성(<u>콘스탄티노폴리스 중심</u>) ④ 셀주크 튀르크의 위협 → 십자군 전쟁의 배경 ⑤ <u>오스만 튀르크에 멸망(1453)</u>	01. 그리스 어(공용어) 02. 『 <u>로마법 대전</u> 』(=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529) 03. <u>아야 소피아(Aya Sophia) 성당</u> (537) 04. 그리스 정교(황제 교황주의, 정교일치) 05. 르네상스 자극, <u>슬라브 문화권 형성</u>
봉건 사회의 변화	01. <u>십자군 전쟁(1096 ~ 1270)</u> ① 종교적(셀주크 튀르크의 성지 순례 박해), 세속적(서유럽의 팽창) ② <u>제1차</u> (성지 탈환, <u>예루살렘 왕국</u> , 1099), <u>제4차</u> (변질, 콘스탄티노폴리스 정복, <u>라틴 제국</u> , 1204) 02. 상업과 도시 발달, 길드 성립, <u>한자 동맹(1241)</u> , <u>북유럽·내륙(상파뉴)·지중해 교역권 형성</u> 03. 화폐 경제 발달, <u>지대 변화(부역 → 화폐)</u> , <u>14C 중엽 이후 흑사병 유행</u> 과 인구 감소 : 흑사병의 경제학, 농민 처우 개선, <u>자크리(1358)의 난과 와트 타일러의 난(1381) 등 농민 반란</u> 04. <u>교황권의 쇠퇴</u> ① <u>아비뇽 유수</u> (필리프 4세 ⇄ 보니파키우스 8세, 성직자 과세 문제, <u>1309 ~ 1377</u>) ② <u>교회의 대분열</u> (두 명 이상의 교황이 서로 정통성을 내세우며 대립, <u>1378 ~ 1417</u>) ③ 위클리프(영국), 후스(보헤미아)의 개혁 운동(<u>성서지상주의</u>) → 종교 개혁의 선구적 활동) ④ <u>콘스탄츠 공의회</u> (후스 처형, 로마 교황의 정통성 인정, 교회 대분열 수습, 1414 ~ 1418) 05. 중앙 집권 국가 체제의 발전 ① 영국 : 존 왕의 대헌장 승인(1215), 모범 의회(1295), 양원제 의회 성립(1341) ② 프랑스 : 필리프 2세(제후 억제, 프랑스 안의 영국령 획득), <u>필리프 4세</u> (삼부회 소집, 1302) ③ <u>백년 전쟁</u> (영 ⇄ 프, 플랑드르 영유권과 프랑스 왕위 계승 문제, 잔 다르크, <u>1337 ~ 1453</u>) ④ 장미 전쟁(영국 내 왕위 계승 문제, 1455 ~ 1485) ⇄ 튜더 왕조 성립(1485 ~ 1603)	

중세 유럽 세계의 변화



[르네상스(부활 · 재생, Renaissance)]

01. 배경

- 14 ~ 15세기 봉건 사회의 질서 동요와 교회의 권위 쇠퇴
- 인간의 개성과 합리성, 세속적 욕구를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 문화에서 찾으려는 문화 운동 등장

02. 성격

- 인문주의적 근대 문화 창조 운동
- 크리스티고, 봉건 제도의 속박에서 벗어나 인간의 자유와 개성 존중
- 문화 분야에서 경제 · 사회 · 정치 분야로 확대

[이탈리아의 르네상스(14세기 ~)]

01. 배경

- 옛 로마 제국의 중심지로 고전 문화의 전통 유지
-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로 경제적 번영
 - : 베네치아(Venezia, Venice), 피렌체(메디치 가문)
 - : 군주와 상인 가문이 명예를 높이기 위해 문예 후원
- 지식과 문화 교류에 유리한 지리적 특징
- 비잔티움 제국 학자들의 이탈리아 피신
 - : 고전 문화가 활발하게 연구
- 현세 중심적, 개인주의적 의식 구조 확산



〈로렌 초 데 메디치의 초상〉

02. 특징

- 인문주의(어원 humanitas, 휴머니즘) 및 예술 분야 발달

중세 유럽 세계의 변화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03. 인문주의자

단테 (1265 ~ 13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후의 중세인, 국민 문학의 선구자, 중세와 근대의 교량 역할 『신곡』 저술(이탈리아어), ‘모국어는 금(金)이요, 라틴어는 은(銀)이다.’
페트라르카 (1304 ~ 13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의 인문주의자, 서정시를 통해 인간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 『칸초니에레』(서정시 모음)
보카치오 (1313 ~ 13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카메론』(근대 소설의 효시, 1349 ~ 1353) : 흑사병을 배경으로 10명의 남녀가 교외 별장에서 10일간 나눈 이야기 : 사회의 타락상과 인간의 위선 풍자
마키아벨리 (1469 ~ 15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주론』(1513) : 이탈리아의 통일을 위해 정치를 종교·도덕에서 분리시키자고 주장 : 강력한 군주의 출현 주장 ⇨ 프리드리히 2세(재위 1740 ~ 1786), 『반(反) 마키아벨리론』

▣ 군주에게 필요한 자질

- 인색하다 또는 잔혹하다는 평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
- 함정을 알아채는 여우의 꾀와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사자의 성품을 가져야 한다.
-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들을 언제나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04. 미술과 건축

1) 미술

-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정신 표현(심미적 특징)
- 유화, 캔버스 사용, 원근법 등 미술 기법 발전
- 자연과 인간 육체의 아름다움 표현

보티첼리	1445 ~ 1510	• 비너스의 탄생, 동방박사의 경배
레오나르도 다빈치	1452 ~ 1519	• 최후의 만찬, 모나리자
미켈란젤로	1475 ~ 1564	• 최후의 심판, 다비드 상, 피에타, 아담의 창조
라파엘로	1483 ~ 1520	• 마돈나 상(성모상) • 아테네 학당(바티칸 성당, 문서의 방, 아카데미아)

2) 건축

- 르네상스 양식 발전
: 그리스의 열주(colonnade, 列柱), 로마의 아치와 돔(dome)
: 피렌체 성당(=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 바실리카, 1436)
: 성 베드로 성당(= 산피에트로 대성당·바티칸 대성당, 1506)



〈비너스의 탄생〉



〈모나리자〉



〈피에타〉



〈아테네 학당〉



〈성 베드로 성당〉

중세 유럽 세계의 변화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16세기 ~)]

01. 배경

- 신항로 개척으로 무역 중심지의 대서양 이동 → 르네상스의 토대 마련

02. 특징

- 봉건 세력과 교회의 영향력이 강성
: 크리스트교적 인문주의 발달
- 현실 사회와 교회 비판, 초기 크리스트교로 돌아갈 것을 주장 → 종교 개혁에 영향

03. 각국의 르네상스

네덜란드	<u>에라스무스</u>	1466 ~ 15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우신예찬</u>』(1511) : 교회의 허식과 성직자의 타락상을 풍자
영국	<u>토머스 모어</u>	1478 ~ 15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유토피아</u>』(1516) : 부조리한 현실 사회 비판과 빈부격차가 없는 이상 사회 묘사

04. 미술

- 반에이크 형제의 유화 기법 개발
- 브뤼헬(농민의 춤, 농가의 혼례), 홀바인(초상화)
- 엘 그레코(그리스 출신, 종교화)



〈농가의 혼례〉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

05. 문학

- 중세어(라틴어)에서 벗어나 모국어로 쓴 국민 문학 발달
: 셰르반테스(1547 ~ 1616), 『돈키호테』(1605)
: 셰익스피어(1564 ~ 1616), 『햄릿』·『오셀로』·『리어왕』·『맥베스』

[15 ~ 16세기 과학 기술의 발달과 사회 변화]

01. 배경

- 관찰과 탐구 정신, 중국에서 전래된 과학기술의 개량

02. 과학 기술 발달에 따른 사회 변화

화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승총·대포 사용 → 봉건 기사의 몰락 촉진, 상비군 등장 및 군사비 지출 증가
천문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코페르니쿠스</u>(1473 ~ 1543)의 지동설 주장 : 『<u>천체의 회전에 관하여</u>』(1543) →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에 기초한 중세의 우주관 비판
인쇄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텐베르크(? ~ 1468)의 <u>활판 인쇄술</u>(1455) :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의 확산에 기여
나침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거리 항해에 이용 → 신항로 개척 등 유럽 세계의 팽창에 기여



〈코페르니쿠스의 천구도〉



▣ 르네상스의 비교

	이탈리아(14세기)	북유럽(16세기)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와 상업 발달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 로마의 문화유산 잔존 지중해 무역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세 교회의 권위 존재 봉건 제도의 영향력 유지 초기 크리스티교 연구 신항로 개척으로 대서양 무역 발달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실적·세속적 성향, 문예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크리스티교적 인문주의 발달
미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브뤼헬, 홀바인, 반에이크 형제, 엘 그레코



(유럽의 르네상스)

▣ 이탈리아, 알프스 이북의 인문주의자

- ①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내가 숙녀들의 환심을 사려고 애쓰는 것이 밉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네 숙녀들을 좋아하는 나의 타고난 본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숙녀를 좋아하고, 또한 그네들의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나도 틀림없는 사실로서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나는 대체 그것이 무엇이 나쁘냐고 묻고 싶습니다. 만일 그들이, 숙녀분들이 때때로 허락해 주는 사랑에 넘친 입맞춤, 달콤한 포옹, …… 그리고 그 형언하기 어려운 우아함과 정숙함에 조금이라도 도취될 줄 아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나쁘다는 말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 보카치오, 『데카메론』
- ② 성 베드로가 복음서에서 “우리는 당신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나이다.” 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황들은 그를 위한답시고 영토와 도시와 공물과 통행세 등으로써 세속 재산을 만들어 하나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애정에 불타는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칼과 불로 싸움으로써 크리스티교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적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을 토막내고 있을 때에도 그들은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수호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 에라스무스, 『우신예찬』
- ③ “그렇게 온순하고 조금씩만 먹던 양들이 요즘에는 지나치게 많이 먹고 또 사나워져서, 과장하면 인간들까지 다 먹어 치우고 있습니다. …… 그것은 비싼 양털을 얻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 귀족과 신사, 성직자인 수도원장까지도 백성들의 경작지를 빼앗아 온통 목장 울타리로 둘러싸 버렸기 때문입니다.” - 토머스 모어, 『유토피아』

중세 유럽 세계의 변화

[중고 개혁의 배경과 선구]

01. 배경

- 교회의 부패와 일부 성직자의 타락
- 알프스 이북의 인문주의자들이 『성서』의 정신에 따른 교회 개혁 주장
- 인간 중심적 사고와 합리적 세계관의 확산

02. 선구

1) 위클리프(1320 ~ 1384)

- ‘교회 재산을 세속 정부에 돌려주어야 한다.’ 고 주장
- 교회 세속화 비판, 성직자의 타락을 비판하고 『성서』에 기반을 둔 신앙 강조

2) 후스(1372 ~ 1415)

-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보헤미아의 사제(司祭)
- 구령(救靈, 신앙의 힘으로 영혼을 구원) 예정설 주장, 『성서』의 체코어 번역
-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처형(1415) → 후스 전쟁(보헤미아 왕국, 1419 ~ 1436)

[★루터(1483 ~ 1546)의 종교 개혁(비텐베르크)]



〈산피에트로 대성당〉

01. 계기

- 독일 지역(교황의 쪼들, 교황청의 착취 집중)
- 교황 레오 10세(재위 1513 ~ 1521), 성 베드로 성당의 증축을 위해 면벌부(Indulgence) 판매
⇨ 루터, ‘95개조 반박문’ 발표(1517)

02. 주장

- 인간은 오직 신앙과 신의 은총에 의해서만 구제되는 것
- 신앙의 근거는 『성서』(→ 교황과 교회의 권위 부정), 『성서』의 독일어 번역

03. 전개

- 보름스 제국의회(카를 5세, 1521)에서 루터의 법적 보호 지위 박탈
- 영방 제후들의 지지
- 슈말칼덴 전쟁(루터파 ⇨ 교황파, 1546 ~ 1555)

04. 결과

- 아우크스부르크 회의 체결(1555)
: 제후와 도시 지배자들의 종교 선택권 인정 → 루터파 인정
- 북부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전파

▣ 아우크스부르크 회의(1555)

개인이 아닌 제후와 자유 도시가 루터파와 가톨릭교회 사이에서 종교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교황의 지배를 벗어난 새로운 교회가 처음으로 인정받았다.

중세 유럽 세계의 변화

[★칼뱅(1509 ~ 1564)의 종교 개혁(제네바)]

01. 전개

- 프랑스에서 루터 교회를 탄압하자 스위스로 망명하여 츠빙글리의 교리 연구
-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 개혁 추진(1536)

02. 내용

- 성서 중심주의
: 『성서』에 나와 있지 않은 일체의 교리와 의식 배격
- 『크리스트교 강요(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저술(1536)
: 예정설 주장(인간의 구원은 신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다!)
: 직업소명설(근면하고 검소한 직업 생활을 강조하여 자본주의 정신 형성에 기여)
- 장로제(gerontocracy) 도입
: 신도들의 자율적인 교회 운영
- 신의 의지에 반하는 세속 권력에 저항 → 시민 혁명 주도

▣ **성서 중심주의(신앙 중심주의)**
신앙의 근거는 교회나 교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서의 내용에 있다는 주장이다.

03. 신흥 상공업자의 호응과 전파

- 프랑스(위그노), 스코틀랜드(장로파), 잉글랜드(청교도), 네덜란드(고이센) 등지로 확산

[영국의 종교 개혁]

01. 배경

- 헨리 8세가 왕비 캐서린과의 이혼 문제로 교황 클레멘스 7세와 대립
- 종교적 원인보다 정치적 · 경제적 동기

02. 전개

- 헨리 8세(재위 1509 ~ 1547)
: 수장법(Act of Supremacy) 공포(1534)
↳ 국왕이 영국 교회의 수장(首長)임을 선포
: 수장령에 반대하던 토마스 모어 처형(1535)
: 수도원 해산, 교회의 토지와 재산 몰수
- 메리 1세(재위 1553 ~ 1558)
: 수장법 폐지
: 가톨릭교회 부활 운동 전개
- 엘리자베스 1세(재위 1558 ~ 1603)
: 통일법(Act of Uniformity) 반포(1559)
: 영국 국교회 확립
- 가톨릭교 의식에 신교 교리 결합



〈유럽의 종교 분포(16세기)〉

중세 유럽 세계의 변화

[로마 가톨릭교회의 대응]

01. 가톨릭교회 내부의 개혁

- 예수회(1534)
 - : 에스파냐의 신부 로올라(1491 ~ 1556)가 설립
 - :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톨릭 선교 활동 전개

02. ★트리엔트 공의회(1545 ~ 1563)

- 교황과 교회의 권위를 재확인하며 신교 확산 방지
- 교회의 내부 정화를 통한 악습과 폐단 시정 노력
- 4세기 라틴어 불가타(별게잇) 성경의 권위 인정
- 교회 내부의 결속 강화
 - : 종교 재판소 강화(1542 ~), 금서 목록 작성
 - : 예수회 정식 승인

▣ 트리엔트 공의회(Council of Trent)

교황(바오로 3세 ~ 바오로 4세)의 주재 아래 3회에 걸쳐 열린 공의회로 면벌부(免罰符)를 사고파는 행위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의회는 교황의 권위를 재확인하고 세례와 미사의 중요성 및 사제의 독신 의무를 역설하는 한편, 라틴어 불가타 성경 외에 다른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구교(로마 가톨릭) ⇔ 신교(프로테스탄트)의 종교 전쟁]

01. 프랑스의 위그노 전쟁(1562 ~ 1598)

- 부르봉 가(家)의 위그노 ⇔ 기즈 가(家) 중심의 가톨릭교도,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대학살(1572)
- 앙리 4세(재위 1589 ~ 1610)의 낭트 칙령(Edict of Nantes, 1598)
 - : 위그노에게 신앙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허용 → 산업 발달의 계기 마련

02. ★네덜란드 독립 전쟁(1568 ~ 1648)

- 신항로 개척 이후 경제력의 성장으로 무역과 상공업 발달
- 에스파냐 펠리페 2세(재위 1556 ~ 1598)의 가톨릭 강화 정책
 - : 고이센(Geusens) 주도 아래 에스파냐와 전쟁
 - : 북부 7개주(위트레흐트 동맹(Union of Utrecht, 1579))의 독립 선언(1581)
 - : 베스트팔렌 조약(1648)으로 독립 달성

03. 30년 전쟁(1618 ~ 1648)

- 신성 로마 제국 내(內) 보헤미아 신교도의 반란
- 국제 전쟁으로 확대
 - : 영국 · 덴마크 · 스웨덴 · 프랑스(신교) ⇔ 보헤미아 · 에스파냐(구교)
- 베스트팔렌 조약(1648)
 - : 개인의 신앙 자유 승인 → 칼뱅파 허용
 - : 스위스(from 신성 로마 제국), 네덜란드(from 에스파냐)의 독립
 - : 프랑스, 알자스 · 로렌 지방 차지
 - : 신성 로마 제국의 정치적 분열 심화

▣ 베스트팔렌 조약(1648)

조약은 합스부르크가의 세습 영토를 제외한 신성 로마 제국 내 소수 종파의 사적인 예배 의식과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였다. 아울러 조약 체결로 인해 신성 로마 제국,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에스파냐, 프랑스 등이 참여하였던 30년간의 전쟁이 종식되었다.



▣ 지문 확인

①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제6조 교황은 신의 용서를 확증하는 이외에 어떠한 죄도 용서할 수 없다.

제20조 교황이 모든 벌을 면제한다고 선언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모든 벌이 아니라, 단지 교황 자신이 내린 벌을 면제한다는 것뿐이다.

제27조 그들은 헌금 상자에 던진 동전 소리를 듣고 죽은 자의 영혼이 연옥에서 튀어나온다고 설교한다.

제36조 진실로 회개한 크리스트교도는 면벌부가 없어도 징벌이나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다.

제86조 오늘날 최고의 부자보다도 더 부유한 교황은 어찌서 자신의 돈이 아닌, 가난한 신자의 돈에 의지하여 성당을 개축하려 하는가?

② 칼뱅의 예정설

일찍이 신께서는 당신의 영원불변한 섭리를 통해서 구제해 주시고자 하는 자들과 파멸에 빠뜨리고자 하는 자들을 결정하셨다. 선택된 자들에게 이와 같은 섭리는 인간의 자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신의 자비에 근거한 것이며, 또 반대로 신께서 지옥에 떨어뜨리시려고 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음을 뜻하는 바이다. 이 모든 것이 은밀하고 알 수 없는 신의 심판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정당하고도 공평하다. - 『크리스트교 강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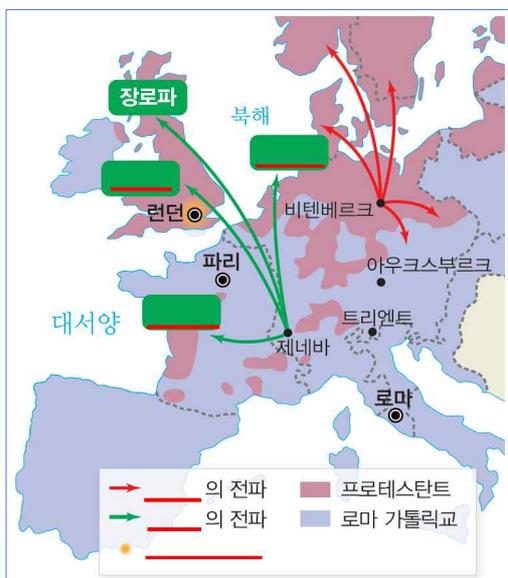
③ 막스 베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신이 크리스트 교도에게 바라는 것은 그들이 사회에서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다. …… 그들은 부(富)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사악하다고 여기면서도 직업 노동의 결과로 부자가 되는 것을 신의 은혜로 여겼다. 더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세속적 직업 노동을 조직적으로 해 나가는 것을 최고의 금욕적 수단으로 삼고, 또 그것을 올바른 신앙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여긴다는 것이다.”

④ 헨리 8세, 수장법(1534)

“국왕 폐하는 마땅히 법에 따라 실제로 또 법적으로도 영국 교회의 수장(首長)이시다. …… 뿐만 아니라, 영국 교회 수장의 권위에 달려 있는 모든 영예, 존엄, 지위, 재판권, 특권, 면제권, 수익, 재화를 소유하며 향유한다. …… ”

▣ 각국의 종교 개혁



<베스트팔렌 조약(1648)>

1. ㉠은(는) 루터파와 동등한 특권을 가진다.
2. 1624년 현재로 신교이든 구교이든 교회 재산을 그대로 유지한다.
3.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재판소에서 루터파와 ㉠은(는) 같은 수의 재판관을 두고 재판을 주관한다.
4. 각 제후는 자기 영내에서 실질적으로 독립 주권을 행사한다.
5. 프랑스는 스트라스부르를 제외한 알자스·로렌을 차지한다.
6. ㉡은(는) 에스파냐로부터, 스위스는 신성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된 국가임을 인정받는다.

㉠ _____, ㉡ _____

개념 Check

- ① 보카치오는 『_____』에서 사회의 타락상과 인간의 위선을 풍자하였다.
- ② 이탈리아의 ()는 『군주론』을 저술하여 강력한 군주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 ③ 에라스무스는 『_____』에서 교회의 형식화와 성직자의 타락을 비판하였다.
- ④ 루터는 교황청의 () 판매를 비판하며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였다.
- ⑤ 1555년 () 회의가 체결되면서 루터파가 인정받게 되었다.
- ⑥ 칼뱅은 『_____』에서 인간의 구원은 신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다는 예정설을 주장하였다.
- ⑦ 1534년 헨리 8세의 ()에 따라 영국 교회가 교황으로부터 독립하게 되었다.
- ⑧ 종교 개혁 운동이 확산되자 로마 가톨릭교회는 () 공의회를 열어(1545) 교황의 권위와 교리를 재확인하고 폐단을 고치려고 하였다.
- ⑨ 프랑스에서는 ()년 () 칙령으로 위그노에게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제한된 지역에서 예배의 자유를 허용하였다.
- ⑩ () 조약으로 신성 로마 제국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제국의 지배를 받던 제후국들은 사실상 독립국이 되었다.

유형 CHECK!!

01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1-수능]

파사우의 주교 볼프강에게
 나는 보헤미아와 헝가리의 국왕이자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직무 대행을 맡은 페르디난트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소. 내가 보기에 그의 최근 행위는 유럽의 여러 군주와 선량한 자들의 간절한 염원을 거스르는 것이었소. 즉 페르디난트는 교황 레오 10세의 뜻을 거역한 비텐베르크의 (가) 을(를) 추종하는 무리와 타협했던 것이오. 아우크스부르크 회의가 바로 그 증거요. 이로써 그들의 신앙이 인정되어 교회의 조화가 깨지고 말았소.
 교황 파울루스 4세

- ① 교회의 면벌부 판매를 비판하였다.
- ② 예수회를 설립하여 해외 선교에 힘썼다.
- ③ 크리스트교 강요에서 예정설을 주장하였다.
- ④ 우신예찬에서 성직자의 타락상을 풍자하였다.
- ⑤ 클뤼니 수도원의 교회 개혁 운동을 주도하였다.

02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0-9월 모의평가]

- 교황의 주재로 3회기에 걸쳐 열린 (가) 은(는) 면벌부를 사고파는 행위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가) 은(는) 교황의 권위를 재확인하고 세례와 미사의 중요성 및 사제의 독신 의무를 역설하는 한편, 라틴어 불가타 성경 외에 다른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 (나) 은(는) 합스부르크가의 세습 영토를 제외한 신성 로마 제국 내 소수 종파의 사적인 예배 의식과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였다. 아울러 (나) (으)로 신성 로마 제국,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에스파냐, 프랑스 등이 참여하였던 30년간의 전쟁이 종식되었다.

- ① (가) - 칼뱅파를 인정하였다.
- ② (가) - 신교 확산에 대응하여 개최되었다.
- ③ (나) - 영국 국교회를 확립시켰다.
- ④ (나) - 종교 재판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 ⑤ (가), (나) - 교회의 대분열을 종식시켰다.

유럽 세계의 변화

[신항로 개척 이후 유럽인들의 활동]

01. 유럽 세계의 팽창

- 진정한 의미의 세계사 시작
 - : 애덤 스미스(A. Smith, 1723 ~ 1790), 『국부론』(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중요한 사건, 1776)
- 원료 공급지, 상품 시장 확보 경쟁
 - : 에스파냐 → 아스테카(코르테스, 1521) · 잉카 제국(피사로, 1533) 정복, 대농장 건설 및 광산 개발
 - : 포르투갈 → 호르무즈 · 고아 · 마카오 등의 무역 기지를 건설하여 향료 무역 전개

02. 세계적 교역망의 통합

- 동인도 회사[영국(1600), 네덜란드(1602)]의 활동 → 교역의 활성화
- 중국산 비단 · 자기 · 차, 인도산 면화의 유럽 유입 → 막대한 양의 은(銀)이 중국 · 인도로 이동
 - : 일조편법(1573 ~), 지정은제(1712 ~)의 시행 뒷받침



〈아메리카 은의 유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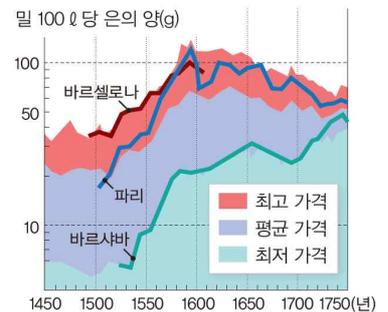
[신항로 개척 이후 경제적 변화]

01. 교역망의 확대

- 지중해에서 점차 대서양으로 확대

02. 가격 혁명(Price Revolution)

- 아메리카에서 금(金), 은(銀, 볼리비아 포토시 은광) 등이 유럽에 유입
- 유럽의 물가 급등 → 봉건 지주 타격, 신흥 상공업 계층의 이익 증가



〈가격 혁명〉

03. 상업 혁명(Commercial revolution)

- 상공 시민들의 해외 시장 개척 → 근대적인 기업, 금융 제도 등을 통해 대자본 형성
- 길드 해체, 선대(先貸)제 · 매뉴팩처(Manufacture) 생산 방식 → 근대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

신항로 개척 이후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세계

[아메리카 문명의 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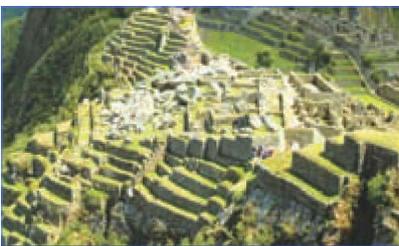
01. 마야(Maya) 문명(5 ~ 10세기)

- **치첸이트사** 중심, 피라미드형 신전, 천문학 발전, 0과 20진법 사용

02. 아스테카(Aztec) 문명(13세기 ~)

- 멕시코 고원의 **테노치티틀란**('신이 머무는 곳' , 계획도시) 중심
- 달력, 그림 문자, 피라미드형 신전 건설
- **에스파냐 코르테스의 침략으로 파괴(1521)**

03. 잉카(Inca) 문명(12세기 ~)



〈마추픽추〉

- 안데스 고원 **쿠스코** 중심
- 태양신의 신전 건설
- 점을 쳐서 국가 중대사 결정
- 잉카의 길(전국적인 도로망 구축)
- **키푸 문자**(= **결승 문자**, 새끼줄 매듭을 통해 정보 교환)
- 계단식 농경으로 옥수수, 감자, 토마토 등 경작
- **에스파냐 피사로의 침략으로 파괴(1533)** → 마추픽추 보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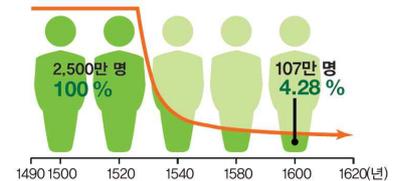


〈아메리카의 고대 문명〉

[에스파냐의 아메리카 지배]

01. 엔코미엔다(Encomienda) 제도

- 국왕이 임명한 총독과 지방 장관(**코레히도르**)이 통치권 행사
- 강압적 통치와 살육, 천연두 등 전염병의 유입으로 **원주민의 수 급감**
- **아프리카 흑인 노예**를 통해 노동력 보충 → 사탕수수(하얀 금), 담배 등을 생산하는 **대농장 운영**



〈멕시코 고원의 인구 변화〉

02. 로마 가톨릭교회 전파

[아프리카의 세계]

01. 노예무역(slave trade) 성행

- 8세기 이슬람 상인의 시작
- **15세기 포르투갈 상인이 주도**
- 네덜란드, 에스파냐, 프랑스, 영국 등이 가담



〈대서양 삼각 무역〉

02. 대서양 삼각 무역(Atlantic Ocean Triangular Trade)

- 아메리카 ~ 아프리카 ~ 유럽

개념 Check

- ① 유럽의 신항로 개척은 대서양 진출에 유리한 지역에 위치한 포르투갈과 ()가 주도하였다.
- ② 에스파냐의 후원으로 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너 필리핀에 도착한 ()은 그곳에서 사망하였다. 그러나 남은 일행은 항해를 계속하여 1522년에 귀환함으로써 세계 일주에 성공하였다.
- ③ 에스파냐의 코르테스 일행은 아메리카 대륙을 침략하여 () 제국을 정복하였다.
- ④ 아메리카의 금, 은 등 귀금속이 대량으로 유럽에 유입되어 물가가 급등하는 ()이 발생하였다.
- ⑤ 신항로 개척 이후 대서양을 가로질러 유럽·아메리카·아프리카를 잇는 대서양 ()이 발달하였다.

유형 CHECK!!

01

밑줄 친 ‘항해’ 를 후원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1-수능]



- ① 아스테카 제국과 잉카 제국을 정복하였다.
- ② 벵골 지역을 동서로 나누는 분할령을 발표하였다.
- ③ 베트남을 차지하고 인도차이나 연방을 조직하였다.
- ④ 호르무즈, 고아, 플라카, 마카오 등을 교역 거점으로 삼았다.
- ⑤ 리비아를 중심으로 북아프리카 식민지를 건설하였다.

02

다음 대화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1-9월 모의평가]



- ① 산업 혁명과 사회 문제의 대두
- ② 세포이 항쟁과 인도 통치 개선법
- ③ 오스만 제국의 근대화와 탄지마트
- ④ 농노 해방과 브나로드 운동의 전개
- ⑤ 아메리카 문명의 파괴와 대서양 무역

03

(기) 국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0-6월 모의평가]

(가)의 국왕은 식민지의 광산 소유주들에게 광산 채굴에 원주민들을 동원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포토시의 코레히도르는 그들을 위하여 쿠스코에서 타리하, 토미나 등 변경에 이르는 모든 지방에서 원주민을 모아들였다. 징발된 원주민은 매주 월요일 아침에 각자 배정된 광산으로 들어간 뒤 토요일 저녁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은 광석을 채굴하고 운반해야만 하였다.

- ① 동인도 회사를 앞세워 인도를 지배하였다.
- ② 콜럼버스의 대서양 횡단 항해를 후원하였다.
- ③ 오스트리아와 함께 폴란드 분할에 참여하였다.
- ④ 콜베르를 등용하여 중상주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 ⑤ 스웨덴과의 북방 전쟁에 승리하여 발트 해로 진출하였다.

상식 넓히기

토르데시야스 조약



에스파냐의 요청으로 교황이 대서양에 가상의 선을 설정하여 영역을 나누었다. 이후 포르투갈의 항의로 경계선을 이동하여 토르데시야스 조약이 체결되었다.



브라질은 포르투갈, 브라질을 제외한 남아메리카 지역은 에스파냐의 식민지가 되어 포르투갈어, 에스파냐어를 각각 공용어로 사용하게 되었다.

유럽 세계의 변화 - 절대 왕정의 발전

□ 유럽 근대의 흐름

중세 봉건 사회 말기	절대 왕정	근대 시민 사회
▶강력한 군주의 필요성 대두◀	▶절대적 권한을 지닌 군주 출현◀	▶부르주아와 참정권 확대◀
① 봉건 질서 동요 ② 상공 시민 세력의 성장 ③ 사회 혼란 : 흑사병(14 ~ 15세기) : 왕위 계승 분쟁	① 서유럽(16세기 ~), 동유럽(17세기 ~) ② 전제 정치적 요소, 봉건 귀족의 특권 유지 ③ 시민들 주도로 초기 자본주의 성장 : 국왕에 대한 재정적 지원 ④ 근대 문화의 토대(17 ~ 18세기)	① <u>시민혁명</u> : 정치적 ② <u>산업 혁명</u> : 경제적 ③ 근대 문화의 완성(19세기)

[★절대 왕정(absolutism)]

01. 성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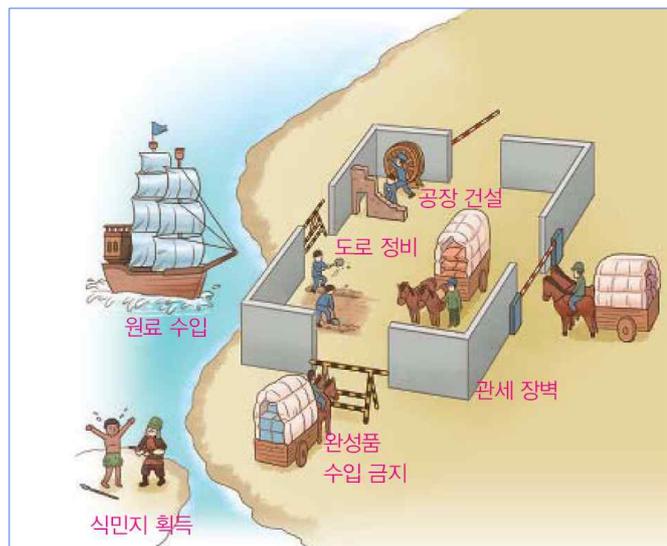
- 16 ~ 18세기 유럽 각국의 왕권 강화와 중앙 집권 체제 발전 과정에서 등장
- 중세 봉건 국가에서 근대 국민 국가로 가는 과도기적 정치 형태

02. 기반

-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 divine right of kings, 보쉬에 · 보댕) 이용 → 절대 왕정 정당화
- 관료제와 상비군 → 왕권 강화
- 시민 계급의 지원으로 재원 충당 → 신흥 상공업자를 비롯한 시민 계급의 경제 활동 지원

03. 경제 정책

- 중상주의(mercantilism, = 콜베르주의)
 : 상업과 무역 중시
 : 국가의 부를 늘리는 확실한 수단으로 인식
- 경제 활동 전반에 걸친 국가의 간섭 · 통제
- 초기 중금(중은)주의 정책
 : 금 · 은 등 귀금속을 국부의 원천으로 인식
- 국내 산업의 육성과 보호
 : 완성품의 수입과 원료의 수출 금지
 : 관세 장벽
- 생산 방식
 : 매뉴팩처, 선대제(先貸制) 수공업
- 영토 확장과 교역망의 확대 경쟁
 : 왕위 계승 전쟁, 식민지 쟁탈전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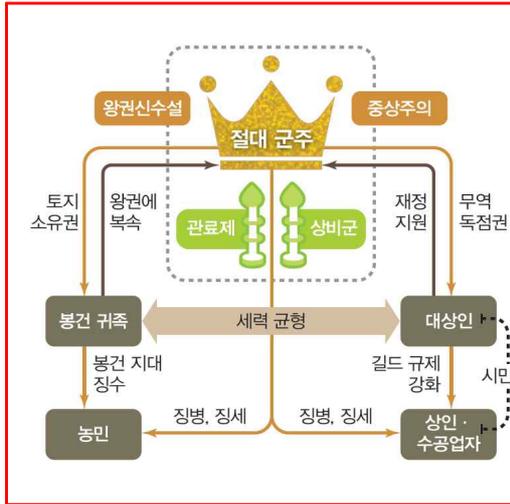
〈중상주의(『세계 역사의 이해 교수 학습 자료집』)〉

04. 특징

- 국왕이 봉건 귀족과 시민 계층 등 어느 누구에게도 제약 없이 국정 주도
- 절대 군주 → 쇠퇴하는 봉건 귀족과 성장하는 시민 계층 간의 조정자 역할

유럽 세계의 변화 - 절대 왕정의 발전

서유럽 절대 왕정의 구조



• 모든 공업, 심지어 사치품 공업도 다시 살리거나 새로 세워야 합니다. 관세와 관련해서는 **보호 무역 제도를** 확립해야 합니다. 생산자와 상인을 수공업 **길드에 편입**시키고, 백성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국가 재정 적자를 줄여야 합니다. 국산품의 해상 운송을 프랑스가 다시 맡고 **식민지를 발전시켜** 무역에서 프랑스에 종속되도록 해야 합니다.

- 콜베르(1619 ~ 1683)가 재상 마자랭에게 보낸 편지

• **권력은 신으로부터 나온다. 신은 국왕을 그의 사자로 만드셔서, 국왕을 통해 백성을 지배한다.** …… 국왕은 절대적인 권위를 갖지 않고서는 선을 이룰 수도, 악을 막을 수도 없다. …… 그러므로 정의 그 자체에 복종하는 것처럼 국왕에게 복종하라.

- 보쉬에, 『성서의 말씀에서 인용한 정치』

★서유럽의 절대 왕정

01. 에스파냐

1) 성립

- 15세기 신항로 개척을 주도하여 중·남아메리카에 식민지 건설
- 식민지의 귀금속 유입으로 가장 먼저 절대주의 확립

2) 전성기

- **펠리페 2세(재위 1556 ~ 1598)**
 - : **무적함대**(Armada Invencible, = 위대하고 가장 축복받은 함대)
 - : 대서양 항로 장악
 - : **엘 에스코리알 왕립 수도원 건립**(1563 ~ 1584)
 - ↳ 왕실의 권위 신장, 로마 가톨릭교회의 수호 의지
 - : **레판토 해전**에서 오스만 제국 격파(**1571**)
 - ↳ 지중해 해상권 차지
 - : **포르투갈 병합**(1580)



〈엘 에스코리알 왕립 수도원〉

3) 쇠퇴

- 국내 산업의 육성 미비
- **가톨릭 강요 정책과 네덜란드 독립 전쟁 발발(1568 ~)**
 - : 상공업 발달 지역인 **네덜란드 북부 7주의 독립(1581)**
- **칼레 해전**(Naval Battle of Calais, ⇄ 영국, **1588**)
 - : 무적함대의 패배로 해상권 상실

■ 에스파냐의 포르투갈 병합

펠리페 2세는 포르투갈 국왕이 전사한 틈을 타 1580년 포르투갈을 병합하였다. 이후 포르투갈은 에스파냐의 지배하에 있다가 프랑스, 영국의 도움으로 1640년에 다시 독립하였다.

유럽 세계의 변화 - 절대 왕정의 발전

[★서유럽의 절대 왕정]

02. 네덜란드

- 독립 전쟁(⇔ 에스파냐, 1568 ~ 1648)
: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독립 승인
- 동인도 회사 설립(1602)
: 적극적인 해외 진출 → 플라카 점령(⇔ 포르투갈, 1641)
- 수도 암스테르담, 국제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 기능
- 17세기 유럽 최대의 해운 국가로 성장
⇔ 크롬웰(1599 ~ 1658), 항해 조례 발표(1651)

▣ 동인도 회사

영국(1600), 네덜란드(1602), 프랑스(1604) 등이 아시아 지역과의 무역을 위해 만든 회사이다. 동인도 회사는 본국 정부로부터 무역뿐 아니라 군대를 보유하고 조약을 체결하는 권한까지 부여받았다.

03. 영국

- 1) 헨리 7세(재위 1485 ~ 1509)
 - 튜더 왕조 개창, 절대 왕정의 기초 마련, 국내 상업 장려
- 2) 헨리 8세(재위 1509 ~ 1547)
 - 수장법(1534), 의회와 원만한 관계 유지, 해군 육성
- 3) 엘리자베스 1세(재위 1558 ~ 1603)
 - 화려한 화장과 복장 → 신비화 전략
 - 통일법 제정 · 반포(1559)
 - 에스파냐의 무적함대 격파(프란시스 드레이크, 1588)
 - 동인도 회사 설립(1600)과 해외 개척
 - 수출 산업 육성(제철 · 유리 · 제염), 모직물 공업 육성(제1차 인클로저 운동)
 - 셰익스피어(1564 ~ 1616) 등 유명 작가의 등장으로 문화 발달

▣ 제1차 인클로저(enclosure) 운동

영국에서 모직물 산업이 발달하자 양털을 팔아 수익을 올리기 위해 지주들이 농경지를 목초지로 바꾸는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이를 인클로저 운동이라 한다. 이로 인하여 몰락한 농민들과 빈농들이 도시로 이동하여 실업자 및 빈민이 되었다. 이를 구제하고자 엘리자베스 1세는 구빈법을 제정하였다.

04. 프랑스

- 1) 앙리 4세(재위 1589 ~ 1610)
 - 부르봉 왕조 개창, 절대 왕정의 기틀 마련, 낭트 칙령(1598)으로 위그노 전쟁(1562 ~ 1598) 종식
 - 동인도 회사 설립(1604)
- 2) 루이 14세(태양왕, 재위 1643 ~ 1715)
 - 프롱드의 난(1648 ~ 1653) 진압
 - ‘집이 곧 국가이다. 왕은 오직 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 콜베르(1619 ~ 1683)를 재무 장관으로 등용
 - 바로크 양식의 베르사유 궁전 증축 → 왕실의 권위 과시, 화려한 궁정 문화 형성
 - 낭트 칙령 폐지(퐁텐블로 칙령, 1685) → 위그노의 해외 망명 증가로 국내 산업 침체
 -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1701 ~ 1713) 등 무리한 전쟁으로 재정난 심화

▣ 콜베르의 의견서(1664)

모든 무역에서 국내 제조 공업에 도움이 되는 상품을 수입할 때는 세금을 면제해 주고, (국외에서) 제조되어 들어오는 상품에는 세금을 부과하며, 국내 공업 제품의 출국세를 경감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유럽 세계의 변화 - 절대 왕정의 발전

[동유럽의 절대 왕정]

01. 특징

- 17세기 중엽 성립
- 평원 지역이 많아 서유럽에 비해 농업 발달
- : 도시와 상공업 발달 부진(시민 계급의 성장 미약), 재판(再版) 농노제(농노제 강화)
- 계몽 전제 군주 표방

▣ 계몽사상(enlightenment)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면서 계몽을 통해 모순과 불합리를 타파하여 인간 사회가 진보할 수 있다고 낙관하였고, 계몽 전제 군주와 미국 독립 혁명,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끼쳤다.

02. 양상

1) 프로이센

- 프리드리히 2세(재위 1740 ~ 1786)
- : 계몽사상의 영향, '국가 제일의 공복' 자처, 『반(反)마키아벨리론』(1740)
- : 행정·사법·교육 제도의 개혁 노력, 산업 장려, 종교적 관용 정책, 상수시 궁전 건립(1747)
- :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7년 전쟁(⇔ 오스트리아) 이후 슐레지엔 지방 차지
- : 폴란드 분할 점령(1772)

2) 오스트리아

- 마리아 테레지아(재위 1740 ~ 1780)
- : 슐레지엔 지방 상실, 폴란드 분할 참여(1772),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문화 번성
- 요제프 2세(재위 1765 ~ 1790)
- : 계몽 전제 군주 자처, 귀족의 면세 특권 폐지와 농노 해방 등 내정 개혁 시도 → 실패
- 프란츠 요제프 1세(재위 1848 ~ 1916)
- :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수립(1867)

3) 러시아

- 이반 4세(재위 1533 ~ 1584)
- : 차르(Czar, 황제) 전제 정치 실시, 시베리아(Siberia) 진출
- 미하일 표도로 비치(재위 1613 ~ 1645)
- : 로마노프 왕조 개창, 영토 회복
- 표트르 대제(재위 1682 ~ 1725)
- : 서구화 정책을 표방하며 서유럽 기술과 문물 적극 수용
- : 상트페테르부르크 건설(유럽의 빛이 들어오는 창, 1703) → 천도(1713)
- : 청(淸)과 네르친스크 조약 체결(1689)
- : 스웨덴과 북방 전쟁(1700 ~ 1721)을 통해 발트 해 진출
- : 동방정책으로 시베리아 통치
- 예카테리나 2세(표트르 3세의 왕비에서 황제로, 재위 1762 ~ 1796)
- : 계몽 전제 군주 자처
- : 관료제 강화, 법전 편찬 등 내정 개혁, 농노제 강화
- : 흑해 진출, 알래스카 획득, 제1차 폴란드 분할 참여(1772)



〈예카테리나 2세〉

유럽 세계의 변화 - 절대 왕정의 발전

[절대 왕정 하의 전쟁]

01. 배경

- 국왕이 대규모 군대 동원 가능
: **직업 보병대 등 상비군** 운영
- 복잡한 혈통 관계

02.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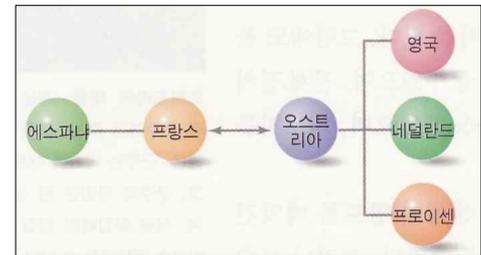
- 종교 갈등으로 빚어진 전쟁
- **왕위 계승을 둘러싼 전쟁**
-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
- 해외 무역과 식민지 확보 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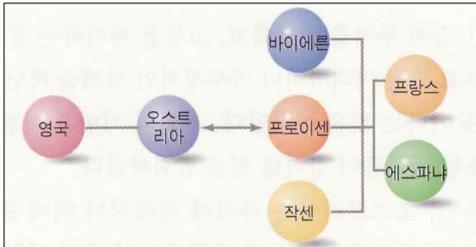
- ① _____ 해전
- ② _____ 전쟁
- ③ _____ 전쟁
- ④ 레판토 해전
- ⑤ _____ 전쟁

03. 전쟁

- 1)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1701 ~ 1713)
 - 루이 14세(재위 1643 ~ 1715) 유발
 - 위트레흐트 조약(treaties of Utrecht, 1713)으로 종결
- 2)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1740 ~ 1748)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 프리드리히 2세가 유발
- 프로이센의 승리
: **슐레지엔 지방 영유**

3) ★7년 전쟁

- **유럽(1756 ~ 1763)**
: 오스트리아가 슐레지엔 지방을 되찾기 위해 프랑스·러시아와 동맹을 맺자, 프로이센이 영국과 동맹을 맺고 작센 지방에 침입하여 일어난 전쟁
: 오스트리아·프랑스·러시아 ⇄ 프로이센·영국
: 요트르 3세(재위 1762)의 양보로 **프로이센 프리드리히 2세의 승리**
- **프렌치·인디언 전쟁(1754 ~ 1763)**
: 아메리카 식민지 전쟁, 영국 ⇄ 프랑스, **영국 승리**
- **플라시 전투(1757)**
: 인도 식민지 경쟁, 영국군 ⇄ 프랑스군과 벵골 태수 군대 연합, **영국의 승리**

17 ~ 18세기 유럽 문화

[절대 왕정 시대의 예술(『금성 · 미래엔 · 비상교과서』)]

01. 특징

- 중세적 성격 + 근대적 성격
- 절대 왕정의 힘과 권위 강조
- 각국의 고전 문학 발달

02. 17세기

- 바로크 양식



- ✓ 르네상스 미술에 대한 반동으로 등장
- ✓ 화려, 동적, 유동성 풍부, 생명력과 위엄 있는 표현
- ✓ 장대함, 풍요, 복잡한 장식과 뛰어난 기교
- ✓ **베르사유 궁전**
: 루이 13세 때 지은 별장을 루이 14세가 증축
: 거울의 방(공간감과 장식성 강조)

- 궁정화가
: 루벤스(플랑드르), 렘브란트(네덜란드), 벨라스케스(에스파냐)
- 바로크 음악
: 바흐 · 하이든 · 헨델, 오페라의 출현과 유행
- 고전 문학 유행
: 라퐁텐(1621 ~ 1695), 『우화 시집』(1668 ~ 1694)



〈렘브란트(1606 ~ 1669), 야간 순찰〉

03. 18세기

- 로코코 양식



- ✓ 바로크 양식에 비해 세련된 섬세함과 경쾌함
- ✓ 장식성 풍부, 우아, 기교적
- ✓ 건축, 회화 등 여러 분야의 예술 연계
- ✓ **상수시 궁전**(‘근심 없는 궁전’ , 포츠담, 1747)
: 프리드리히 2세가 베르사유 궁전을 모방해 건립
: 볼테르를 비롯한 계몽사상가와 교류

- 고전 음악
: 헨델(1685 ~ 1759), 모차르트(1756 ~ 1791), 베토벤(1770 ~ 1827)
- 그림
: 귀족과 부유한 시민 계급의 향락적 생활을 그린 그림
- 문학
: 대니얼 디포(1660 ~ 1731), 『로빈스 크루소』(1719)
: 조너선 스위프트(1667 ~ 1745), 『걸리버 여행기』(1726)



〈부세, 마담 폼파두르〉

개념 Check

- ① 절대 왕정은 국왕의 권력이 신으로부터 부여된 것이라는 ()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 ②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는 () 해전에서 오스만 제국을 격파하였다.
- ③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 궁전을 건축하였으며, ()를 등용해 중상주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 ④ ()의 프리드리히 2세는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아 ‘국가 제일의 공복’임을 자처하였다.
- ⑤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2세는 프로이센, 오스트리아와 함께 ()를 분할 점령하였다.

유형 CHECK!!

01

(가)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2-수능]



- ① 콜베르를 등용하였다.
- ② 낭트 칙령을 반포하였다.
- ③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였다.
- ④ 대륙 봉쇄령을 발표하였다.
- ⑤ 상수시 궁전을 건립하였다.

02

(가)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2-6월 모의평가]

이슬람 세력이 키프로스섬을 점령하고 서쪽으로 세력을 확장하자, (가) 은(는) 교황, 베네치아, 제노바 등과 신성 동맹 군대를 조직하여 레판토만에서 그들을 격퇴하였다. 이를 계기로 종교적 사명감에 고취된 (가) 은(는) 자신의 속령 네덜란드에 가톨릭 강요 정책을 본격화하였다. 이 조치는 네덜란드 칼뱅주의자들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여 독립전쟁을 격화시켰다.

- ① 콜베르를 등용하여 중상주의 정책을 펼쳤다.
- ② 낭트 칙령을 반포하여 종교 갈등을 완화시켰다.
- ③ 영국 원정에서 엘리자베스 1세에게 패배하였다.
- ④ 오스트리아와 전쟁으로 슐레지엔을 차지하였다.
- ⑤ 스웨덴과의 북방 전쟁을 통해 발트해로 진출하였다.

근대 의식의 발전

[근대 철학의 발달(『비상 교과서』)]

01. 성격

- 전통적 권위와 편견에서 해방, 주체적으로 사물 인식
- **귀납법(induction), 연역법(deduction) 등 과학적 방법론**과 사고방식을 인간 사회를 이해하는 데 적용 → 근대 과학 혁명에 기여

02. 철학가

베이컨 (1561 ~ 16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찰과 실험 중시, 경험론의 토대 마련 • 홉스(1588 ~ 1679), 로크(영국 경험론 철학의 시조, 1632 ~ 1704)의 계승 • 『노붐 오르가눔(Novum Organum, = 신기관(新機關))』 저술(1620)
데카르트 (1596 ~ 16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공리를 바탕으로 결론을 추론하는 연역법 주장 • 합리론의 토대 마련 • 『방법서설(Discours de la Methode)』(1637)
칸트 (1724 ~ 18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리론과 경험론의 종합 → 관념론의 토대 마련 • 『순수 이성 비판(Kritik der reinen Vernunft)』(1781)

[과학 혁명]

01. 개념

- 16 ~ 17세기에 일어난 과학의 발전과 세계관의 변화

02. 배경

- 이슬람의 과학과 기술 수용, 르네상스 시대의 학문 발전
- 과학적 사고방식 발달

▣ 기계론적 우주관

우주와 자연계를 신의 섭리가 아닌 일정한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기계로 간주하고, 그 인과 관계를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는 근대 과학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03. 내용

천문학	갈릴레이(1564 ~ 16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측하여 지동설 옹호(1609) • 낙하 실험 등을 통해 새로운 운동 법칙 발견 • 가톨릭교회의 종교 재판 회부(1633)
	케플러(1571 ~ 1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성 운행의 법칙(1609) • : 화성이 태양을 타원 궤도로 회전함을 밝힘 → 지동설의 수정·발전
	뉴턴(1642 ~ 17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보편적인 수학 공식으로 설명 • 기계론적 우주관 확립 •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프린키피아)』(1687)
의학	베살리우스(1514 ~ 15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체 해부학의 토대 마련, 『인체의 구조에 대하여(파브리카)』(1543)
	하비(1578 ~ 16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찰스 1세의 주치의, 혈액 순환론 연구, 과학 혁명 본격화 • 『심장과 피의 운동에 대하여』(1628)

근대 의식의 발전

[사회 계약설(theory of social contract)]

01. 정의

- 17세기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에 대응
- 자연 상태에 살던 개인들이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합의나 계약을 맺어 국가와 사회가 출현했다고 보는 이론

02. 특징

- 과학 혁명의 영향
- 자연법(自然法) 사상을 토대로 발전

▣ 자연법 사상(natural law)

자연계에 법칙과 원리가 있는 것처럼 인간 사회에도 시대와 사회를 초월하여 적용되는 보편타당한 법이 있다는 믿음이다. 근대적 자연법에서는 그 핵심을 인간의 이성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성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03. 대표 인물

홉스 (1588 ~ 16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의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투쟁)’ 으로 파악 : 자연 상태의 불안을 벗어나기 위해 계약을 맺어 자연권을 군주에게 양도 • 『리바이어던(Leviathan)』(1651) → <u>절대 군주제 옹호</u>
로크 (1632 ~ 17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 상태는 자연법이 지배하는 평화로운 상태 • 중재자 부재, 재산을 보호받지 못하여 불편 → 계약을 통해 정치 공동체 형성 • 정부 또는 통치자가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 <u>저항권 행사</u> 인정 • 『시민정부론』(명예혁명 옹호, = 통치론, 1689 or 1690), 미국 혁명 · 프랑스 혁명에 영향
루소 (1712 ~ 17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일반 의지</u>의 형성과 <u>인민 주권의 원리</u> 제시 : 프랑스 혁명의 이론적 기반 제공

▣ 일반 의지(volonte generale)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인민들의 의지를 말한다. 공동체가 공동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구성원이 합의하여 정치권력과 그 권력의 행사를 정당화하는 유일한 의지이다.

[계몽사상(enlightenment)]

01. 배경

- 기계론적 우주관, 합리주의 철학, 로크의 정치사상의 영향

02. 내용

- 18세기 프랑스(살롱)를 중심으로 유럽에 확산
- 이성 중시, 미신과 무지 배격, 불합리한 제도와 관습 타파
- 사회와 정부를 합리적으로 개혁함으로써 사회는 진보한다는 믿음



(마담 조프랭의 살롱)

03. 사상가

몽테스키외	1689 ~ 17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예혁명 이후 영국의 정치 체제 칭송 • <u>삼권 분립 주장</u>(『법의 정신』, 1748) → 미국 헌법에 영향
볼테르	1694 ~ 1778	• <u>관용의 원리, 신앙과 언론의 자유 설파</u> , 계몽 전제 군주의 개혁 지지
루소	1712 ~ 1778	• 자유와 평등, 국민주권 주장, 『사회계약론』 · 『에밀』 저술(1762)
디드로	1713 ~ 1784	• 당대의 실용 지식을 집대성해 『백과전서』 편찬(1751 ~ 1772)
달랑베르	1717 ~ 1783	• <u>계몽사상 확산에 기여</u>



■ 사회계약설

① **정치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외롭고 가난하고 더럽고 동물적이며 단명한 존재에 불과하며, **서로 상대방과 싸우는 전쟁 상태**에 있다. 이러한 무정부와 공포,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강력한 정부가 요구되므로, 인간은 개인행동의 자유를 지배자의 손에 맡기기 위한 일종의 합의나 계약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지배자에게 무제한의 권력을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는 또다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인 자연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 홉스(1588 ~ 1679), 『리바이어던』(1651)

② 자연 상태는 살기에 불편하므로 사람들은 공동 관심사인 사회와 정부를 세우기 위해 계약을 맺게 된다. 그런데 인간은 **자연권인 생명, 자유, 재산의 권리**를 갖고 있다. 인간은 이러한 모든 권리가 잘 보장되도록 정부를 세우는데 합의(계약)하는 것이다. 만일 정부가 자연권인 생명, 자유, 재산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방자해진다면 물러나야 하며, **극단의 경우 혁명으로 타도될 수 있다**.

- 로크(1632 ~ 1704), 『시민정부론』(1689 or 1690)

③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자유롭고 평등하지만**, 오직 본능에 따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사회 계약을 맺는다. 인간은 계약을 맺음으로써 자연적 자유 대신 정의와 도덕에 따르는 법적 자유를 얻는다. 계약을 통해 구성된 **국가의 주권은 전체로서 인민에게 있으며**, 전체 인민이 통치자라야 한다. 주권은 공공의 복리를 지향하는 **초개인적인 일반 의지**의 작용이다. 즉, **주권이라는 것은 일반 의지의 행사이므로 결코 남에게 양도될 수 없다**.

- 루소(1712 ~ 1778), 『사회계약론』(1762)

■ 백과전서

『백과전서 또는 문인협회에 의한 과학, 기술, 공예에 관한 합리적 사전(Encyclopédie, ou dictionnaire raisonné des sciences, des arts et des métiers)』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당시의 정치적, 종교적 권위에 대한 비판적 서술로 당국으로부터 발행 금지를 당하기도 하였다.

■ 정치와 경제 사상

구분	정치	경제
절대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왕권신수설 : 보댕(1530 ~ 1596), 보쉬에(1627 ~ 17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상주의 : 콜베르(1619 ~ 1683)
근대 의식의 발전	자연법 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크로티우스(1583 ~ 1645) : 국제법 사상 홉스(1588 ~ 1679) : 개인의 자연권 포기(군주주권론) 로크(1632 ~ 1704) : 시민 권리 중 일부를 정부에 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유방입주의 옹호 ■ 케네(1694 ~ 1774) • 중농학파의 시조 : 부(富)의 원천은 토지와 농업 ■ 애덤 스미스(1723 ~ 1790) • 케네와 흄(1711 ~ 1776)의 영향 • 고전 경제학의 토대 마련 • 『국부론(國富論)』(1776) :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s)’ ↳ 자원 배분의 효율성 :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 주장
	계몽 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성 중시, 관습과 미신 타파 : 자유와 평등 옹호, 절대 왕정 비판 몽테스키외(1689 ~ 1755) 볼테르(1694 ~ 1778) 루소(1712 ~ 1778) : 사회계약설과 인민주권의 원리 	

개념 Check

- ① ()는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1543)에서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을 비판하고 지동설을 주장하였다.
- ② ()는 찰스 1세의 주치의로서 혈액 순환론을 연구하였고, 과학 혁명을 본격화하였다.
- ③ 사회 계약설은 자연계의 법칙을 인간 사회에 적용한 () 사상을 토대로 발전하였다.
- ④ ()는 『사회 계약론』(1762)에서 일반 의지와 인민 주권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 ⑤ 루소, 디드로, 달랑베르 등은 『_____』(1751 ~ 1772)를 편찬하여 당대의 지식을 정리함으로써 계몽사상의 확산에 공헌하였다.
- ⑥ 영국의 애덤 스미스는 『_____』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절되는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주장하여 고전 경제학의 기초를 닦았다.
- ⑦ 프리드리히 2세는 18세기 로코코 양식을 대표하는 () 궁전을 건립하였다.

유형 CHECK!!

01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6-수능 변형]

○○세기 유럽의 과학과 사상 발전 차례

제1장 몽테스키외
- 삼권분립과 근대 정치사상

제2장 루소
- 일반 의지의 형성과 인민 주권의 원리

제3장 (가)

- ① 스미스 - 자유방임과 고전 경제학
- ② 베살리우스 - 인체 해부와 근대 의학
- ③ 데카르트 - 연역적 사고와 근대 철학
- ④ 로크 - 저항권 사상과 시민 정부론
- ⑤ 뉴턴 - 기계론적 우주관의 수립

02

(가) 서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0-수능특강 변형]

(가)의 목적은 지상에 산재해 있는 다방면의 지식을 집대성하는 것이다. …… 그럼으로써 앞 세대의 업적이 후세대에게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하고, 우리 자손이 더 많은 지식을 갖고 더 미덕을 갖추고 더 행복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 디드로(1713 ~ 1784)의 서론

- ① 명예혁명 시기에 저술되었다.
- ② 계몽사상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 ③ 루터의 종교 개혁에 영향을 주었다.
- ④ 절대 왕정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 있다.
- ⑤ 철학이 신학의 보조 학문임을 강조하였다.

영국 혁명

[★청교도 혁명(1642 ~ 1649)]

01. 혁명 전 16 ~ 17세기의 영국 사회

- 장원제가 무너지면서 자영 농민층 형성
- 인클로저 운동을 주도하며 토지를 축적한 **젠트리 계층**이 사회 지도층으로 성장
- 상공업자, 전문직 계층 등 **시민 계급의 성장**
- 대부분 청교도였던 젠트리와 시민이 의회에 진출하여 다수 의석 차지
: 왕실의 부패 비판, 의회 중심의 입헌주의 전통을 지키려는 노력

02. 혁명의 발단

- **제임스 1세**(재위 1603 ~ 1625)
: 1567년 스코틀랜드 왕으로 즉위(제임스 6세)
: 1603년 **스튜어트 왕조**(~ 1714) 개창
: **왕권신수설 고집, 의회의 전통 무시, 자의적 조세 부과**
: 국교회를 강화하여 **청교도 탄압** → 청교도의 신대륙 이주(Pilgrim Fathers, 1620)
- **찰스 1세**(재위 1625 ~ 1649)
: 앙리에타 마리아(Henrietta Maria, 앙리 4세의 딸)와 결혼(1625)
: 프랑스, 에스파냐와의 전쟁 비용 마련을 위해 자의적인 조세 부과 ⇨ 의회의 『**권리청원**』 제출과 승인(1628) ⇨ **의회 해산(1629)**
: 스코틀랜드와의 전쟁 비용 마련을 위해 의회 소집(1640) ⇨ **의회**는 왕의 실정을 비판하고 **과세 요구 거부** ⇨ 국왕이 의회를 무력으로 탄압

▣ 젠트리(gentry)

신분상으로 귀족의 아래, 자영농의 위에 위치하는 계층으로, 대체로 지주가 그 중심을 이루었다. 법률가,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도 젠트리에 포함되었다.

03. 혁명의 전개

- ① **왕당파와 의회파 사이에 내전 발생(1642)**
- ② 철기대(鐵騎隊)를 이끈 크롬웰의 지도로 **의회파 승리**
- ③ 찰스 1세 처형(1649. 1月)과 **공화정 수립(1649)**

잉글랜드 및 그에 속하는 모든 영토의 국민은 앞으로 자유 공화국의 국민임을 확정하는 바이다. 또한, 이들 국민은 앞으로 자유 공화국인 이 나라에서 최고 권위를 지닌 의회에 국민의 대표로 파견된 사람들과,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관리 및 행정가로서 임명된 사람들에 의해서 통치되며, 국왕이나 상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04. 크롬웰(1599 ~ 1658)의 정치

- 왕당파의 거점에 대한 원정 단행 → **아일랜드(1649), 스코틀랜드(1650)**
- 중상주의 정책을 반영한 **항해법(= 항해조례) 제정(1651)** → 네덜란드와 전쟁 발발
- **의회 해산(상원 해산, 하원 의원들의 임명직 전환)**, 성문 헌법인 『통치 헌장』 제정
- **호국경(Lord Protector) 취임(1653)**
: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세 나라를 통치
- 청교도에 입각한 금욕적 독재 정치 실시
: 금주령, 극장 폐쇄, 도박·경마 금지, 예배 참석 의무화



〈크롬웰〉

영국 혁명

[★ 명예혁명(1688 ~ 1689)]

01. 혁명의 배경

- 찰스 2세(재위 1660 ~ 1685)
 - : 프랑스 망명(1646)
 - : 스코틀랜드 의회에 의해 왕으로 선언됨(1649)
 - : 우스터에서 크롬웰 군대에 대패(1651)
 - : 크롬웰 사후(1658) 의회의 왕정복고 결정에 따라 즉위(1660)
 - : 청교도 혁명의 성과를 인정했지만 신앙의 자유를 명분으로 가톨릭교도 우대 정치 실시
 - ↳ 의회의 심사법(1673 ~ 1828, 비국교도의 공직 취임 금지), 인신보호법(1675) 제정
- 의회의 구분(1678 ~ 1681)
 - : 토리당[국왕 옹호, 국교회 지지, 유적(流賊), → 보수당]
 - : 휘그당[로크의 정치 이론에 영향, 입헌군주제, 의회 존중, 폭도(暴徒), → 자유당]
 - : 휘그당의 의회 장악
- 제임스 2세(재위 1685 ~ 1688)
 - : 전제 정치 강화
 - : 친(親)가톨릭 정책 추진
 - ↳ 심사법 무시 → 비국교도의 공직 임명



〈찰스 2세의 즉위〉

▣ 토리당(Tory Party)과 휘그당(Whig Party)

찰스 2세가 자신의 동생 요크 공작 제임스(후일 제임스 2세)를 차기 왕으로 세우려 하자 의회는 요크 공의 왕위 계승을 지지하는 세력(토리)과 반대하는 세력(휘그)으로 나뉘었다. 이후 토리와 휘그는 일종의 여당과 야당을 형성하면서 토리는 보수당으로 휘그 세력은 자유당으로 이름을 바꾸어 19세기 영국 의회 정치를 이끌었다.

02. 혁명의 전개

- ① 의회의 제임스 2세 폐위(1688)
- ② 제임스 2세의 딸인 메리 공주와 그녀의 남편인 윌리엄을 공동 왕으로 추대
- ③ 메리 2세(재위 1689 ~ 1694), 윌리엄 3세(재위 1689 ~ 1702)
- ④ 의회가 제출한 『권리장전』 승인(1689)



〈권리장전을 승인하는 메리와 윌리엄〉

03. 혁명의 결과

- 의회 중심의 입헌 군주제 토대 마련
- 앤 여왕(재위 1702 ~ 1714)
 - : 에스파냐와의 전쟁에서 승리
 - : 스코틀랜드를 병합하여 대영 제국 수립(1707)
- 조지 1세(재위 1714 ~ 1727, 영어 NO!)
 - : 독일 하노버 가(家) 출신
 - : 하노버 왕조(1714 ~ 1901) 개창
 - :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
 - ↳ 의회 중심, 내각 책임제의 정치 전통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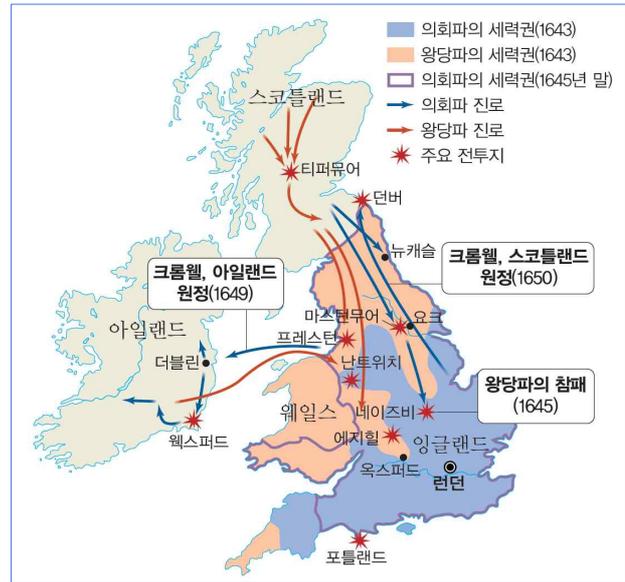
▣ 내각 책임제

의회의 다수를 차지한 정당이 행정 조직적인 내각을 구성하는 정치 체제이다.



■ 권리청원(1628)

현재 의회에 소집된 성직자, 귀족, 평민은 지극히 높으신 국왕 폐하께 다음과 같이 탄원한다.
 제1조 …… 폐하의 신민은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동의한 것이 아니면 어떠한 세금, 차입금, 기부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부조금을 내도록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를 누린다.
 제3조 …… 누구도 적법한 판결과 국법에 따르지 않고서 함부로 체포·구속되지 않는다. 자유인은 소유권과 특권 및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관습을 침해당하거나, 법의 보호 밖에 방치되고 추방되는 …… 일이 없다.



<청교도 혁명의 전개 과정>

■ 항해법(1651 ~ 1849)

아시아·아프리카의 각 지역과 각각에 부속된 섬, 각 대륙의 일반 지도에 기재되어 있는 각 섬, 잉글랜드와 기타 제국의 식민지 - 이상의 전 지역에서 자라고, 생산되고, 제조된 물자들이, 잉글랜드 공화국과 아일랜드 본국과 여러 속령에서 수입하는 경우, 본 공화국이나 식민지의 국민이 정식 선주로 소유한 배로만 하며, 다른 어떠한 배로도 수입할 수 없다.

■ 권리장전(1689)

종교와 법과 자유가 전복되는 위험에 다시 처하지 않도록, 국민의 완벽하고 자유로운 대표로서 모인 성직자, 귀족, 평민들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들의 옛 권리와 자유를 옹호하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제1조 국왕은 의회의 동의 없이 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법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력이 있다는 주장은 위법이다.
 제4조 국왕이 의회의 승인 없이 의회가 승인하는 것보다 장기간에 걸쳐, 또 의회가 승인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왕이 쓰기 위한 금전을 징수하는 것은 위법이다.
 제6조 의회의 동의가 없는 한, 평화 시에 왕국 내에서 상비군을 징집하거나 유지하는 것은 위법이다.
 제8조 의원의 선거는 자유롭지 않으면 안 된다.
 제9조 의회 내에서 연설하고, 토론하거나, 의사 진행한 것으로 의회 이외의 법정이나 장소에서 고발당하거나 심문받지 않는다.

개념 Check

- ① 찰스 1세가 의회의 승인 없이 과세하고 청교도를 탄압하자, 의회는 ()을 제출하였다.
- ② 크롬웰은 1653년 ()에 취임하여 청교도주의에 입각한 금욕적인 독재 정치를 펼쳤다.
- ③ 찰스 2세가 가톨릭교도를 우대하자 의회는 비국교도의 공직 취임을 금지하는 ()을 제정하였다.
- ④ ()으로 공동 왕으로 즉위한 메리와 윌리엄은 ()을 승인하였다.

유형 CHECK!!

01

밀줄 친 ‘대립’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2-수능]

친구여,
 잘 지내고 있는가? 요즘 런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전하고자 글을 쓰네. 이곳의 상황은 날로 어수선해지고 있다네. 자네도 알다시피 20여 년 전 선왕의 즉위와 함께 왕정복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선왕은 의회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정책을 펼쳤지만, 의회가 심사법 등을 제정하자 결국 이를 수용했었지. 그런데 지금의 국왕은 그렇지가 않다네. 의회를 무시하고 선왕 시절 제정된 그 법령들을 폐지하려고 한다네. 그동안 공직에 취임하는 자는 방과 포도주가 각각 예수의 몸과 피로 바뀐다는 화체설 교리를 부정하는 선서를 해 왔는데, 이제 그걸 없애겠다는 거야. 지난 11월에는 의회를 휴회하는 명령을 내리고, 선서를 하지 않은 자들을 관료로 임용했다는군. 국왕과 의회의 대립이 더 심해지는 듯하여 걱정이라네. 멀리 있는 자네에게 실란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 미안하네. 아무쪼록 건강하시게.
 멀리서 벗이

- ① 스튜어트 왕조가 개창되었다.
- ② 크롬웰이 호국경에 취임하였다.
- ③ 헨리 8세가 수장법을 발표하였다.
- ④ 찰스 1세가 권리 청원을 승인하였다.
- ⑤ 메리와 윌리엄이 공동 왕으로 추대되었다.

03

(기) 국왕의 재위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020-6월 모의평가]

국왕의 권한과 왕위는 부친이 사망하는 시점에 선언의 예식 없이도 이양되는 것이다. 충성스러운 상·하원의 의원들은 오랜 기간의 무력 충돌과 참극으로 인해 이제야 선언의 예식을 거행하면서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우리의 주권자 (가)이(가) 서거하였을 때, 그가 보유하고 있던 잉글랜드와 모든 왕국들의 왕위와 주권, 그리고 권리는 혈통에 의한 적법한 계승 절차를 거쳐 찰스 2세에게 부여될 것이다.

- ① 심사법이 제정되었다.
- ② 항해법이 폐지되었다.
- ③ 명예혁명이 일어났다.
- ④ 토리당과 휘그당이 대립하였다.
- ⑤ 의회가 권리청원을 제출하였다.

02

(기)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2-6월 모의평가]



의회파 지도자 (가)에 대하여 말해 보자.
 왕당파와의 내전에서 승리하고 찰스 1세를 처형하여 공화정 수립에 기여했지.
 집권 후에는 의회를 해산하고 청교도주의에 입각한 독재 정치로 국민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어.

- ① 항해법을 공포하였다.
- ② 파리 코뮌을 진압하였다.
- ③ 대륙 봉쇄령을 선포하였다.
- ④ 테르미도르의 반동으로 실각하였다.
- ⑤ 심사법과 인신보호법 제정을 주도하였다.

미국 혁명

[★미국의 독립 혁명(1773 ~ 1783)]

01. 혁명 전의 북아메리카

- 17세기 신앙의 자유와 경제의 기회를 찾아 많은 영국인들이 이주 : 버지니아(영국이 미국에 세운 최초의 식민지, 1607)
- 18세기 초 동부 해안에 13개의 식민지 형성
 - : 영국 총독 파견
 - : 독자적 의회 구성 등 광범위한 자치권 행사
- 로크의 자연권 사상과 사회계약설, 루소의 계몽사상 유행



〈메이플라워호 서약(1620)〉

02. 혁명의 배경

- 영국의 식민지 정책 변화
 - : 프렌치·인디언 전쟁(⇔ 프랑스, 7년 전쟁, 1754 ~ 1763)으로 재정난 심화
 - : 인지세, 타운센드 법(종이·유리·차 등에 대한 수입세 신설, 1767 ~ 1770) 등 각종 세금 부과
 - : 식민지 무역 활동 통제 등 중상주의 정책 강화
- 식민지 주민의 조직적인 납세 거부 운동 전개(1765)
 - :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
 - : 차(茶)세만 남기고 철회

▣ 인지세법(1765)

영국이 북아메리카 식민지에서 발행하는 상업 및 법률 서류, 신문, 팸플릿, 카드, 달력 등에 1파운드의 세금을 부과하던 법이다.

03. 혁명의 전개

- ① 보스턴 차(茶) 사건(1773)
 - 영국 동인도 회사 소속 선박 습격
 - 영국 정부가 보스턴 항을 폐쇄하며 강경 조치
- ② 필라델피아 제1차 대륙 회의(1774)
 - 식민지 대표들이 모여 본국에 항의
 - 영국의 입법권 부정, 영국 상품 불매 등을 결의하는 선언문 발표



〈보스턴 차(茶) 사건〉

1. (북아메리카에 위치한 영국) 식민지 주민은 생명·자유·재산을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이들은 어떠한 주권적 권력에도 자신들의 동의 없이 상기 권리를 양도한 일이 전혀 없다. ……
4. 영국 정부의 기반은 인민이 입법 회의에 참가하는 권리에 있다. 또 영국의 식민지인은 영국 의회에 대표를 보내지 않고, 지역적 상황과 그 밖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표를 보낼 수도 없기 때문에 각각의 식민지에 설치한 입법 기관에서 자유롭게 독립적인 입법권을 부여받고 있다.

③ 렉싱턴 전투(1775)

- 영국군과 식민지 민병대의 충돌

[★미국의 독립 혁명(1773 ~ 1783)]

03. 혁명의 전개

④ 필라델피아 제2차 대륙 회의(1775 ~ 1781)

- 대륙군 창설, 워싱턴(1732 ~ 1799)을 총사령관으로 임명
- 토마스 페인(1737 ~ 1809), 『상식』 발표(1776. 1월)

아메리카는 지금까지 영국과 결합해서 번영해 왔으니 앞으로도 계속 결합해야 한다는 주장을 들은 적이 있다. 이런 주장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 영국은 조국이 아닌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영국의 행동은 더욱 부끄러운 것이다. 짐승도 자기 자식을 잡아먹지는 않는다. 영국과 결합함으로써 당하는 손해와 불이익을 셀 수 없을 정도이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물론, 인류 전체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하려면 이 제휴를 중지해야 한다. 피해자의 피가, 자연의 흐느낌 소리가, 이제는 영국에서 떨어져 나와야 할 때라고 외치고 있다. ……

- 독립 선언문 공포(1776. 7월 4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분명한 진리로 믿는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그들은 참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부여받았고, 그 권리 중에는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를 수립하였으며,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국민의 동의에서 발생한다. 어떠한 형태의 정부라도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언제든지 그 정부를 바꾸거나 없애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잘 이룩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이다.

⑤ 독립 전쟁

- 초반 열세 ⇨ 새러토가 전투(Battles of Saratoga, 1777. 9월) ⇨ 전세 역전
- 프랑스, 영국에 선전포고(1778. 6월)
- 에스파냐, 네덜란드, 러시아, 스웨덴 등 열강의 식민지 지원
- 요크타운 전투(1781) 승리
- 파리 조약(1783)으로 독립 승인 → 13개 공화국 성립

제1조 영국 국왕 폐하는 미합중국, 즉 뉴햄프셔, 매사추세츠만(灣) …… 으로 구성된 연합 국가가 자유로운 주권 국가이자 독립 국가임을 인정한다.

제7조 영국 국왕 폐하와 미합중국, 그리고 영국 신민과 미합중국 시민 사이에 영원한 평화 상태를 실현하기 위해 …… 모든 전투 행위를 중지한다.

04. 아메리카 합중국 성립(1789)

- 연방 헌법 제정(필라델피아 연방 회의, 1787)
: 연방주의, 삼권 분립, 공화주의에 입각, 13개 주(州) 성립
- 워싱턴을 연방 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1789)

05. 혁명의 의의

- 프랑스 혁명에 영향
- 라틴 아메리카 식민지 독립 운동에 영향

개념 Che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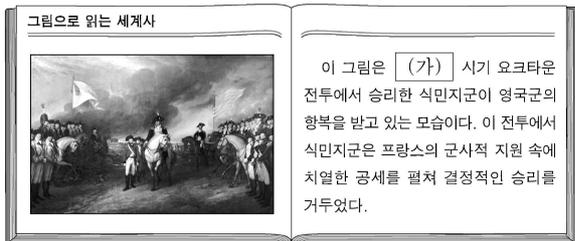
- ① 영국의 중상주의 정책에 반발하여 식민지인들이 1773년에 ()을 일으키자, 보스턴 항이 폐쇄 되는 등 긴장이 고조되었다.
- ② 필라델피아 제2차 대륙 회의에서 발표된 미국의 ()은 민주주의의 제반 원칙을 담고 있다.
- ③ 1781년 () 전투 승리 이후 북아메리카 식민지인들은 () 조약으로 독립을 승인받았다.
- ④ 독립 전쟁 이후 북아메리카의 13개 주는 물가 폭등 등의 사회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삼권 분립에 바탕을 둔 ()을 제정하여 연방 정부를 수립하였다.
- ⑤ 독립 전쟁 당시 총사령관이었던 ()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유형 CHECK!!

01

(가) 혁명의 결과로 옳은 것은?

[2021-6월 모의평가]



- ① 항해법이 제정되었다.
- ② 보스턴 차 사건이 발생하였다.
- ③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되었다.
- ④ 아우크스부르크 회의가 이루어졌다.
- ⑤ 연방주의에 기초한 공화국이 탄생하였다.

02

(가), (나) 문서기 작성된 시기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020-9월 모의평가]

- (가) 영국 의회는 아래 세금들을 징수하기로 하였다. 아메리카 식민지 법정에 제출하는 진술서, 소장, 답변서, 이의 신청서 등의 문서에 인지세 3펜스를 부과한다. …… 신문, 잡지, 소책자 등에 실린 각각의 광고에 2실링을 부과한다.
- (나)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그들은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고, 그중에는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 선량한 식민지 주민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 식민지 연합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가이며 그럴 권리가 있음을 엄숙히 선언한다.

<보기>

- ㄱ. 렉싱턴 전투가 발생하였다.
- ㄴ.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났다.
- ㄷ. 영국이 7년 전쟁에서 프랑스와 싸웠다.
- ㄹ.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프랑스 대혁명(1789 ~ 1799)

01. 혁명 전의 프랑스

- 구제도(Ancien regime)의 모순(0.5% : 1.5% : 98%)
- 계몽사상의 확산
: 시민으로서의 자유와 권리 추구
- 재정 적자 심화
: 미국 독립 전쟁 지원(영국에 선전포고, 1778)
: 왕실의 사치 생활



〈구제도의 모순〉

02-1. ★혁명의 전개

① 루이 16세(재위 1774 ~ 1792), 삼부회 소집(1614년 이후 처음 소집, 1789. 5월 5일)

- 성직자, 귀족에게 과세하는 재정 개혁 시도
: 제1 신분(291명), 제2 신분(285명), 제3 신분 대표(578명)
: 표결 방식을 둘러싼 각 신분 대표들 간의 대립(제3 신분 대표들은 머릿수 표결 주장) → 결렬

② 국민 의회(1789. 6월 ~ 1791. 10월)

- 제3 신분 대표들이 헌법 제정, 질서 회복 등을 담은 ‘테니스 코트의 서약’ 발표(1789. 6월 20일)
- 국왕의 국민 의회 탄압
- 바스티유 감옥 습격으로 혁명 발발(화약 확보, 1789. 7월 14일)
: 콩코르드 다리(Pont de la Concorde) 건설
- 혁명의 지방 확산 → 농민들의 귀족 공격, 장원 문서 소각
- 봉건적 특권의 폐지 선언(1789. 8월 4일)
-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인권 선언, 1789. 8월 26일) 채택
: 라파예트(1757 ~ 1834) 기초
: 자유와 평등, 저항권, 국민 주권의 원리, 법 앞에서의 평등, 소유권의 신성함 등 천명
- 베르사유 대행진(1789. 10월 5일)
: 부녀자 중심의 민중 주도, 루이 16세를 파리 툴리리(Les Tuileries) 궁전으로 데리고 와 감시
- 교회 재산 몰수, 길드 폐지, 행정 구역 개편 등 개혁 단행
- 바렌스 사건(Affair Varennes, = 바렌 도주 사건, 1791. 6월 20일)
- 입헌 군주제와 재산에 따른 제한 선거제에 기초한 새 헌법 제정(1791. 9월)

▣ 『8월 법령』 제1조

봉건제를 완전히 폐지한다. 인신 예속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무상으로 폐지된다. 그 밖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유상 폐지의 대상이다. 이 법령으로 폐지되지 않는 권리와 의무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불할 때까지 지속된다.

③ 입법 의회 소집(1791. 10월 ~ 1792. 9월)

- 지롱드파(부르주아의 지지)의 주도권 장악
- 혁명전쟁 발발(1792. 4월)
: 오스트리아·프로이센의 군사적 위협
: 지롱드파, 오스트리아에 선전 포고
: 젊은 의용군의 파리 집결, ‘라 마르세예즈(La Marseillaise)’
: 발미 전투(Bataille de Valmy, 괴테 從軍, 1792. 9월 20일)

▣ 지롱드파(Girondins)

입법 의회 시기 정국을 주도한 온건파로 재산권을 옹호하면서 통제 경제를 반대하였다. 원래 국민 의회 결성 당시에는 좌파였던 자코뱅파(Jacobins)에 속해 있다가 온건한 입장을 취하며 갈려져 나왔다.

프랑스 대혁명(1789 ~ 1799)

02-2. ★혁명의 전개

① 1792. 8월 10일의 혁명

- 식량 부족으로 파리 민중(상퀼로트, sans-culotte)의 킬트리 왕궁 습격
: 왕권 정치, 입법 의회의 루이 16세 퇴위 공표(1792. 8월)



〈상퀼로트〉

② 국민 공회 수립(1792. 9월 21일)

- 군주제 폐지, 공화정 선포(제1 공화정, 1792. 9월 22일)

열흘 전 왕정이 폐지되었다. 성직자도 귀족도 사라지고 평등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자기들만을 위한 공화국을 세워 부자와 관리의 이익을 위해 통치하려는 사이비 애국자와 국민 전체의 이익과 평등을 위하여 공화국을 건설하려고 애쓰는 진짜 애국자를 구별하라. - 로베스피에르, 『유권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 자코뱅파(Jacobins, = 급진파·산악파)의 정권 장악(당통·마라·로베스피에르, 1792. 12월)
- 루이 16세 처형(1793. 1월 21일)
- 영국,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등 제1차 대프랑스 동맹 결성
- 혁명 재판소 설치(1793. 3월 10일), 공안위원회 설치(1793. 4월 6일), 마라의 죽음(1793. 7월)
- 자코뱅헌법 제정(공화제·보통 선거제 등 규정, 1793. 8월 19일)
- 물가 급등, 생필품 부족 → 최고 가격제 등 통제 경제 정책 실시(1793. 9월 26일)

③ 공포 정치(1793. 9월 ~)

- 자코뱅파(공화정 지지, 중소 시민·농민과 결합)의 에베르와 로베스피에르(1758 ~ 1794) 주도
- 마리 앙투아네트 처형(1793. 10월 16일), 당통 처형(1794. 4월 4일) 등 반혁명 세력 제거
- 봉건적 공납의 무상 폐지, 토지 분배, 징병제 도입, 의무 교육 실시 등 급진적 개혁 추진

④ 테르미도르의 반동(혁명력의 11월, 1794. 7월 27일)

- 바라스, 탈리앙, 프레롱 등 온건 공화파 주도의 쿠데타
- 로베스피에르 처형



〈테르미도르의 반동〉

⑤ 총재 정부 구성(1795. 10월 ~ 1799. 11월)

- 폴 바라스 등 5명의 총재가 행정을 담당하는 집단 지도 체제
- 재정난 극복을 위한 대외 팽창 정책 실시
: 나폴레옹(1769 ~ 1821)의 이탈리아(1796), 이집트 원정(1798)
: 제2차 대프랑스 동맹 결성(1799)

⑥ 나폴레옹의 브뤼메르 18일의 쿠데타(안개의 달, 1799. 11월)

- 총재 정부를 무너뜨리고 통령 정부 수립 → 프랑스 혁명 일단락, 나폴레옹의 제1 통령 취임

03. 혁명의 의의

- 봉건적 신분제를 타파하고 시민 사회와 자본주의 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
- 자유, 평등, 우애(박애)의 혁명 이념 → 노예제 폐지 선언, 세계 민주주의 발전에 영향



■ 『제3 신분이란 무엇인가(1789)』

제3 신분은 무엇인가? 전체이다. 그러나 족쇄가 채워지고 억압받고 있는 전체일 뿐이다. 특권 신분이 없다면 무엇이 될까? 전체, 그러나 자유롭고 건강한 전체가 될 것이다. 이들이 없다면 되는 일이 아무 것도 없을 것이다. …… 그러므로 제3 신분은 국민에게 속한 전체를 포괄한다. 그리고 제3 신분이 아닌 모든 것은 국민에게 속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제3 신분은 무엇인가? 전체이다.

- 시에예스(1748 ~ 1836)

■ 프랑스의 혁명 전야

(1789년) 7월 12일, 나는 마침 한 불쌍한 여자와 함께 가게 되었다. 그녀는 시국을 한탄하면서 나라꼴이 비참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우리는 겨우 한 뼘밖에 안 되는 토지에다 소 한 마리와 비쩍 마른 망아지 한 마리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주 한 사람에게 밀 1프랑샤르(약 19kg)와 암탉 세 마리를 지대로 바쳐야 하고, 또한 사람의 영주에게는 밀 4프랑샤르(약 76kg)와 암탉 한 마리와 1수의 돈을 바쳐야 합니다. 이 밖에도 무거운 인두세와 공납이 있지요. …… 인두세니, 봉건적 권리니 하는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 아서 영(1741 ~ 1820), 『프랑스 여행기』(1792)

■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인권 선언, 1789. 8. 26.)』

제1조 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평등한 권리를 갖고 태어났으며 늘 그렇게 살아간다. 따라서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가 아니면 사회적 차별을 둘 수 없다.

제2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그 무엇도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자연권을 보전하는 데 있다. 그 권리는 자유, 재산, 안전 및 압제에 대한 저항이다.

제3조 모든 주권의 근원은 본질적으로 인민에게 있다. 어떤 집단이나 개인을 막론하고 인민으로부터 직접 유래하지 않은 권한은 행사할 수 없다.

제6조 법은 일반 의지의 표현이다. 모든 시민은 직접 또는 대표자를 통해 법의 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법은 보호하는 경우든 처벌을 가하는 경우든 모든 사람에게 똑같다.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능력, 덕성과 재능에 따른 차별 이외에는 공적인 위계, 지위, 직업 등에 평등하게 취임할 수 있다.

……

제17조 소유권은 그 무엇도 침해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이므로 공적인 필요성이 명백히 존재하며 그것이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또 미리 적당한 보상을 제시한 경우가 아니면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 프랑스 혁명기 정치 구조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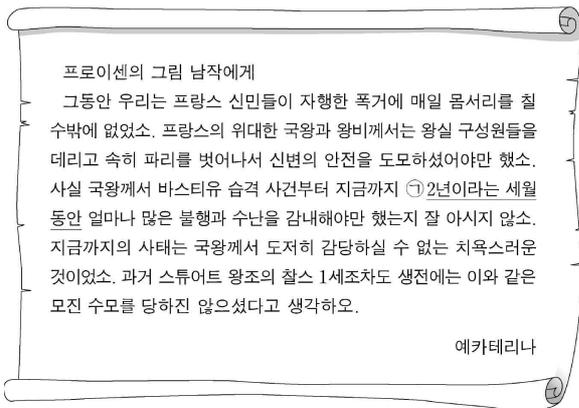
개념 Check

- ① 루이 16세가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를 소집하였으나, 제3 신분은 기존의 신분별 표결 방식을 거부하고 머릿수 표결을 주장하였다.
- ② ()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인권 선언)’을 발표하여 혁명의 이념을 천명하였다.
- ③ ()년 8월 자코뱅파는 공화제와 보통 선거제에 기초한 헌법을 제정하였다.
- ④ 로베스피에르(1758 ~ 1794)는 혁명 재판소와 공안 위원회를 강화하는 등 ()를 실시하였다.
- ⑤ 테르미도르의 반동으로 로베스피에르를 타도한 온건파 의원들은 공화제와 선거제를 규정한 헌법을 제정하고 5인의 ()를 수립하였다.

유형 CHECK!!

01

밑줄 친 ㉠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인 것은?[2022-9월 모의평가]



- ① 반혁명 세력을 색출하는 공안 위원회 위원
- ② 단두대에서 처형되는 루이 16세를 바라보는 시민
- ③ 새로 구성된 국민 공회에 참석하는 자코뱅파 인사
- ④ 프로이센 등에 맞서 혁명전쟁에 나서는 프랑스 병사
- ⑤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인권 선언)을 발표하는 의회 의원

02

(가), (나) 문서가 작성된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2020-수능]

(가) 봉건제를 완전히 폐지한다. …… 인신 예속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무상으로 폐지된다. 그 밖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유상 폐지의 대상이다. …… 이 법령으로 폐지되지 않는 권리와 의무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불할 때까지 지속된다.

- 『8월 법령』제1조

(나) 열흘 전 왕정이 폐지되었다. 성직자도 귀족도 사라지고 평등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자기를 위한 공화국을 세워 부자와 관리의 이익을 위해 통치하려는 사이비 애국자와 국민 전체의 이익과 평등을 위하여 공화국을 건설하려고 애쓰는 진짜 애국자를 구별하라.

- 로베스피에르, 『유권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 ① 바스티유가 함락되었다.
- ② 입법 의회가 소집되었다.
- ③ 루이 16세가 처형되었다.
- ④ 공안위원회가 설치되었다.
- ⑤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 이루어졌다.

나폴레옹 시대(1799 ~ 1815)

[나폴레옹의 집권과 유럽 제패]

01. **통령 정부**[베토벤의 교향곡 3번 『에로이카(영웅)』(1803), 1799 ~ 1804]

- 혁명의 성과를 보존하며 군사·정치적 측면 강화
- **프랑스 은행** 설립(1800) → 국가 재정의 안정 도모
- **대프랑스 동맹 와해**
: 튀네빌 화약(마렝고 전투, 오스트리아 격파, 1801), **아미앵 조약** 체결(~ 영국, 1802)
- 『**나폴레옹 법전**』 편찬(1804)
: 법 앞에 평등, 사유 재산권 존중 등 시민 사회의 새로운 규범 제시
- 국민 교육 제도 정비

02. **제1 제정(1804 ~ 1815)**

- 국민 투표를 통해 황제 즉위(나폴레옹 1세)
- 제3차 대프랑스 동맹 결성(1805. 8월)



〈노트르담 대성당, 나폴레옹의 대관식〉

03. **유럽 제패 시도와 몰락(1805 ~ 18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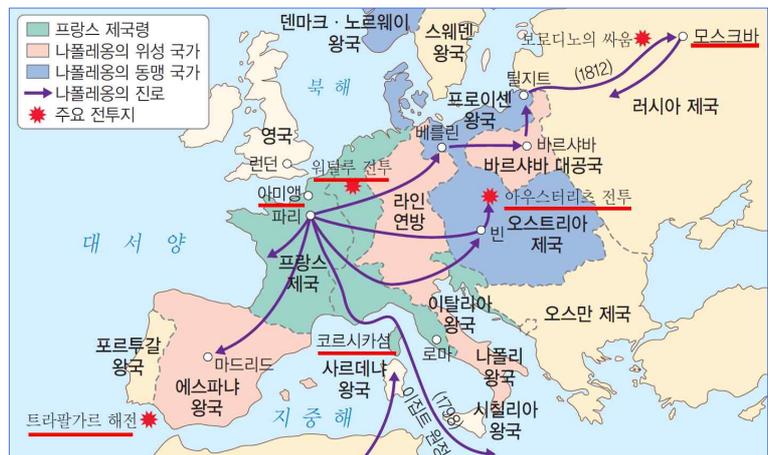
- **트라팔가르 해전 패배**(⇔ 영국, 넬슨 제독, 1805. 10월)
- **아우스터리츠 전투 승리**(⇔ 오스트리아·프로이센·러시아, 1805. 12월)
- **신성 로마 제국 해체(1806)** ⇔ 라인 동맹 결성(Rheinbund, 1806. 7월)
- **대륙 봉쇄령** → 틸지트 조약(프랑스 ~ 프로이센, 1807)
: 영국과의 통상 금지, 프랑스의 상품 시장 확대
: 영국의 상품이 밀수입 되어 대륙 국가의 고통 증가
- **모스크바 원정(1812. 5월)**
: 러시아가 대륙 봉쇄령을 무시하고 영국과 통상 지속
: 원정 실패 → 제4차 대프랑스 동맹 결성
- **라이프치히 전투 패배**(1813. 10월)
: 엘바 섬 유배(1814. 5월)
- 엘바 섬 탈출(1815. 2월)
- **워털루 전투 패배**(1815. 6월)
: 영국·프로이센 연합에 패배
: 세인트헬레나 섬 유배

■ 대륙 봉쇄령[베를린(1806) ⇨ 밀라노(1807)]

1. 영국 여러 섬에 대한 봉쇄를 선포한다.
2. 영국과의 모든 교역과 서신 왕래를 금지한다.
3. 모든 영국민은 신분과 조건을 막론하고 우리와 동맹국의 군대에 의해 점령된 지역에서 발견되는 즉시 전쟁 포로가 될 것이다.
4. 영국민의 창고와 상품은 합법적인 전리품으로 간주된다.

04. 나폴레옹 시대의 역사적 의의

- 프랑스 혁명 이념의 전파
: **자유주의 이념 확산**
- 프랑스의 침략에 대한 저항 의식
: **유럽 각국의 민족주의 고양**
: 피히테, 『독일 국민에게 고함』(1806)



〈나폴레옹 시대의 유럽 정세〉

개념 Check

- ① () 시기 나폴레옹은 1800년 프랑스 은행을 설립하고, 1804년 『나폴레옹 법전』을 편찬하였다.
- ② 나폴레옹 군대는 대프랑스 동맹을 주도한 영국에 맞서 () 해전을 치렀으나 패배하였다.
- ③ ()년 나폴레옹은 오스트리아와 러시아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신성 로마 제국을 해체시켰다.
- ④ 나폴레옹은 영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을 발표하였고, 1812년 이를 위반하는 러시아를 원정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유형 CHECK!!

01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1-4월 익력평가]

프랑스의 제1 제정을 수립한 (가)은(는) 신성 로마 제국을 해체시키고, 에스파냐 왕실을 장악하였다. (가)의 침략에 반발한 에스파냐인은 봉기하였고, 프랑스 군대는 에스파냐 민중을 처형하며 보복하였다. 화가 고야는 당시의 이러한 참상을 그림으로 남겼다.



- ① 빈 체제를 주도하였다.
- ② 대륙 봉쇄령을 공포하였다.
- ③ 아도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 ④ 데카브리스트의 난을 진압하였다.
- ⑤ 테르미도르의 반동으로 몰락하였다.

02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0-수능원성 변형]

“카이사르가 등장할 것이다.”

로베스피에르의 예언은 적중하였다. 로베스피에르 처형 이후 수립된 정부를 브뤼메르의 쿠데타로 무너뜨린 그는 제1 통령에 취임하였다. 이후 새로운 헌법을 통해서 종신 통령이 되었으며 다시 국민 투표에 의해 황제로 즉위하였다. 황제가 된 이후 그는 (가)을

- ① 프랑스 은행을 설립하였다.
- ② 러시아 원정을 단행하였다.
- ③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하였다.
- ④ 라인 동맹(Rheinbund)을 결성하였다.
- ⑤ 영국을 겨냥해 대륙 봉쇄령을 내렸다.

▣ 나폴레옹에 대한 평가

• 나는 얼마 전 프로이센의 부패한 관료 제도를 파괴하고 있는 나폴레옹을 보고 ‘살아 있는 세계정신’이라며 감격한 바 있다. 보편적인 프랑스 혁명을 전파하는 그의 앞길에 영광이 있으라.

- 헤겔(1770 ~ 1831)

• 지금 독일은 나폴레옹군의 침략을 받아 나라에 빠져 있다. 나폴레옹은 그가 가진 이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다른 나라의 주권과 자유를 짓밟는 침략자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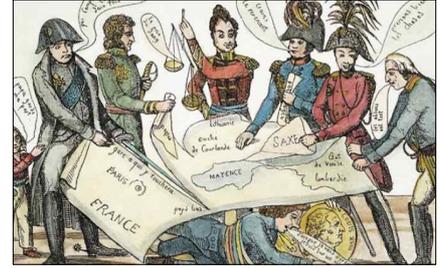
- 피히테(1762 ~ 1814)

빈 체제의 성립

[빈 회의와 빈 체제]

01. 빈 회의(1814. 9월 ~ 1815. 6월)

- 오스트리아의 재상 메테르니히(1773 ~ 1859) 주도
- 오스트리아, 영국, 프로이센, 러시아, 프랑스 등 5개국 중심
- 나폴레옹 전쟁의 전후 질서 협의
- : 회의는 출춘다. 그러나 진전은 없다.
- 유럽 각국의 지배권과 영토를 프랑스 혁명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기로 결정



<빈 회의의 풍자화>

02. 빈 체제 특징과 유지 노력

- 정통성의 원칙, 복고주의
- : 유럽 각국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 탄압
- 신성 동맹(1815)
- : 알렉산드르 1세(재위 1801 ~ 1825) 주도
- : 러시아 · 오스트리아 · 프로이센
- 4국 동맹(오스트리아 · 러시아 · 프로이센 · 영국, 1815)
- 5국 동맹(4국 동맹 + 프랑스, 1818)

▣ 부르센샤프트(1815. 6월)

나폴레옹 군과의 전쟁에 의용병으로 참가했다가 돌아온 대학생들이 예나 대학에서 결성한 학생 동맹으로, '젊은이들의 모임'을 뜻한다. 명예·자유·조국을 기치로 내걸고 모든 학생의 단결을 지향하였으며, 각 대학으로 퍼져 나갔다.

[★빈 체제에 대한 저항]

01. 자유주의 운동

독일	• <u>학생 조합 부르센샤프트(Burschenschaft)</u> 결성(1815)
이탈리아	• <u>카르보나리당(1806, 1820 ~ 1821 · 1831)</u> , 청년 이탈리아당(마치니, 1831)의 혁명 운동
러시아	• <u>데카브리스트(Dekabrist)의 난(1825)</u> : 12월의 당원, 청년 장교들의 쿠데타 → 농노 해방, 입헌 군주제 헌법 제정 등 주장 : <u>니콜라이 1세</u> (재위 1825 ~ 1855)의 <u>진압</u>

02. 민족주의 운동

그리스	• 독립 전쟁(↔ 오스만 제국, 1821 ~ 1829) • <u>영국과 프랑스 및 러시아 정부의 지원</u> , 낭만주의 사상가 등 지식인들의 지지 획득
라틴 아메리카	• 아이티 공화국 수립(from 프랑스, 1804) : 최초 독립, '검은 스파르타쿠스' 투생 루베르튀르(1743 ~ 1803) 주도 • <u>미국의 먼로 선언(1823)</u> : 미국의 유럽에 대한 불간섭 원칙, 유럽의 아메리카에 대한 불간섭 원칙 천명 :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 지지 • <u>에스파냐, 포르투갈로부터 독립 선언</u> • 크리오요(타틴아메리카에서 정착하거나 태어난 에스파냐인)의 활약 : 시몬 볼리바르(해방자, 1783 ~ 1830), 산마르틴(보호자, 1778 ~ 1850)



빈 조약(1815. 6월)

- 러시아는 바르샤바 대공국 대부분을 차지한다.
- 프로이센은 작센 지방 영토 5분의 3을 차지하며, 바르샤바 대공국의 일부(포젠 대공국), 단치히, 라인란트 등지를 얻는다.
- 옛 신성 로마 제국의 제후국을 정리하여 38개의 영방 국가를 모아 독일 연방을 창설한다. 연방의 의장은 오스트리아 황제가 맡는다.

빈 회의를 주도한 메테르니히는 유럽의 질서를 프랑스 혁명 전의 상태로 되돌리려 하였다. 회의에 참가한 유럽 각국의 대표들은 메테르니히의 정통·복고주의 원칙에 동의하면서도 현실적인 영토 문제에서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하여 나폴레옹 타도에 공헌한 정도를 감안하고, 한쪽에서 양보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그 대가를 보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프랑스, 에스파냐, 나폴리, 포르투갈 등에는 혁명 전의 왕실이 복귀하였으며, 오스트리아는 네덜란드를 포기하는 대신 이탈리아의 롬바르디아와 베네치아를 획득하였다. 러시아는 폴란드의 대부분을 획득하여 폴란드 왕국을 세우고 러시아 황제가 그 왕위를 겸하였다. 독일 지역에서는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등 38개국과 4개의 자유 도시로 구성된 독일 연방이 성립하였다.

먼로 선언(1823)

유럽 여러 나라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식민지나 속령에 대하여 우리는 아직 간섭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간섭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미 독립을 선언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 우리가 신중하게 고려한 끝에 그럴 만하다고 판단하여 그 독립을 승인한 정부에 대하여 유럽 열강이 이를 억압하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그 운명을 지배하려고 간섭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모두 미국에 대한 비우호적인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

유럽 각국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



개념 Check

- ① 나폴레옹 몰락 후 유럽의 질서를 수습하기 위해 ()의 주도로 ()가 열렸다.
- ② 빈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기구로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의 () 동맹과 오스트리아, 영국, 러시아, 프로이센의 4국 동맹이 결성되었다.
- ③ 1829년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던 ()는 빈 체제에 저항하는 독립 운동을 벌여 독립을 쟁취하였다.
- ④ 1825년 러시아의 자유주의 운동으로 ‘12월 당원’이 중심이 된 ()의 봉기가 일어나 입헌 군주제를 요구하였다.
- ⑤ 에스파냐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 운동을 미국은 ()을 통해 유럽의 아메리카에 대한 불간섭 원칙을 천명하였다.

유형 CHECK!!

01

밑줄 친 ‘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1-3월 익력평가]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로 1세께 전합니다.

우리는 프랑스에서 공화국이 성립되었고, 그 공화국이 결국은 좋은 군인의 통치에 복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정복 전쟁은 수많은 법률, 제도 및 관습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 사이의 신성한 유대를 깨뜨렸습니다. 위대한 군주는 상호 간의 연합을 강화함으로써 유럽의 정치적 평화를 보장합니다. 혁명의 재앙 아래 살아남은 국가들은 여전히 많은 구원의 기회를 갖고 있으며, 우리가 발표한 원칙을 위한 국가 간의 강력한 연합은 폭풍 같은 위기를 극복하게 할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외상 올림

- ① 테르미도르의 반동을 일으켰다.
- ② 북독일 연방의 결성을 가져왔다.
- ③ 루소의 사회 계약설에 토대를 두었다.
- ④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을 탄압하였다.
- ⑤ 사르데냐 왕국의 카보우르에게 지원을 받았다.

02

밑줄 친 ‘혁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0-9월 모의평가]

오스만의 압제에 짓눌려온 우리 국민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그 멍에를 깨부수기로 결의하고 국민 의회의 이름으로 독립을 선언한다. 4세기 동안 튀르크인들은 이성과 정의를 짓밟았고 우리는 분연히 무기를 들었다. 유럽 크리스티교도와 동등한 존재로서 문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희망하면서, 우리는 오스만 제국에 맞서 혁명에 나섰다.

……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도서 지역의 주민들은 혁명의 진전에 필수적인 헌법 체제를 마련할 준비를 하였다.

- ① 불리바르가 주도하였다.
- ② 러시아의 지원을 받았다.
- ③ 프랑스 2월 혁명의 영향을 받았다.
- ④ 제1차 발칸 전쟁의 결과로 일어났다.
- ⑤ 청년 튀르크당의 무장 봉기에 자극 받았다.

프랑스의 자유주의 운동

[★7월 혁명(1830. 7월 27일)]

01. 배경

- 빈 체제, 부르봉 왕조 부활, 루이 18세(재위 1815 ~ 1824)
- 샤를 10세(재위 1824 ~ 1830)의 보수적 전제 정치
: 7월 칙령(의회 해산, 선거권 제한, 언론·출판의 자유 억압, 1830)

02. 전개

- 파리 시민(부르주아)의 봉기
: 아돌프 티에르(Adolphe Thiers, 1797 ~ 1877)의 지도



〈들라크루아,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03. 결과

- 샤를 10세 추방 ⇨ 부르봉 왕조 붕괴 ⇨ 루이 필리프(Louis-Philippe)를 ‘시민의 왕’으로 추대
: 루이 필리프 1세(재위 1830 ~ 1848), 입헌 군주정 수립(7월 왕정)

04. 영향

- 벨기에 독립(from 네덜란드 연합 왕국, 1831), 폴란드 독립 운동
- 청년 이탈리아당 결성(마치니, 1831), 영국의 제1차 선거법 개정(1832)

[★2월 혁명(1848. 2월 22일)]

01. 배경

- 7월 왕정의 보수화(친부르주아 정책)
: 부유한 소수의 시민에게만 선거권 부여
- 1830년대 산업화로 사회주의 확산과 노동자들의 정치의식 성장

02. 전개

- 중하층 시민과 노동자 주도
: 기존 내각의 사임, 선거권 확대를 요구하며 봉기



〈호레이스 베르네, 수플로가(파리)의 시가전〉

03. 결과

- 루이 필리프 1세 추방 ⇨ 제2 공화정 수립 ⇨ 루이 나폴레옹(1808 ~ 1873)을 대통령으로 선출

04. 영향

- 오스트리아의 3월 혁명으로 메테르니히 실각과 영국 망명 → 빈 체제 붕괴
-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 활성화 → 대(大)청원 시위(런던, 1848)
- 독일 지역의 통일 문제와 헌법 제정 협의를 위한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 소집(1848 ~ 1849)
- 헝가리와 보헤미아의 독립 운동, 이탈리아의 통일 운동 고조

프랑스의 자유주의 운동

▣ 임시 정부가 프랑스 시민에게 내린 포고문

반동적인 과두 정부는 파리 민중의 영웅적인 행위로 물러났다. …… 임시 정부는 공화정을 바란다. …… 이제부터 정부는 모든 계급의 시민으로 이루어진 인민의 통일체이며, 인민에 의한 인민의 정부이다. 원리로 말하자면 ‘자유, 평등, 우애’ 이고 표어로는 ‘민중’ 이다. 여기에 프랑스가 의무감을 가지고 힘써 지키고 자 하는 민주 정부가 존재하는 것이다.

[제2 제정(1852 ~ 1870)]

01. 루이 나폴레옹의 집권 연장 쿠데타(1851. 12. 2)

- 의회 해산
- 헌법 개정의 국민투표 표결 ⇨ 10년 임기의 절대적 권력을 지닌 대통령
- 국민 투표로 제정 부활 승인(1852. 11. 21) ⇨ 황제 즉위(1852. 12. 2)

“어디선가, 헤겔은 세계사적으로 몹시 중요한 사건과 인물은 두 번 씩 나타난다고 썼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덧붙였어야 한다. 첫 번째는 비극으로, 두 번째에는 희극으로 나타난다고.”

“마침내 황제의 망토가 보나파르트의 어깨에 걸쳐지는 순간, 나폴레옹(나폴레옹 1세)의 동상은 방돔 기념주(Colonne Vendôme) 꼭대기에서 산산이 부서질 거라고, 나는 이 책의 마지막에 썼었다. 그것은 이제 현실이 되었다.”
- 칼 마르크스(1818 ~ 1883),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

02. 나폴레옹 3세(재위 1852 ~ 1870)의 정책

- 무역 장벽 철폐, 적극적인 산업화 추진
- 대외 팽창 정책
- : 크림 전쟁(1853 ~ 1856)
- : 제2차 아편 전쟁(1856 ~ 1860)
- : 프롱비에르 협정(~ 사르데냐 왕국, 1858)
- : 이탈리아 통일 전쟁(⇨ 오스트리아, 1859 ~ 1860)
- : 인도차이나 반도 점령(1862), 병인양요(1866), 수에즈 운하 건설(레쥬스, 1869)
- : 멕시코에 군사 개입(페르디난트 막시밀리안 초빙, 군주정 수립, 1863)
- : 프로이센 독립 전쟁(1870) 패배



〈나폴레옹 3세〉

[파리 코뮌(1871. 3 ~ 5월)]

01. 수립

- 프로이센 군대의 파리 포위 ⇨ 나폴레옹 3세의 몰락
- 노동자, 사회주의자 중심의 혁명적 자치 정부 수립 → 파리 코뮌(Paris Commune) 선언

02. 붕괴

- 프로이센의 지원을 받은 임시 정부의 제3 공화정 수립 ⇨ 파리 코뮌 무력 진압

영국의 자유주의 운동

[자유주의 개혁]

01. 특징

- 의회 주도, 점진적으로 추진

02. 종교적 차별 폐지

- 심사법 폐지(1828)
: 비국교도에게 공직 허용
- 가톨릭 해방법 제정(1829)
: 가톨릭교도에 대한 차별 철폐

03. 정치 개혁

- 선거법 개정 전 귀족과 젠트리(gentry)만 선거권 행사
- 선거법 개정

▣ 부패선거구

산업 혁명 당시 인구 이동으로 유권자의 수가 크게 줄었거나, 아예 지역 내 유권자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을 선출하던 선거구이다.

연도	개정 내용
제1차(1832)	• 부패 선거구 폐지, 산업자본가와 중산층에게 참정권 부여, 노동자들의 선거권 배제
제2차(1867)	• 도시 노동자, 소시민에게 참정권 부여
제3차(1884)	• 소작인, 농업 노동자, 광산 노동자 참정권 부여, 비밀 투표제 확립
제4차(1918)	• 남자 보통 선거권(만 21세 이상), 여자 제한 선거권(만 30세 이상)
제5차(1928)	• 남녀평등 보통 선거권(만 21세 이상)

- 차티스트 운동(Chartism, 1838 ~ 1848)

우리는 자유인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고, 우리는 자유인의 특권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성인 남자에게 의원 선거권을 부여할 것, 앞으로 있을 모든 의원 선거를 비밀 선거로 할 것, 그렇게 선출된 의원의 임기가 어떤 상황에서도 1년을 넘지 않도록 할 것, 피선거권자의 모든 재산 자격을 철폐할 것, 의원의 봉직 기간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것을 주장한다.

- 『인민 헌장(People's Charter)』, 1838

04. 자유주의 경제 개혁

- 곡물법 폐지(1846)

▣ 곡물법(1815 ~ 1846)

수입 곡물에 관세를 부과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지주 계급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 노동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었다.

외국산 밀을 비롯한 그 밖의 생산품 수입을 금지하며 국내 식료품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여러 법률로 인해 우리나라의 주요 제조업이 위기에 처해 있음을 엄숙히 선언하는 바이다. 이렇게 커다란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 모임은 이러한 모든 법률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폐기를 위해 노력을 쏟을 것을 굳게 맹세한다.

- 『반곡물법 동맹 창립 결의문』, 1838

- 항해법 폐지(1651 ~ 1849)

개념 Check

- ① 프랑스에서는 () 혁명으로 루이 필리프 1세의 7월 왕정이 무너지고 공화정(제2)이 수립되었다.
- ② 루이 나폴레옹의 황제 즉위로 시작된 제2 제정은 ()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붕괴되었다.
- ③ 프로이센 군대의 파리 포위 이후 노동자, 사회주의자 중심의 자치 정부인 ()이 수립되었다.
- ④ 영국 노동자들은 차티스트 운동을 전개하며 ()을 발표하였다.
- ⑤ 영국은 곡물법을 폐지하고 이후 항해법도 폐지하는 등 개혁을 통해 () 경제 체제를 확립하였다.

유형 CHECK!!

01

(가) 혁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2-6월 모의평가]



그림은 국민의 헌법 제정 요구를 군부에 의지해 막고 있는 프로이센의 국왕 빌헬름 4세를 풍자한 것이다. 파리의 중하층 시민과 노동자의 선거권 확대 요구로 일어난 (가)의 영향으로 독일 지역에서도 정치 개혁을 원하는 국민적 열망이 고조되었다.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는 루이 필리프를 폐위시킨 (가)의 파장이 자신의 나라에도 미칠 것을 두려워하였다.

- ① 그리스 독립의 배경이 되었다.
- ② 데카브리스트의 봉기를 촉발시켰다.
- ③ 신성 로마 제국의 해체로 이어졌다.
- ④ 메테르니히가 실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 ⑤ 카르보나리당(단) 결성에 영향을 주었다.

02

(기)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1-9월 모의평가]



왕정복고와 혁명이 교차하는 격동의 시대에 (기)은(는) 쿠데타로 독재 권력을 확립하고 황제에 즉위하였다. 그 후 적극적인 대외 팽창에 나서 이탈리아, 러시아 등지에 개입하였다. 특히 라틴 아메리카의 신생 독립국 멕시코에서 막시밀리안을 허수아비 황제로 세워 팽창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림은 막시밀리안이 멕시코 정부군에 체포되어 처형되는 모습을 화가 마네가 화폭에 담은 것이다.

- 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 ② 빈 회의를 주도하였다.
- ③ 파리 코뮌을 진압하였다.
- ④ 7월 혁명으로 즉위하였다.
- ⑤ 대륙 봉쇄령을 공포하였다.

이탈리아와 독일의 국민 국가 발전

[★이탈리아의 통일]

01. 통일 전 상황

- 나폴리 왕국, 교황령, 사르데냐 왕국(1720 ~) 등으로 분열
- 북부 지역(롬바르드 · 베네치아)
: 오스트리아의 간섭과 지배
- 나폴레옹의 침공을 계기로 민족의식 고조
- 프랑스 2월 혁명의 영향
: 마치니와 가리발디 등이 민족 통일 운동 전개 → 실패



02. 통일 과정

- 사르데냐 왕국의 주도
- 재상 카보우르(Conte di Cavou, 1810 ~ 1861)의 정책
: 산업 장려, 군대 개편(1852 ~)
- 프롱비에르 협정(카보우르 ~ 나폴레옹 3세, 1858) 등 치밀한 외교 정책

01.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은 사르데냐가 도발하고 이 전쟁으로 인한 국제 관계와 전쟁의 국지화 노력은 주로 프랑스가 담당한다.
02. 전후 이탈리아를 다음과 같은 4개의 정치 단위로 구성한다.
 - i. 사르데냐, 롬바르디아, 베네치아, 파르마, 모데나 등으로 구성되는 북부 이탈리아 왕국
 - ii. 토스카나를 중심으로 하는 중부 이탈리아 왕국
 - iii. 로마와 그 주변지역인 라치오 지방으로 축소된 교황령.
 - iv. 나폴리와 시칠리아의 양 시칠리아 왕국.
03. 이들 4개의 정치 단위는 연방으로 구성되며 교황이 그 의장이 되나 실제로는 사르데냐가 지배한다.
04. 프랑스는 사르데냐 영토인 사보이를 합병한다.
05. 엠마누엘 국왕의 장녀인 15세의 클로틸드 공주는 나폴레옹 3세의 조카인 36세의 제롬 공과 결혼한다.
.....

- 나폴레옹 3세의 지원으로 오스트리아와의 전쟁(1859)에서 승리
: 중 · 북부 이탈리아 병합
: 솔페리노 전투 이후 프랑스가 오스트리아와 일방적으로 휴전(빌라프랑카 조약, 1859. 7월)
- 가리발디가 이끄는 붉은 의용대의 활동(1859 ~ 1860)
: 시칠리아와 나폴리 왕국을 점령하고 사르데냐에 헌납
- 이탈리아 왕국 탄생(1861. 3월)
: 수도 피렌체
: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를 국왕으로 추대
- 프로이센 · 오스트리아 전쟁
: 베네치아 병합(1866)
- 프로이센 · 프랑스 전쟁
: 로마 교황령 점령(1870)



〈가리발디(1807 ~ 1882)〉

이탈리아와 독일의 국민 국가 발전

[★독일 지역의 통일]

01. 통일 전의 상황

- 35개의 영방국가와 4개의 자유시로 분열
- 빈 체제에 따라 독일 연방 창설(1815)

02. 통일의 움직임

- 관세 동맹 체결(1834)
 - : 프로이센(1701 ~) 주도 → 경제적 통일 도모
 - : 오스트리아 제외
- 프랑크푸르트 국민 의회(1848. 5월 ~ 1849. 6월)
 - : 파울로 교회에서 본회의 시작
 - : 헌법 제정 의회
 - : 소독일주의(프로이센, 1민족 1국가) ⇔ 대독일주의(오스트리아, 다민족 1국가)



03. 프로이센 중심의 무력 통일

- 빌헬름 1세, 프로이센 국왕 즉위(1861)
- 비스마르크(1815 ~ 1898) 주도
 - : 재상 취임과 의회 연설(1862)
 - : 철혈 정책(Blut und Eisen Politik)으로 군비 증강



〈비스마르크〉

혁명을 마음에 품은 뾰뚱스러운 무리가 너무도 많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사명은 일반적인 목소리를 지도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의 몸에 비해 군비가 너무 무겁다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이롭다면 우리는 그것에 익숙해 지려는 정열을 가져야 합니다. …… 빈 회의 이래 우리의 국경은 정상적인 국가에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중요한 문제들은 언론이나 다수결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1848년과 1849년의 중대한 오류였습니다. 문제는 철과 피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 비스마르크가 의회에서 행한 연설 중에서(1862)

- : 소독일주의적 통일과 무력에 의한 방해 세력 제거, 의회 기능 정지
- 덴마크와의 전쟁에서 승리(1864)
- 프로이센 · 오스트리아 전쟁(1866)
 - : 북독일 연방 결성(1867)
- 프로이센 · 프랑스 전쟁(1870)
 - : 알자스 · 로렌 지방 획득(1870), 남독일 연방 결성
- 프로이센 국왕 빌헬름 1세의 독일 제국 황제 즉위(베르사유 궁전, 재위 1871 ~ 1888)

개념 Check

- ① 사르데냐 왕국의 재상 카보우르는 1858년 프랑스와 공수 동맹인 () 협정을 체결하였다.
- ② ()는 의용대를 이끌고 시칠리아 왕국과 나폴리 왕국을 점령하여 이 지역을 사르데냐 국왕에게 헌납하였다.
- ③ 이탈리아 왕국은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에 승전한 것을 계기로 ()를 병합하였다.
- ④ 독일은 정치적 통일에 앞서 프로이센의 주도로 1834년 () 동맹을 체결하여 경제적 통일을 달성하였다.
- ⑤ ()는 철혈 정책을 실시하여 프로이센 중심의 통일을 추진하였다.

유형 CHECK!!

01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2-9월 모의평기]

장관님, 우리는 남부에 비해 산업이 발달한 북부와 중부 지역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통합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는 남부 지역 일대까지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대내적으로 주요 공업 지대를 획득하고, 대외적으로는 니스 등의 할양을 약속함으로써 프랑스의 군사적 지원을 보장받아 오스트리아에 맞섰습니다. 아울러 (가)



- ① 알자스·로렌 지방을 점령하였습니다.
- ② 시칠리아, 나폴리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 ③ 요크타운 전투에서 영국군을 물리쳤습니다.
- ④ 보스턴 항구에 대한 폐쇄 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 ⑤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벌여 슐레지엔을 장악하였습니다.

02

(가), (나)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1-수능]

이탈리아 통일을 주도한 사르데냐 왕국은 북부 이탈리아 일대를 지배하던 인접국 (가)에 맞서기 위해 (나)의 군사력을 빌리는 대가로 니스 등을 할양하였다. 그러나 솔페리노 전투 등에서 큰 병력 손실을 입은 (나)이(가) 사르데냐 왕국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휴전하였다. 이에 사르데냐 왕국은 북부 이탈리아의 일부 지역을 차지하는데 만족해야 했다. 이때 사르데냐 왕국이 획득하지 못한 베네치아는 통일된 이탈리아 왕국에도 속하지 못하다가, 프로이센이 속적 (가)에 승전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이탈리아 왕국에 편입되었다.

- ① 미국 혁명 당시 렉싱턴 전투에서 교전을 벌였다.
- ②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하였다.
- ③ 입법 의회의 선전 포고 이후 혁명전쟁에서 충돌하였다.
- ④ 알타 회담에 참여하여 전후 독일 처리 문제를 논의하였다.
- ⑤ 독일의 팽창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3국 협상에 가담하였다.

국민 국가의 발전

[미국의 발전]

01. 독립 이후의 변화

- 미·영 전쟁(= 제2차 독립 전쟁, 1812 ~ 1814)
 - : 영국 상품의 수입 중단
 - : 북부를 중심으로 산업과 공업 발달
- **먼로 선언(주의) 발표(1823)**
- **서부 개척** 등으로 1840년대 **태평양 연안**까지 영토 확장



02. 남북 전쟁 전의 상황[『툼 아저씨의 오두막(1852)』]

- 북부와 남부 사이의 대립 격화

〈남북 경제 비교, 『더 타임스 세계사』(2016)〉

북부	남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공업, 산업 자본가, 공화당 ✓ 노예제 반대, 보호 무역, 연방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농장, 대지주, 민주당 ✓ 노예제 찬성, 자유 무역, 분권주의(지역주의)

03. 남북 전쟁(1861 ~ 1865)

1) 배경

- 공화당 후보 **링컨(1808 ~ 1865. 4월의 대통령 당선(16), 1860)**
- 남부 7주(뒤에 11주)의 연방 탈퇴
 - : 독자 헌법 제정, 대통령(제퍼슨 데이비스) 선출(1861. 2월)



〈링컨〉

2) 발발과 전개

- 섬터 요새(Fort Sumter)에 대한 남군의 공격으로 전쟁 발발(1861. 4월)
- 초기 남부 유리
- 링컨의 **노예 해방 선언(1863. 7월)**
- 게티즈버그 전투(1863. 7월)
- 북부 승리(1865. 5월)



3) 전쟁 이후의 발전

- 통합된 국민 국가로 성장
- **대륙 횡단 철도의 개통(1869)**
 - : 지역 간의 통합과 산업화 촉진
- 유럽 등 다른 지역의 이민자 수용

현재 미국에 대하여 반란 상태에 있는 주의 노예들은 1863년 1월 1일 이후부터 영원히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 미국의 대통령인 나, 에이브러햄 링컨은 …… 자유가 선언된 노예들에게 …… 적합한 임금을 벌기 위하여 성실히 노동할 것을 권유한다. 또한 적합한 조건을 갖춘 자는 미국 군대에 입대하여 요새, 진지 및 기타 부서에 배치되고 모든 종류의 선박에도 배치될 것임을 알린다.

국민 국가의 발전

[러시아의 발전]

01. 러시아의 후진성

- 차르(tsar) 전제 정치와 농노제 지속
- 데카브리스트[Dekabrist, 12월(Dekabri) 당원]의 봉기(1825)
: 청년 장교, 대학생, 지식인 등이 비밀 결사 조직
: 전제 정치 타도, 입헌 군주제 시행 요구



〈데카브리스트의 봉기〉

02. 니콜라이 1세(재위 1825 ~ 1855)의 전제 정치

- 데카브리스트의 봉기 진압 이후 보수적 반동 정치 실시
- 크림 전쟁(⇔ 오스만·프랑스·영국·프로이센·사르데냐 왕국, 1853 ~ 1856) 패배
: 흑해 방면으로의 남하 정책 실패

03. 알렉산드르 2세(재위 1855 ~ 1881)의 개혁

- 지방 의회 설립, 국민 개병제 시행
- 농노 해방령 발표(1861) ⇨ 농민들의 토지 할당 청원(1863)

귀족은 농노의 인신에 대한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였다. …… 농민은 일정 기간 법에 따라 자유 경작인의 모든 권리를 부여받을 것이다. 지주들은 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보유하면서 농민들에게 고정된 임대료를 받고 토지 경작권을 부여할 것이다. …… 동시에 농민에게 토지를 구매할 권리가 부여된다. …… 그리고 구매한 땅의 지주에 대한 의무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농민의 신분이 된다.

농노 해방령으로 4천만 명 이상의 농노가 자유민이 되었으나, 토지를 무상으로 얻지는 못하였다. 해방된 농노들은 토지를 분배받은 대가로 지주에게 장기적으로 막대한 토지 상환금을 지불해야만 하였다. 또한 토지 소유권이 농민 개인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미르)에 있었고, 농민이 부여받은 토지는 비옥하지 않았기에 어려운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 제6차 러시아·튀르크 전쟁(1877 ~ 1878) 승리
: 산 스테파노 조약(Treaty of San Stefano 1878. 3月), 발칸 반도 내(內) 영향력 증대

04. 전제 정치에 대한 반발

- 근본적 변화가 없는 미온적 개혁에 반발
- 허무주의(Nihilism), 무정부주의(Anarchism) 대두
- 나로드니키의 브나로드(Vnarođ) 운동 전개
: 정부의 탄압과 농민의 무관심으로 실패
- 인민의 의사(People's will, 과격 무정부주의자)의 알렉산드르 2세 암살(1881)
- 자유주의 운동 탄압 등 전제 정치 강화

▣ 브나로드 운동(1873 ~ 1875)

‘브나로드’는 ‘민중 속으로’라는 의미로, 지식인과 청년을 중심으로 농촌을 계몽하기 위한 운동이다.

05. 니콜라이 2세(재위 1894 ~ 1917)의 전제 정치

- 1870년대 산업 혁명 본격화
- 사회주의 확산
: 레닌(1870 ~ 1924) 주도 아래 러시아 사회 민주 노동당 결성(1898)

산업 혁명과 산업 사회의 형성

[근대 자본주의의 발달]

01. 신향로 개척(1488 ~)

- 광대한 시장 확보 → 상공 시민들의 비약적 성장
- 어음 교환 방식 등 금융 제도 발달

02. 가격 혁명(price revolution) ⇨ 상업 혁명(commercial revolution)

- 아메리카 대륙에서 막대한 양의 금과 은 유입
- 저임금 노동자, 화폐 지대 수입에 의존하던 토지 귀족 몰락
- 상업, 제조업에 종사하던 상공 시민 계층의 경제적 부 증가

▣ 선대제(先貸制)

상인 자본가가 수공업자에게 원료와 필요한 설비를 제공하고 생산된 상품을 임금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불한 후 거두어 가서 판매하는 제도이다.

03.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16 ~ 18세기)

- 상인 자본가들이 길드의 제약을 피해 농촌으로 진출
- 선대제(putting - out system), 매뉴팩처(공장제 수공업) 방식의 생산
- 17세기 주식회사(company limited by shares) 등장



〈매뉴팩처(manufacture)〉

[영국의 산업 혁명(1768 ~)]

01.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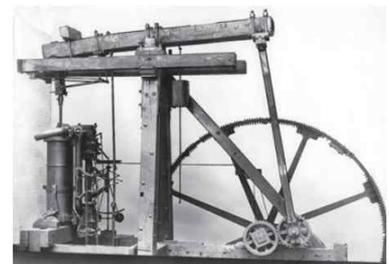
- 모직물 공업 발달로 자본 축적
- 식민지 쟁탈전에서 승리해 광대한 해외 시장 확보
- 제2차 인클로저 운동으로 풍부한 노동력 확보
- 명예혁명 이후 정치적 안정으로 자유로운 경제 활동 가능
- 석탄, 철 등 지하자원 풍부

▣ 인클로저 운동(Enclosure Movement)

제1차 인클로저 운동은 16세기에 모직물 수요가 증가하자 양을 키우려고 농경지를 방목지로 만들면서 일어났다. 반면, 제2차 인클로저 운동은 18세기에 곡물 수요가 증가하자 대지주들이 상업적 농업으로 높은 이윤을 창출하려고 소농민의 토지를 매수·병합하여 기업적 영농을 하면서 일어났다.

02. 전개[① ~ ④]

- 인도산 면직물과 경쟁하기 위해 면직물 생산의 기계화 노력
- 방적기(아크라이트, 실, 1767), 방직기(카트라이트, 천, 1786) 발명[① 기술 혁명]
- 제임스 와트(1736 ~ 1819)의 증기 기관 개량[② 동력 혁명, 1782]
- 증기 기관의 사용
- 석탄 채굴량 증가, 제철 공업의 효율성 증가, 기계 공업의 발달
- 교통 기관의 발달[③ 교통 혁명]
- 증기선 실용화(폴턴, 1807), 증기기관차 운행 성공(스티븐슨, 1814)
- 제품과 여객 수송을 위한 철도 개통(리버풀 ~ 맨체스터, 1830)
- ④ 통신 혁명
- 모스의 유선 전신(1844), 마르코니의 무선 전신(1896)
- 벨(1847 ~ 1922)의 전화(1876)



〈제임스 와트의 증기 기관〉

산업 혁명과 산업 사회의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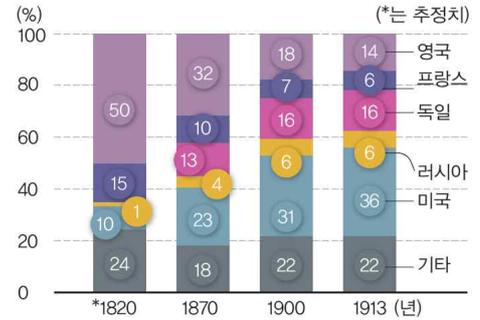
[산업 혁명의 확산]

01. 산업 혁명 직후

- 영국, ‘세계의 공장’
: 제1회 런던 만국박람회(빅토리아 여왕, 1851)

02. 세계 각국으로 확산

- 1830년대 : 벨기에(플랑드르), 프랑스
- 1870년대 : 미국, 남북 전쟁(1861 ~ 1865) 이후 급속한 산업화
: 독일, 비스마르크(1815 ~ 1898) 주도 하에 중공업 발달



〈주요 국가의 공업 생산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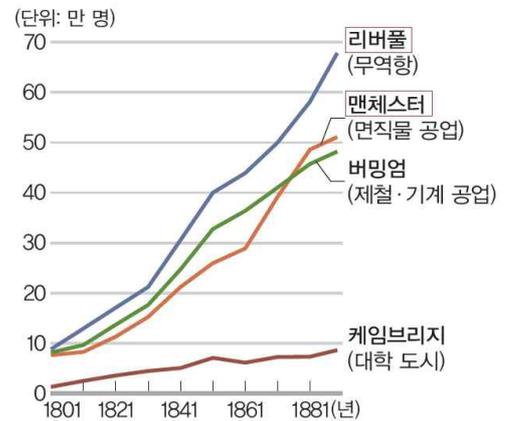
[산업 혁명으로 인한 사회 변화]

01. 산업화

- 공장제 기계공업, 자본주의 경제체제 확립

02. 도시화

- 도시에 공장 집중, 교통과 통신혁명으로 인구의 도시 이동
- 환경오염, 주택 부족, 교통 혼잡, 위생 등 도시 문제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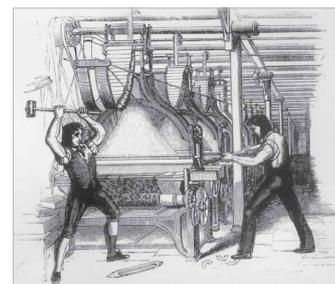
〈영국의 도시별 인구 변화〉

03.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생산관계 형성

- 자본가의 생산수단 소유,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노동자

04. 다양한 노동 운동의 등장

- 러다이트 운동(Luddite Movement, 1811 ~ 1817)
- 여성·아동 노동 문제 해결 시도
: 공장법 제정(1833)



〈기계를 부수는 노동자들〉

05. 사회주의 사상(Socialism)의 대두

- 사유 재산제의 불합리한 면을 비판하고 평등 사회 주장
: 노동조합 결성, 노동 운동 후원
- 초기 사회주의(공상적 사회주의)
: 자본가와 노동자의 타협 및 협동 주장
: 생시몽(1760 ~ 1825), 푸리에(1772 ~ 1837), 오언[New Lanark(협동촌, 1799 ~), 1771 ~ 1858]
- 과학적 사회주의
: 자본가 계급 타도와 노동자의 권력 쟁취 주장
: 마르크스·엔겔스의 『공산당 선언』(1848)
- 사회주의 단체와 정당 출현(독·프·영), 국제적인 노동 운동(제1차 인터내셔널, 런던, 1864 ~ 1876)



▣ 아동 노동의 실태

1832년 12월 총선으로 집권한 휘그당 정부는 다음해 4월 19일 공장 조사를 위한 왕립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위원회 보고서는 아동 노동의 심각한 실태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첫째, 주요 산업 분야에 고용된 아동의 노동일은 성인 노동자와 비슷한 실정이다. 둘째, 장시간 노동 때문에 일부 아동은 만성 질환에 시달리고 지적 교육과 생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셋째, 공장 아동은 대부분 부모에 의해 강제로 취업하고 있다.

▣ 빅토리아 여왕(재위 1837 ~ 1901)의 만국 박람회 개막식 연설(1851)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삶에서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 만국 박람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어 하이드 파크에는 수많은 인파가 운집하였고, 그 한복판에는 수정궁(Crystal Palace)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 우리는 이 수정궁의 엄청난 규모와 그 내부의 화려한 장식물 그리고 각종 기계와 제품 등 진귀한 전시물에 환호하며 많은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력과 자부심은 이 거대한 유리와 철제 구조물로 세워진 수정궁의 화려함 속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 사회주의 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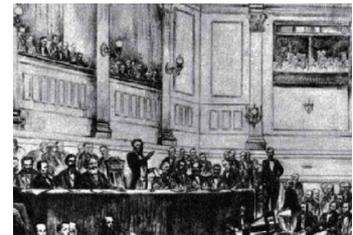
<오언, 협동촌>

주장을 펼친 생시몽, 푸리에, 오언 등의 초기 사회주의자들을 공상적 사회주의자라고 한다.

사회주의 사상을 과학적인 공산주의 이론으로 체계화하고 국제 노동자 운동에 앞장선 사람은 마르크스(1818 ~ 1883)와 엥겔스(1820 ~ 1895)였다.

마르크스는 유물 사관(唯物史觀)에 기초하여 자본주의 사회 붕괴를 예언하였으며 제1 인터내셔널 창립 연설에서 노동자가 스스로 정치권력을 획득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사회주의는 산업화에 따른 자본주의적 변화, 즉 시장 원리에 따라 가진 자들이 이익을 보는 자유방임 경제 체제에 반대하는 사상을 뜻한다. 부르주아 계급은 경쟁이나 자유와 같은 개인주의 가치를 강조하였지만, 초기 사회주의자들은 협동, 평등과 같은 집단주의 가치를 존중하였다. 그들은 생산 수단의 사유화와 사유 재산을 반대하고 공동 생산과 공동 분배를 통해 부의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제1차 인터내셔널 창립 대회>

개념 Check

- ① 산업 혁명은 1768년 ()에서 시작되었다.
- ② 1782년 ()가 증기 기관을 개량하면서 산업 혁명이 본격화되었다.
- ③ 1814년 스티븐슨이 ()를 개발하여 철도 교통 시대를 열었다.
- ④ 미국의 ()는 유선 전신을, ()은 전화를 발명하였다. 이러한 통신 혁명은 산업 혁명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 ⑤ 산업 혁명으로 인해 실업 상태에 직면한 노동자들이 기계를 파괴하는 () 운동을 전개하였다.
- ⑥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 사상을 과학적인 공산주의 이론으로 체계화하였다.

01

다음 편지기 작성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1-4월 학력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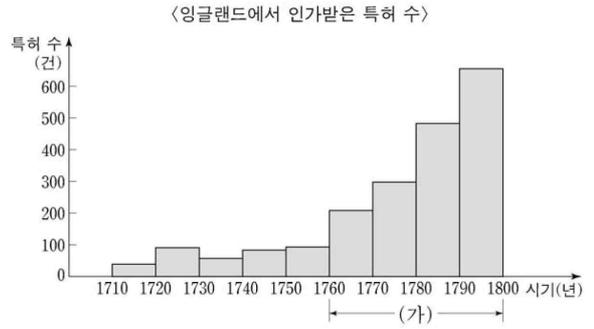
친애하는 제임슨 부인

저는 사흘 전 설레는 마음으로 리버풀과 맨체스터 간 철도 개통식에 참석했어요. 개통식에서는 스티븐슨이 개발한 '로켓호'라는 증기 기관차가 철로 위를 달렸어요. 이 증기 기관차는 제임스 와트가 증기 기관을 개량한 후 60여 년 만에 등장한 위대한 결과물이라 하더군요. 저는 어제 시속 5~30마일의 속도로 달리는 증기 기관차를 타고 리버풀에서 맨체스터로 갔어요. 신기했던 경험을 잊을 수 없네요.

- ① 장미 전쟁에 참전하는 기사
- ② 자크리의 난에 참여하는 농민
- ③ 와그너 법의 공포를 환영하는 시민
- ④ 방적기를 이용하여 실을 뽑는 노동자
- ⑤ 대헌장(마그나카르타)을 승인하는 국왕

02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020-수능]



- ① 에디슨이 축음기를 발명하였다.
- ② 풀턴이 증기선을 실용화하였다.
- ③ 다윈이 『종의 기원』을 출간하였다.
- ④ 차티스트들이 『인민헌장』을 발표하였다.
- ⑤ 와트가 증기 기관 개량에 성공하였다.

19세기의 사상과 문화

[자연 과학의 발달(『비상 교과서』)]

생물학	다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의 기원』 발표(1859) • 적자생존, 자연 도태의 개념으로 생물의 진화 과정 설명 • <u>사회 진화론에 영향</u>
	멘델	• 완두콩 실험, 유전 법칙 발표, 유전학의 기초 확립
세균학	파스퇴르	• 전염병의 원인이 세균 때문임을 규명 → 질병의 예방·치료 기여
물리학	마이어·헬름홀츠	• 에너지 보존의 법칙 발견
	패러데이	• 전자기 유도 법칙 발견
화학	뢴트겐	• X선 발견
	퀴리 부처	• 라듐 발견
	헤르츠	• 전자기파의 존재 입증
	멘델레예프	• 원소 주기율표 작성

생존 경쟁은 …… 전체 동물과 식물의 왕국에 적용된 맬서스의 교리이다. 각 종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개체들이 태어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생존 경쟁이 빈번히 반복되기 때문에, 만약 어떤 존재가 복합적이고 때로는 달라지는 생활 조건에서, 자신에게 어떤 식으로든 약간이라도 유리하게 바뀐다면, 생존 기회가 더 많아지고 그 결과 자연적으로 선택된다. 강력한 유전 원칙에 따라서 선택된 변종은 자신의 새롭고 변모된 형태를 유전시키는 경향을 가지게 될 것이다. - 『종의 기원』(1859)

[기술의 발달(『비상 교과서』)]

노벨	• 다이내마이트 발명
에디슨	• 전등, 축음기(1877), 활동사진 등 발명
패러데이	• 발전기 발명

[철학의 발달(『비상 교과서』)]

관념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기 후반 ~ 19세기 전반 독일에서 전개 • 칸트(1724 ~ 1804) 시작 • 피히테(1762 ~ 1814), 헤겔(1770 ~ 1831, 변증법)의 완성 	
실증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콩트(1798 ~ 1857) : 인간의 지식과 실천을 과학적 실증 방법으로 규명 : 사회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 개척 	
공리주의 (功利)	벤담 (1748 ~ 18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적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 개인의 쾌락과 집단 전체의 쾌락이 조화되어야 함을 강조
	밀 (1806 ~ 18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주의가 가진 부정적인 면 지적 • 인간적, 사회적 차원을 고려한 질적 공리주의 제시 • 벤담의 사상을 계승하여 영국 자유주의 개혁 사상의 이론적 토대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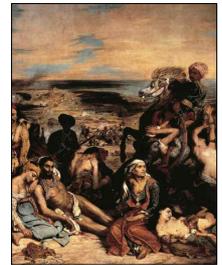
19세기의 사상과 문화

[역사학과 경제학(『비상 교과서』)]

역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주의 + 낭만주의 ✓ 민족의 과거와 전통에 관심 → 역사학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랑케(1795 ~ 1886) ✓ 엄격한 사료 비판, 객관적인 역사 연구를 강조 ✓ 근대 역사학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카도(1772 ~ 1823), 맬서스(1766 ~ 1834) 등 고전 경제학 완성



〈1808년 5월 3일〉



〈카오스 섬의 학살〉

[문예 사조(『비상 · 미래엔 교과서』)]

01. 낭만주의(19세기 전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성을 중시하는 계몽사상과 형식에 치우친 고전주의에 대한 반발 • 개인의 감정과 상상력 존중 • 민족의 역사와 전통에 관심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학: 괴테, 하이네, 바이런, 워즈워드, 푸시킨 회화: 고야(1808년 5월 3일), 들라크루아(카오스 섬의 학살) 음악: 슈베르트, 슈만, 쇼팽

02. 사실주의와 자연주의(19세기 후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낭만주의에 대한 반발 • 과학의 발달과 실증주의의 영향 •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 → 산업화된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 반영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학: 발자크, 에밀 졸라, 찰스 디킨스,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회화: 사실주의(쿠르베, 밀레) 빛과 색채 중시의 인상파(마네, 모네, 르누아르) 음악: 드보르작, 시벨리우스, 브람스, 드뷔시, 베르디, 차이콥스키

그곳은 붉은 벽돌, 아니 만약 연기와 재가 가리지 않았더라면 붉은색이었을 벽돌의 도시였다. …… 그곳은 기계와 높은 굴뚝의 도시였다. 그 굴뚝으로부터 끝없는 뱀 같은 연기가 영원히 계속해서 결코 그 파리를 풀지 않을 것처럼 뿜어져 나왔다. 그 도시에는 검은색 운하가 있고, 강은 염료 때문에 자주 빛으로 변하였으며, 더러운 냄새를 풍겼다. 그리고 도시에 가득 찬 건물 더미의 창문은 온종일 덜컹거리고 떨어 댔다.

- 디킨스, 『어려운 시절』(1854)



〈쿠르베, 돌 깨는 사람들〉



구분	내용
르네상스	① 인간과 자연의 재발견(<u>인문주의</u>) ② 중세 신(神) 중심의 세계관 극복 → 인간 중심의 <u>고대 그리스·로마 문예 부흥 운동</u> ③ 북부 이탈리아 지역(14세기) : 지중해 무역 발달, 사실적·세속적 성향, 조각·회화 등의 문예 중심, 심미주의(審美主義) : <u>페트라르카</u> , <u>마키아벨리</u> (『군주론』), <u>보카치오</u> , 레오나르도 다 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④ 알프스 이북 지역(16세기) : 대서양 무역 발달, <u>크리스트교적 인문주의</u> , <u>종교·사회 비판적</u> , 사회 개혁 추구 : <u>에라스무스</u> (『우신예찬』), <u>토머스 모어</u> (『유토피아』), 세르반테스(『돈키호테』) ⑤ 과학·기술의 발달 : 활판인쇄술(구텐베르크, 1455), 지동설(<u>코페르니쿠스</u> ,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 1543)
종교 개혁	① <u>루터의 종교 개혁(1517)</u> : 비텐베르크, <u>95개조의 반박문</u> (⇨ 면벌부 발행), <u>성서 지상주의</u> , 보름스 국회(1521) : 슈말칼덴 전쟁(1546 ~), <u>아우크스부르크 회의</u> (제후·도시 지도자의 종교 선택권 인정, 1555) ② <u>칼뱅의 종교 개혁(1536)</u> : 제네바, 『 <u>크리스트교 강요</u> 』(<u>예정설·직업소명설</u> , 1536), 상공 시민들의 지지 ③ <u>영국의 종교 개혁</u> : 정치·경제적 동기, <u>수장법(1534)</u> , <u>통일법(영국 국교회 확립, 1559)</u> ④ 가톨릭 내부의 개혁 : 예수회 설립(1534), <u>트리엔트 공의회(1545 ~ 1563)</u> ⑤ <u>종교 전쟁</u> : 위그노 전쟁(<u>낭트 칙령, 1598</u>), 네덜란드 독립 전쟁, 30년 전쟁(<u>베스트팔렌조약, 1648</u>)
절대 왕정	① <u>왕권신수설</u> , <u>중상주의</u> , 관료제·상비군, <u>시민의 지원</u> , <u>펠리페 2세</u> , <u>엘리자베스 1세</u> , <u>루이 14세</u> ② 동유럽 절대 왕정 : <u>계몽 절대 군주</u> , 농노제 강화, <u>프리드리히 II</u> , <u>마리아 테레지아</u> , <u>예카테리나 II</u>
신항로 개척	① 오스만 제국의 동방 교역 차단, 이베리아 반도의 국가 주도(<u>포르투갈</u> , <u>에스파냐</u>) ② 바르톨로메우디아스(희망봉), <u>콜럼버스(서인도 제도)</u> , <u>바스쿠 다가마(인도 항로)</u> , <u>마젤란(세계 일주)</u> ③ 무역 중심지 확대(<u>지중해·대서양</u>), 은 중심의 세계적 교역망, <u>노예무역</u> , 가격 혁명 → 상업 혁명
산업 혁명	① <u>영국 시작(1768)</u> : 인도산 면직물 수요 증가, 제2차 인클로저 운동, 명예혁명 이후 정치적 안정 ② <u>기술 혁명</u> (방직기·방직기) ⇨ <u>동력 혁명</u> (제임스 와트, 증기 기관, 1782) ⇨ <u>교통·통신 혁명</u> ③ <u>산업화</u> (기계 공업), <u>도시화</u> , 자본가와 노동자 계층 분화, 빈부격차 심화, 부녀자·아동 노동 문제 ④ <u>사회주의</u> : 공상적 사회주의(오언, 뉴 라나크), 과학적 사회주의(맑스·엔겔스, 『공산당 선언』)
시민 혁명	① <u>영국</u> : 권리청원(1628) ⇨ <u>청교도 혁명</u> (1642 ~ 1649) ⇨ <u>명예혁명</u> (1688) ⇨ 권리장전(1689) ② <u>미국</u> : <u>인지세(1765)</u> ·차(茶)세 ⇨ <u>보스턴 차 사건(1773)</u> ⇨ 렉싱턴 전투 ⇨ <u>독립 선언서(1776)</u> ⇨ 제2차 필라델피아 대륙 회의(1775 ~ 81) ⇨ <u>요크타운 전투(1781)</u> ⇨ <u>파리 조약(1783)</u> ③ <u>프랑스</u> : 삼부회 소집(1789) ⇨ <u>국민의회</u> ⇨ 바스티유 감옥 습격 ⇨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 베르사유 대행진 ⇨ <u>입법의회(1791)</u> ⇨ 혁명전쟁 ⇨ <u>국민공회(1792)</u> ⇨ 루이 16세 처형(1793) ⇨ 공포 정치(<u>로베스피에르</u>) ⇨ 테르미도르의 반동(1794) ⇨ <u>총재 정부(1795)</u>
국민 국가의 발전	① 나폴레옹 시대 : 통령 정부(1799 ~ 1804), <u>제1 제정</u> , <u>대륙봉쇄령(1806)</u> , <u>러시아 원정(1812)</u> ② 빈회의와 빈체제(1815 ~) : 메테르니히, 신성 동맹과 4국 동맹, 자유주의·민족주의 운동 탄압 ③ <u>프랑스의 7월(1830)·2월(1848) 혁명</u> , <u>제2 제정(1852 ~ 70)</u> , 파리 코뮌(1871), 제3 공화정(1871) ④ 영국 : <u>제1차 선거법 개정(1832)</u> , <u>차티스트 운동(1838)</u> , <u>심사법(1828)</u> · <u>곡물법(1846)</u> · <u>항해법 폐지</u> ⑤ <u>이탈리아 왕국의 성립</u> (국왕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 1861 ~) : 사르데냐 왕국(1720 ~), <u>재상 카보우르</u> , <u>프롱비에르 협정(1858)</u> , <u>오스트리아와 전쟁</u> , <u>가리발디</u> ⑥ <u>독일 왕국의 출범</u> (국왕 빌헬름 1세, 1871 ~) : 프로이센 주도, <u>관세 동맹(1834)</u> , <u>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1848 ~ 1849)</u> , <u>비스마르크의 철혈정책</u> , <u>오스트리아와 전쟁(1866)</u> → 북독일 연방, 프로이센과 전쟁(1870 ~ 1871) → 남독일 연방 ⑦ 미국의 남북 전쟁(1861 ~ 1865), 러시아 알렉산드르 2세(~ 1881)의 <u>농노 해방령(1861)</u>